

ETHER LIBRARY

0001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F. 스콧 피츠제럴드

F. Scott Fitzgerald · 1925

문학 · 소설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F. 스콧 피츠제럴드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The Great Gatsby

지은이 F. 스콧 피츠제럴드(1896~1940)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925년,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뉴욕)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1925)를 영어 원전에서 옮긴 완역본입니다. 1925년 뉴욕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에서 나온 초판 본문을 따른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아홉 장, 원문 1,630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저본을 바로잡은 두 곳

7장의 두 군데는 저본의 글자가 앞뒤와 맞지 않아 바로잡았습니다.

> 사고 직후 윌슨의 울부짖음을 저본은 'grasping cries'라고 적었습니다. 몇 문단 앞의 'gasping moan'(헐떡이는 신음)과 짝을 이루는 자리이고 현대 통용본도 'gasping'으로 읽으므로, 「헐떡이며 내지르는 부르짖음」으로 옮겼습니다.
>
> 닉이 뷰캐넌네 집을 바라보는 대목에서 저본은 데이지의 방이 'ground floor'(1층)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앞에서 톰이 2층의 불 켜진 창 두 개를 올려다보며 「데이지가 와 있군」 하고 말합니다. 현대 통용본의 읽기('second floor')를 따라 「2층」으로 옮겼습니다.

작가 자신의 원문에서 앞뒤가 조금 어긋나는 몇 곳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영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인물 관계마다 말의 등급을 미리 정해 두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등급이 바뀌는 자리는 원문에서 관계가 바뀌는 자리뿐입니다.

개츠비는 누구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톰에게도, 하인에게도, 정원사에게도. 스스로 지어낸 「옥스퍼드 출신 신사」라는 인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7장 플라자 호텔에서 톰과 맞설 때 그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저」에서 「나」로 바꾸지만, 끝내 반말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닉과 조던은 4장 플라자 호텔 찻집에서 반말로 바뀝니다. 조던이 5년 전 루이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오후입니다.

데이지는 5년 만에 다시 만난 개츠비에게 줄곧 존댓말을 쓰다가, 7장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무너집니다. 「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바라!」

닉이 개츠비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곳은 8장의 한 번뿐입니다. 잔디밭 건너로 외치는, 닉이 개츠비에게 건넨 단 하나의 칭찬입니다.

한 가지로만 옮긴 말

모티프가 되는 말은 책 전체에서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초록 불빛, 재의 계곡, T. J. 에클버그 박사의 눈, 황홀한 미래(orgiastic future).

특히 **careless**는 모두 「무신경한」으로 옮겼습니다. 3장에서 조던이 「전 무신경한 사람이 싫어요」라고 한 말이 9장에서 조던 자신에게, 그리고 톰과 데이지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무신경한 사람들이었다, 톰과 데이지는.」

6장의 「육화는 완성되었다(the incarnation was complete)」와 8장 끝의 「번제는 완성되었다(the holocaust was complete)」는 원문이 같은 문형으로 짝을 이루므로 우리말에서도 같은 틀로 옮겼습니다.

old sport는 뜻을 풀지 않고 「올드 스포트」로 소리를 옮겼습니다. 영국 신사 흉내를 내는 개츠비의 말버릇이 어색하게 튀는 것 자체가 이 인물의 표지여서,

우리말 호칭으로 바꾸면 그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시대의 말

1920년대 미국 사회의 인종·민족 편견이 묻은 말은 순화하지 않고 당시의 말결대로 옮겼습니다. 인물이 그런 말을 쓴다는 사실이 곧 그 인물을, 그리고 그 시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각주 46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실존 인물, 유행가, 지명, 금주법 시대의 사정처럼 1920년대 미국 독자라면 알았을 것만 밝혔습니다. 상징을 해설하는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뜻이 흐려질 수 있는 자리에는 원문을 괄호 안에 함께 적었습니다.

9장에서 개츠의 아버지가 보여 주는 소년 제임스 개츠의 일과표는 원문의 배열대로 표로 짰습니다. 소년이 틀리게 쓴 철자(smokeing) 하나는 틀린 대로 옮겼습니다(「담베」).

책과 신문 이름은 《 》로, 노래 제목은 ' '로 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젤다에게

그렇다면 금빛 모자를 써라, 그것으로 그 여자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높이 뛸 수 있다면, 그 여자를 위해서도 뛰어올라라.

마침내 그 여자가 이렇게 외칠 때까지.

"연인이여, 금빛 모자를 쓴, 높이 뛰어오르는 연인이여,

나는 당신을 가져야겠어요!"

토머스 파크 던빌리어스

차례

1장 10

2장 32

3장 49

4장 72

5장 94

6장 112

7장 129

8장 168

9장 186

1장

지금보다 어리고 마음이 여리던 시절, 아버지가 나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아직도 곱씹는다.

"누굴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말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세상 사람이 다 너만큼 좋은 조건을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자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이상하게 서로 잘 통하는 사이여서, 나는 그 말에 훨씬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들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그 버릇 덕분에 별난 사람들이 내게 속을 털어놓았고, 덕분에 지겨운 인간들에게 붙들려 시달리기도 했다. 멀쩡한 사람에게 이런 구석이 보이면 비뚤어진 사람들은 금세 알아채고 달라붙기 마련이다. 대학 시절 내가 정치꾼이라는 억울한 소리를 들은 것도 그래서였다. 거칠고 이름 없는 사내들의 은밀한 슬픔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고백은 대부분 내가 청한 게 아니었고, 누가 속을 털어놓으려는 낌새가 보이면 나는 곧잘 자는 척하거나, 딴생각에 잠긴 척하거나, 짐짓 퉁명스럽게 굴었다. 젊은 남자가 털어놓는 속내란, 적어도 그걸 풀어내는 말투란 대개 어디서 빌려온 것이고 감춘 데가 빤히 보이기 마련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끝없이 희망을 품는 일이다. 기본적인 도리를 아는 감각은 사람마다 타고나는 몫이 다르다. 아버지가 짐짓 점잔을 빼며 한 말이고, 나도 점잔을 빼며 되풀이하는 말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뭔가 놓칠 것 같아서 나는 아직도 조금 두렵다.

이렇게 내 너그러움을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그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아야겠다. 사람의 행실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설 수도 있고 축축한 늪 위에 설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나는 그게 무엇 위에 서 있든 상관하지 않게 된다. 지난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이 온통 반듯해지기를, 사람들이 다들 줄을 맞춰 서서 영원히 도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랐다. 남의 마음속을 특별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어수선한 경험은 이제 지긋지긋했다. 오직 개츠비만은 예외였다. 이 책에 이름을 준 그 사내, 내가 꾸밈없이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그 개츠비만은 그 반작용에서 빠져 있었다. 사람됨이란 게 성공한 몸짓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일이라면, 그에게는 어딘가 눈부신 데가 있었다. 삶이 건네는 약속을 알아채는 감각이 남달라서, 만 마일 밖의 지진까지 잡아내는 정밀한 기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같았다. 그 예민함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는 물렁한 감수성과는 전혀 달랐다. 희망을 품는 비범한 재능, 낭만적 감수성(romantic readiness)이었고, 나는 그런 것을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개츠비는 결국 괜찮은 사람이었다. 내가 한동안 사람들의 어그러진 슬픔과 숨 가쁜 환희에 마음을 닫아버린 건 개츠비 때문이 아니라, 그를 갉아먹은 것들과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돌던 더러운 먼지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삼대째 이 중서부 도시에서 행세깨나 하며 넉넉하게 살아왔다. 캐러웨이 가문은 그런대로 한 문중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버클루 공작가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집안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계보를 실제로 연 사람은 할아버지의 형인데, 그는 1851년에 이곳으로 와서 남북전쟁에는 대리인을 사서 내보내고, 지금 아버지가 이어받은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다.

나는 이 큰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를 닮았다고들 한다.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린 저 무뚝뚝한 초상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1915년에 뉴헤이븐을 졸업했다.[1] 아버지보다 꼭 사반세기 늦은 셈이다. 얼마 뒤에는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저 뒤늦은 게르만족 대이동에 참가했다. 반격전이 어찌나 신났던지 돌아와서는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세상의 따뜻한 중심이던 중서부가 이제는 우주의 너덜너덜한 변두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동부로 가서 채권업을 배우기로 했다. 아는 사람이 죄다 채권업에 있었으니 독신 남자 하나쯤은 더 먹여 살릴 수 있으리라 싶었다. 고모와 삼촌들은 나를 어느 예비학교에 넣을지 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일을 두고 의논하더니, 마침내 아주 심각하고 망설이는 얼굴로 "글쎄, 그래, 그러지" 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일 년 치 생활비를 대주기로 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지다가 1922년 봄에 나는 동부로 왔다. 아주 눌러앉을 작정이었다.

따지고 보면 시내에 방을 얻는 게 맞았다. 그런데 계절이 따뜻했고, 나는 널찍한 잔디밭과 정겨운 나무가 있는 고장에서 막 올라온 참이어서, 사무실의 젊은 친구가 시내로 통근할 만한 교외에 집을 같이 얻자고 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싶었다. 집은 그가 찾아냈다. 한 달에 80달러짜리, 비바람에 시달린 판지 같은 방갈로였는데, 막판에 회사가 그를 워싱턴으로 보내는 바람에 나 혼자 시골로 나가게 되었다. 나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었고, 낡은 닷지 한 대와 핀란드인 가정부가 있었다. 개는 며칠 만에 달아나버렸다. 가정부는 잠자리를 봐주고 아침을 지어주었으며, 전기난로 앞에서 혼자 핀란드말로 무슨 지혜로운 소리를 중얼거리곤 했다.

하루 이틀은 적적했다. 그러다 어느 아침, 나보다도 늦게 이사 온 듯한 남자가 길에서 나를 붙들었다.

"웨스트에그 마을은 어떻게 갑니까?" 그가 난감한 얼굴로 물었다.

나는 길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어느새 적적함이 가셔 있었다. 나는 안내인이었고 길잡이였고 최초의 정착민이었으며, 그 사람은 길 하나 물어본 것만으로 나에게 이 동네의 시민권을 쥐여준 셈이다.

그렇게 햇살이 쏟아지고, 빨리 돌린 영화 속 장면처럼 나무마다 잎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가운데, 나는 여름과 함께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저 낯익은 확신을 품었다.

우선 읽을거리가 잔뜩 있었다. 숨통을 틔워주는 싱그러운 공기에서 끌어낼 건강도 넉넉했다. 나는 은행업과 신용과 투자증권에 관한 책을 열두 권 샀다. 조폐국에서 갓 나온 새 돈처럼 붉고 금빛 나는 책들이 책장에 늘어서서, 마이더스와 모건과 마이케나스만 알던 빛나는 비밀을 펼쳐 보이겠노라 약속했다.[2] 그 밖에도 여러 책을 읽겠다는 거창한 뜻을 품고 있었다. 대학 시절 나는 제법 문학청년이었다. 한 해는 《예일 뉴스》에 아주 엄숙하고 뻔한 사설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삶에 다시 불러들여, 모든 전문가 가운데 가장 옹색한 전문가인 저 '균형 잡힌 인간'이 되어볼 참이었다. 그저 말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인생이란 결국 창 하나로 내다볼 때 훨씬 잘 보이는 법이니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기묘한 동네에 집을 얻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뉴욕에서 정동쪽으로 뻗어나간 저 가늘고 소란스러운 섬에 있는 동네였다. 그 섬에는 진기한 자연물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별난 땅 모양이 두 군데 있었다. 시내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달걀 두 개가 바다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는데, 윤곽이 서로 똑같은 데다 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물길 하나로만 갈라져 있었다. 그 바다가 롱아일랜드해협이었다. 서반구를 통틀어 파도가 가장 잔잔한, 앞마당처럼 널따란 바다였다. 두 땅이 완전한 타원은 아니었다.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처럼 맞닿는 쪽 끝이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그래도 생김새가 저렇게 닮은 건 머리 위를 나는 갈매기들에게 두고두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날개 없는 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건 저 둘이 모양과 크기를 빼면 무엇 하나 닮은 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다. 둘 중에서 말하자면 덜 세련된 쪽이었다. 물론 이건 두 동네 사이의 기괴하고 적잖이 불길한 대비를 담기에는 지극히 겉핥기식 딱지에 지나지 않는다. 내 집은 달걀의 맨 끝, 해협에서 50야드밖에 안 떨어진 자리에 있었다. 한 철에 12,000달러니 15,000달러니 하는 값에 세를 놓는 거대한 저택 두 채 사이에 낀 집이었다. 오른쪽 집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어마어마했다. 노르망디의 어느 시청을 그대로 본뜬 건물이었다. 한쪽에 탑이 서 있고, 덜 자란 담쟁이가 수염처럼 성글게 덮였지만 그 아래는 티 하나 없이 새것이었으며,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까지 딸려 있었다. 그게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때는 개츠비 씨를 몰랐으니 그런 이름의 신사가 사는 저택이었다고 해야겠다. 내 집은 볼품없었다. 그래도 볼품없는 축에서도 작은 편이라 남들 눈에 안 띄고 넘어갔다. 덕분에 나는 바다를 볼 수 있었고 이웃집 잔디밭도 얼마쯤 볼 수 있었으며 백만장자들 곁에 산다는 위안까지 누렸다. 이 모두가 한 달에 80달러였다.

그 좁은 물길 건너편에서는 세련된 이스트에그의 흰 궁전들이 물가를 따라 반짝였고, 이 여름의 이야기는 내가 톰 뷰캐넌네로 저녁을 먹으러 차를 몰고 건너간 그 저녁에 비로소 시작된다. 데이지는 나와 육촌뻘이었고 톰은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시카고에서 두 사람과 이틀을 보내기도 했다.

데이지의 남편은 운동으로 이룬 것이 여럿이지만, 그중에서도 뉴헤이븐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드로 꼽히던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로는 전국구 인물이었다. 스물한 살에 그 좁은 분야의 꼭대기를 찍어버려서, 그 뒤로는 무엇을 해도 맥이 빠지는 그런 부류의 사내였다.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고, 대학 때도 그의 헤픈 씀씀이는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옮겨 왔는데, 그 씀씀이가 사람 기를 죽일 정도였다. 이를테면 레이크포리스트에서 폴로 조랑말을 한 무리 끌고 왔다. 내 또래 사내가 그런 짓을 할 만큼 부자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왜 동부로 왔는지는 모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랑스에서 일 년을 보냈고, 그다음에는 폴로를 치고 부자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았다. 이번에는 아주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데이지는 전화로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속마음이야 들여다볼 수 없었으나, 톰은 되찾을 수 없는 어느 미식축구 경기의 그 극적인 소용돌이를 조금은 애틋하게 찾아 헤매며 영영 떠돌 것 같았다.

그리하여 바람이 따뜻하던 어느 저녁, 나는 사실상 거의 알지 못하는 두 옛 친구를 보러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다. 두 사람의 집은 내 예상보다도 더 화려했다. 물길을 내려다보는, 붉고 흰 조지 왕조풍 식민지 양식의 화사한 저택이었다.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해 현관문을 향해 사분의 일 마일을 달려오면서 해시계와 벽돌길과 불타는 화단을 뛰어넘었고, 마침내 집에 다다라서는 달려온 기세를 못 이긴 듯 환한 덩굴이 되어 벽을 타고 올라갔다. 정면은 한 줄로 늘어선 프랑스식 창문이 끊어놓았는데, 금빛을 되비추며 빛나는 그 창들이 바람 따뜻한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앞에 승마복 차림의 톰 뷰캐넌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톰은 뉴헤이븐 시절과 달라져 있었다. 이제 서른, 몸이 다부지고 머리는 밀짚색이었으며 입매가 굳고 태도가 거만했다. 번들거리는

오만한 두 눈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늘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승마복의 곱상한 맵시로도 그 몸뚱이의 어마어마한 힘은 감출 수 없었다. 반들거리는 장화를 가득 채우다 못해 맨 위 끈까지 팽팽하게 당기는 듯했고, 얇은 상의 아래 어깨가 움직일 때면 근육 덩어리가 밀려다니는 게 보였다. 온몸의 힘을 한 점에 실어 낼 수 있는 몸, 잔인한 몸이었다.

말할 때의 목소리는 거칠고 쉰 데다 음까지 높아서, 그가 풍기는 까탈스러운 인상을 더했다. 목소리에는 아버지 같은 경멸이 한 자락 배어 있었는데 그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조차 그랬으니, 뉴헤이븐에 그를 뼛속까지 미워한 사내들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최종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사내답다고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는 4학년 때 같은 클럽에 있었다. 한 번도 가깝게 지낸 적은 없지만, 나는 늘 그가 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의 거칠고 뻣뻣한 애틋함으로 내가 자기를 좋아해주기를 바란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볕이 드는 현관에서 몇 분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자리 괜찮지." 톰이 말했다. 눈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번득였다.

톰이 내 한쪽 팔을 잡아 몸을 돌리더니 넓적한 손을 들어 앞쪽 경치를 죽 훑자, 그 손짓 안에 움푹 꺼진 이탈리아식 정원과, 짙고 향이 강한 장미가 심긴 반 에이커와, 앞바다에서 물결에 부딪히는 뭉툭한 모터보트가 들어왔다.

"석유업자 드메인 거였어." 톰은 정중하면서도 불쑥 나를 다시 돌려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높다란 복도를 지나 장밋빛으로 환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양쪽 끝의 프랑스식 창문이 그 방을 집에 아슬아슬하게 붙들어두고 있었다.

창문은 반쯤 열린 채 바깥의 싱그러운 풀밭을 배경으로 희게 빛났다. 풀밭은 집 안까지 조금 자라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산들바람이 방을 가로질러 불면서 한쪽 끝의 커튼은 안으로, 다른 쪽 커튼은 밖으로 밀어냈다. 바람은 창백한 깃발처럼 나부끼는 커튼을 웨딩케이크에 크림을 입힌 것 같은 천장 쪽으로 말아 올리더니, 포도즛빛 양탄자 위로 잔물결처럼 번져 가며 바다 위를 지나는 바람처럼 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방에서 완전히 붙박여 있는 물건은 커다란 소파 하나뿐이었다. 그 위에 젊은 여자 둘이 둥실 얹혀 있었다. 닻줄에 매인 커다란 풍선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둘 다 흰옷 차림이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치며 나부꼈는데, 방금 집 밖을 한 바퀴 날고 들어와 바람에 떠밀려 도로 내려앉은 것 같았다. 나는 커튼이 채찍처럼 후려치며 탁탁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이 앓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서 있었던 모양이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톰 뷰캐넌이 뒤쪽 창문을 닫았고, 방 안에 갇혔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커튼도 양탄자도 젊은 여자 둘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둘 중 어린 쪽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긴 의자 끝자락에 온몸을 쭉 뻗은 채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턱을 조금 치켜들고 있었는데, 떨어지기 쉬운 뭔가를 그 위에 얹고 균형을 잡는 것 같았다. 곁눈으로 나를 보았다 해도 그런 기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쪽에서 불쑥 들어와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마터면 중얼거릴 뻔했다.

다른 여자, 데이지는 일어나려는 시늉을 했다. 성의 있는 표정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더니 이내 웃었는데, 어처구니없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작은 웃음이었고, 나도 따라 웃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난 행복해서 마, 마비가 됐어."

데이지는 무슨 재치 있는 말이라도 한 듯이 다시 웃고는 잠시 내 손을 잡은 채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에서 나만큼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없다고 약속하는 눈빛.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다. 데이지는 균형을 잡고 있는 저 여자의 성이 베이커라고 나직이 흘리듯 알려주었다. 데이지가 소곤거리는 건 사람들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흉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흉이야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그렇다고 매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베이커 양은 입술을 달싹였고, 알아채기 힘들 만큼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얼른 머리를 도로 젖혔는데, 균형을 잡고 있던 그 물건이 조금 흔들려서 가슴이 철렁했던 모양이다. 그 바람에 또다시 사과의 말이 내 입가에 떠올랐다. 저렇게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안에서 완결된 모습을 보면 나는 거의 언제나 얼이 빠진 채 감탄하고 만다.

나는 다시 사촌을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낮고 설레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귀가 저절로 오르내리며 따라가게 되는 목소리,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음표의 배열 같은 목소리였다. 그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러웠고 그 안에 환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환한 눈과 환하고 정열적인 입이.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한때 데이지를 마음에 두었던 남자라면 잊기 어려운 들뜸이 있었다. 노래하듯 끌어당기는 힘, 속삭이는 '들어봐', 방금 전까지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다음 한 시간 안에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 기다린다는 약속이.

나는 동부로 오는 길에 시카고에 하루 들렀던 이야기며, 열댓 사람이 나를 통해 안부를 전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다들 나 보고 싶어 해?" 데이지가 황홀한 목소리로 외쳤다.

"온 동네가 적막강산이야. 차란 차는 죄다 왼쪽 뒷바퀴를 근조 화환처럼 검게 칠했고, 북쪽 해안에서는 밤새도록 곡소리가 그치질 않아."

"근사해라! 톰, 우리 돌아가자. 내일!" 그러더니 데이지는 뜬금없이 덧붙였다. "너 우리 애 좀 봐야 하는데."

"보고 싶어."

"자고 있어. 세 살이야. 한 번도 못 봤지?"

"한 번도."

"그러니까 봐야 한다니까. 걔는……"

방 안을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이던 톰 뷰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닉?"

"채권 일 해."

"어디서?"

내가 회사 이름을 댔다.

"들어본 적 없는데." 톰이 단정 짓듯 말했다.

그 말이 거슬렸다.

"듣게 될 거야." 나는 짧게 대꾸했다. "동부에 계속 있으면 듣게 돼."

"아, 동부엔 계속 있을 거야. 걱정 마." 톰은 데이지를 흘끗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뭔가 더 있나 살피는 눈치였다. "딴 데서 살면 내가 빌어먹을 멍청이지."

이때 베이커 양이 "그럼요!" 하고 어찌나 불쑥 말했는지 나는 흠칫했다. 내가 방에 들어온 뒤로 그 여자가 뱉은 첫마디였다. 본인도 나만큼이나 놀랐는지 하품을 하더니, 빠르고 능란한 동작 몇 번으로 몸을 일으켜 방 안에 우뚝 섰다.

"몸이 뻣뻣해요." 베이커 양이 투덜거렸다.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 저 소파에 누워 있었더니."

"나 보고 뭐라 하지 마." 데이지가 받아쳤다. "오후 내내 뉴욕 가자고 꼬드긴 게 난데."

"고맙지만 됐어요." 베이커 양은 방금 식료품실에서 들어온 칵테일 넉 잔에 대고 그렇게 말했다. "저는 완전히 훈련 중이라서요."

주인은 못 믿겠다는 눈으로 그 여자를 보았다.

"훈련 중이시라!" 톰은 술을 단숨에 털어 넣었다. 잔 바닥에 겨우 한 방울 남은 것을 털어 내듯이. "도대체 자네가 무슨 수로 일을 해내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베이커 양을 보면서 그 여자가 '해내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는 게 좋았다. 호리호리하고 가슴이 작은 여자였고 자세가 꼿꼿했는데, 어깨를 뒤로 젖혀 사관생도처럼 상체를 세움으로써 그 꼿꼿함을 더 두드러지게 했다. 창백하고 매력적이면서도 어딘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고, 볕에 시달린 잿빛 눈이 나를 마주 보았다. 정중하게 맞받는 호기심이 담긴 눈이었다. 그제야 나는 이 여자를, 아니면 이 여자의 사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에그에 사신다고요." 그 여자가 깔보는 투로 말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개츠비는 아시겠죠."

"개츠비?" 데이지가 캐물었다. "무슨 개츠비?"

내 이웃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저녁 준비가 되었다는 전갈이 오자, 톰 뷰캐넌은 긴장된 팔을 내 팔 밑에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더니, 체커 말을 다른 칸으로 옮기듯 나를 방에서 밀어냈다.

가느다랗고 나른한 몸에 손을 가볍게 허리에 얹고, 두 젊은 여자가 우리를 앞질러 장밋빛 현관으로 나갔는데, 노을을 향해 열린 그곳에는 잦아든 바람 속에서 초 네 자루가 식탁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초는 왜?" 데이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초를 툭툭 꺼버렸다. "2주만 있으면 일 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이야." 데이지는 우리 모두를 환하게 바라보았다. "다들 일 년 중 제일 긴 날을 기다리다가 놓쳐버리지 않아? 나는 늘 제일 긴 날을 기다리다가 놓쳐."

"뭐라도 계획을 세워야죠." 베이커 양이 하품을 하며 침대에 들어가듯 식탁 앞에 앉았다.

"그래." 데이지가 말했다. "뭘 계획하지?" 그러고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은 뭘 계획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데이지의 눈길이 겁먹은 표정으로 제 새끼손가락에 딱 멈췄다.

"이것 봐!" 데이지가 하소연했다. "다쳤어."

우리 모두 보았다. 손가락 마디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당신이 그랬어, 톰." 데이지가 나무라듯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건 알아. 그래도 당신이 그랬어. 이게 다 짐승 같은 남자랑 결혼한 값이지. 크고 우람하고 덩치만 산만 한……"

"난 그 '덩치'라는 말 질색이야." 톰이 뾰로통하게 대꾸했다. "농담이라도 싫어."

"덩치." 데이지가 기어이 되뇌었다.

이따금 데이지와 베이커 양은 동시에 말했다. 나서지 않으면서 실없이 주고받는 그 말은 결코 수다라고 할 것도 못 되었고, 두 사람의 흰 드레스나 아무런 욕망 없는 무심한 눈만큼이나 서늘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고 톰과 나를 받아들였으며, 즐겁게 해주려고도,

즐거워해주려고도 딱 예의를 차릴 만큼만 애썼다. 조금 있으면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보다 조금 더 있으면 이 저녁도 끝나서 아무렇지 않게 치워지리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서부와는 딴판이었다. 서부에서는 저녁이 끊임없이 어긋나는 기대 속에서, 아니면 그 순간 자체에 대한 순전한 초조함 속에서 한 대목에서 다음 대목으로 서둘러 떠밀려 끝을 향해 갔다.

"너랑 있으면 내가 야만인이 된 것 같아, 데이지." 코르크 냄새가 나지만 그런대로 인상적인 클라레 두 잔째를 마시며 내가 털어놓았다. "농작물 얘기 같은 건 좀 못 해?"

특별한 뜻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뜻밖의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문명이 산산조각 나고 있어." 톰이 사납게 끼어들었다. "난 세상일에 아주 지독한 비관론자가 됐다고. 고더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 제국의 발흥》 읽어봤어?"

"아니, 못 읽었는데." 그 어조에 적잖이 놀라며 내가 대답했다.

"훌륭한 책이야. 다들 읽어야 해. 요지는 이거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백인종이 아주 물속에 잠겨버린다는 거지. 전부 과학적인 얘기야. 다 입증됐다고."

"톰이 아주 심오해지셨어." 데이지가 생각 없는 서글픔이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긴 단어가 잔뜩 든 깊은 책을 읽으신대. 우리 그 단어가 뭐였더라……"

"이 책들은 다 과학적이라니까." 톰이 짜증스레 데이지를 흘겨보며 우겼다. "이 양반이 전부 계산해놨어. 지배 인종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저 다른 인종들이 세상을 좌우하게 된다고."

"우리가 눌러버려야지." 데이지가 이글거리는 해를 향해 사납게 윙크하며 속삭였다.

"캘리포니아에 사셔야겠네요……" 베이커 양이 말을 꺼냈지만 톰이 의자에서 육중하게 몸을 뒤척이며 말을 잘랐다.

"요지는 우리가 노르딕이라는 거야. 나도, 너도, 자네도, 그리고……" 아주 짧게 머뭇거린 뒤 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데이지도 끼워주었고, 데이지는 나에게 또 윙크를 했다. "그리고 문명을 이루는 건 다 우리가 만들어냈어. 아, 과학이니 예술이니 그런 것들 말이야. 알겠어?"

톰이 그렇게 몰두하는 데는 어딘가 애처로운 구석이 있었는데, 예전보다 한층 날이 선 그 자기만족이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곧이어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집사가 현관을 떠나자, 데이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안 비밀 하나 알려줄게." 데이지가 신이 나서 속삭였다. "집사 코 얘기야. 집사 코 얘기 듣고 싶지?"

"그거 들으려고 오늘 밤 온 거야."

"저 사람이 원래부터 집사는 아니었거든. 뉴욕에서 200명분 은식기를 갖춘 어느 집의 은 닦는 사람이었어. 아침부터 밤까지 은을 닦아야 했는데, 결국 그게 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야……"

"사태가 점점 나빠졌죠." 베이커 양이 거들었다.

"그래. 사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그 자리를 그만둬야 했어."

한순간 마지막 햇살이 낭만적인 애정을 담고 데이지의 상기된 얼굴에 내려앉았고, 그 목소리는 내가 숨죽여 듣도록 나를 앞으로 끌어당겼는데, 이윽고 빛이 스러졌다. 빛줄기들은 아쉬움을 못 이겨 머뭇거리며 하나씩 그 얼굴을 떠났다. 해 질 녘 정겨운 거리를 떠나는 아이들처럼.

집사가 돌아와 톰의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자 톰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의자를 밀치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톰이 자리를 비우자

마음속에서 뭔가가 되살아난 듯 데이지는 다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가 환하게 노래하듯 울렸다.

"우리 식탁에 네가 앉아 있으니 참 좋다, 닉. 너를 보면 꼭 장미 같아. 완전히 장미야. 안 그래?" 데이지는 확인을 받으려고 베이커 양을 돌아보았다. "완전히 장미 같지 않아?"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장미와 손톱만큼도 닮은 데가 없다. 데이지는 그저 즉흥으로 지껄였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흔드는 온기가 흘러나왔고, 마치 그 숨 가쁘고 설레는 말 한마디 속에 심장이 숨어서 이쪽으로 건너오려 애쓰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냅킨을 식탁에 던지고는 실례한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베이커 양과 나는 아무 뜻도 담지 않으려 애쓴 짧은 눈길을 주고받았다. 내가 막 입을 열려는데 그 여자가 화들짝 몸을 세우더니 경고하듯 "쉿!" 했다. 건너편 방에서 낮게 억눌린, 격정 어린 웅얼거림이 들려오자 베이커 양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몸을 기울여 들으려 했다. 그 웅얼거림은 알아들을 만해지려다 말고 잦아들었다가, 흥분해서 치솟았다가, 이내 뚝 그쳤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개츠비 씨가 제 이웃인데요……" 내가 말을 꺼냈다.

"조용히요. 무슨 일인지 듣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물었다.

"그럼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베이커 양이 정말로 놀라서 말했다.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기……" 그 여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톰한테 뉴욕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멍하니 되뇌었다.

베이커 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하지 않을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내가 그 말뜻을 채 새기기도 전에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가죽 부츠가 자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어!" 데이지가 팽팽한 명랑함으로 외쳤다.

데이지는 자리에 앉아 베이커 양을, 이어 나를 살피듯 흘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잠깐 밖을 봤는데 바깥이 아주 낭만적이야. 잔디밭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래도 큐너드나 화이트스타 라인을 타고 건너온 나이팅게일 같아.[3] 저렇게 노래를 하는 걸 보면……" 목소리가 노래하듯 올라갔다. "낭만적이지, 톰?"

"아주 낭만적이지." 그러고는 침울하게 나를 보며 말했다. "저녁 먹고 나서 아직 밝으면 마구간에 데려가고 싶은데."

안에서 전화벨이 깜짝 놀라게 울렸다.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히 고개를 젓자 마구간 이야기는, 실은 모든 이야기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식탁에서 보낸 그 마지막 5분의 부서진 조각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초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것,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똑바로 쳐다보고 싶으면서 동시에 어떤 눈길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다만 어지간히 단단한 냉소를 익힌 듯한 베이커 양조차, 다섯 번째 손님이나 다름없던 그 전화벨의 날카로운 쇳소리를 머릿속에서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했으리라 싶다. 어떤 기질의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흥미롭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내 본능은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말 이야기는 두말할 것 없이 다시 나오지 않았다. 톰과 베이커 양은 몇 발짝쯤 되는 땅거미를 사이에 두고 서재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갔는데, 손에 잡힐 것처럼 뚜렷한 시신 곁에서 밤을 새우러 가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관심 있는 척하면서도 귀는 좀 어두운 척하며 이어진 베란다를 지나 앞쪽 현관까지 데이지를 따라갔다. 짙은 어스름 속에서 우리는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제 얼굴의 사랑스러운 윤곽을 더듬어보기라도 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눈길은 서서히 우단 같은 땅거미 속으로 옮겨갔다. 격한 감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보여서, 나는 마음을 가라앉혀줄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딸 이야기였다.

"우리 서로 잘 모르지, 닉." 데이지가 불쑥 말했다. "사촌인데도 말이야. 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

"전쟁에서 못 돌아왔을 때야."

"그렇지." 데이지가 머뭇거렸다. "저기, 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 닉. 그래서 뭐든 꽤 냉소적이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다렸지만 데이지는 더 말하지 않았고, 잠시 뒤 나는 다소 맥없이 딸 이야기로 돌아갔다.

"이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겠네."

"응, 그럼." 데이지는 넋 놓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있잖아, 닉.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게. 들어볼래?"

"듣고 싶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됐을 때였어. 톰은 어디 있었는지 하느님만 아시지. 나는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간호사한테 대뜸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어. 딸이라기에 고개를 돌리고 울었지. '그래.' 내가 말했어. '딸이라서 다행이야. 그리고 바보였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여자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은 건 그거니까. 예쁘고 조그만 바보.'

"그러니까 난 어차피 다 끔찍하다고 생각해." 데이지는 확신에 찬 투로 말을 이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제일 앞서간다는 사람들은 다. 그리고 난 알아. 안 가본 데 없고 안 본 것 없고 안 해본 것 없거든." 눈길이 도전하듯 주위를 훑었다. 어딘가 톰을 닮은 눈길이었다. 그러고는 짜릿한 경멸을 담아 웃었다. "세련됐지. 맙소사, 나 정말 세련됐어!"

그 목소리가 뚝 끊겨 더 이상 내 주의를, 내 믿음을 붙들지 않게 된 순간, 나는 방금 그 말의 근본적인 불성실함을 느꼈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마치 이 저녁 전체가 나에게서 한몫의 감정을 받아내려는 어떤 속임수였던 것처럼. 나는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데이지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완연한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나를 보았는데, 자기와 톰이 속한 어지간히 고상한 비밀 결사의 회원증을 방금 내보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안에서는 진홍빛 방이 불빛으로 활짝 피어 있었다. 톰과 베이커 양은 긴 소파의 양 끝에 앉아 있었고, 베이커 양이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소리 내어 읽어주고 있었다. 억양 없이 웅얼거리는 낱말들이 서로 이어 붙어 사람을 달래는 가락이 되었다. 등불은 톰의 장화 위에서는 밝게, 베이커 양의 가을 낙엽 같은 노란 머리 위에서는 흐릿하게 빛났고, 가느다란 팔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 위를 따라 반짝였다.

우리가 들어서자 베이커 양이 손을 들어 우리를 잠시 잠자코 있게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베이커 양은 잡지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다.

무릎을 안절부절 움직이며 몸이 제 존재를 주장했고, 베이커 양은 일어섰다.

"열 시네." 천장에서 시각을 찾아낸 듯한 말투였다. "착한 아이는 잘 시간."

"조던이 내일 시합에 나가." 데이지가 설명했다. "웨스트체스터에서."

"아, 조던 베이커 씨였군요."

이제야 그 얼굴이 낯익었던 까닭을 알았는데, 애슈빌과 핫스프링스와 팜비치의 스포츠계를 담은 수많은 사진 화보에서 그 기분 좋게 깔보는 표정이 나를 내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비난조의 언짢은 이야기였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안녕히 주무세요." 베이커 양이 나직이 말했다. "여덟 시에 깨워줘."

"일어나기만 한다면."

"일어날게. 안녕히 가세요, 캐러웨이 씨. 또 봬요."

"그럼, 또 보고말고." 데이지가 못을 박았다. "실은 내가 중매를 좀 서볼까 해. 자주 놀러 와, 닉. 내가 어떻게든 둘을 엮어줄게. 왜 있잖아, 실수인 척 이불장에 둘이 가둬놓는다든가, 배에 태워서 바다로 밀어버린다든가, 뭐 그런 거……"

"안녕히 주무세요." 베이커 양이 계단에서 외쳤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괜찮은 애야." 잠시 뒤 톰이 말했다. "저렇게 전국을 쏘다니게 두면 안 되는데."

"누가 못하게 하는데?" 데이지가 차갑게 물었다.

"집안에서."

"집안이라고 해봐야 천 살쯤 먹은 고모 하나야. 게다가 닉이 돌봐줄 거잖아, 그렇지, 닉? 저 애 이번 여름에 주말마다 여기 와서 지낼 거야. 가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

데이지와 톰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뉴욕 사람이야?" 내가 얼른 물었다.

"루이빌. 우리 새하얀 소녀 시절을 거기서 같이 보냈지. 우리 아름답고 새하얀……"

"베란다에서 닉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 좀 나눴나?" 톰이 불쑥 캐물었다.

"내가?" 데이지가 나를 보았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르딕 인종 얘기를 한 것 같아. 응, 분명히 그랬어. 어쩌다 그 얘기가 슬금슬금 나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닉, 들리는 말을 다 믿진 마." 톰이 나에게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 가볍게 대꾸했고, 몇 분 뒤 집에 가려고 일어섰다. 두 사람은 문까지 나를 배웅하고는 환한 네모난 불빛 속에 나란히 섰고, 내가 시동을 걸자 데이지가 다짜고짜 외쳤다. "잠깐!"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는데 중요한 거야. 너 서부에서 어떤 여자애랑 약혼했다던데."

"맞아." 톰이 상냥하게 거들었다. "약혼했다고 들었어."

"헛소문이야. 난 너무 가난해."

"그래도 우린 들었어." 데이지가 우겼다. 다시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모습이 나를 놀라게 했다. "세 사람한테서 들었으니까 사실이겠지."

물론 나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약혼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었고, 소문이 결혼 예고를 대신 내주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동부로 온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를 안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소문에 떠밀려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고, 손 닿지 않는 부자처럼만 보이던 사람들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차를

몰고 나오면서 나는 혼란스러웠고 조금 역겨웠다. 내가 보기에 데이지는 아이를 안고 당장 그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뜻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다. 톰으로 말하자면, 그가 '뉴욕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책 한 권 때문에 우울해졌다는 사실에 비하면 오히려 덜 놀라웠다. 톰은 무언가에 떠밀려 케케묵은 사상의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제 튼튼한 몸뚱이 하나만 믿던 그 오만이 이제는 명령하는 데 익숙한 그의 마음을 더는 채워 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길가 술집 지붕 위에도, 새 빨간 주유기가 불빛 웅덩이 속에 나앉은 길가 정비소 앞에도 이미 여름이 깊어 있었다. 웨스트에그의 내 집에 이르러서는 차를 헛간에 넣고, 마당에 버려진 잔디 롤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요란하고 환한 밤이 남았다. 나무에서는 날갯짓 소리가 났고, 대지가 풀무를 활짝 열어 개구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동안 오르간 소리 같은 것이 끊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로질러 아른거렸고, 그것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이웃집 저택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은빛 후춧가루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유로운 몸짓과 잔디를 딛고 선 저 안정된 자세로 보아, 우리 동네 하늘 가운데 어디까지가 제 몫인지 가늠하러 개츠비 씨 본인이 나온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불러보기로 했다. 저녁 자리에서 베이커 양이 그의 이름을 꺼냈으니 인사를 트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할 터였다. 그러나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가 혼자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기색을 문득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기묘한 몸짓으로 어두운 물을 향해 두 팔을 뻗었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나는 그가 떨고 있었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바다 쪽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다만 아주 작고 아득한 초록 불빛(the green light) 하나가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 선착장 끝일지도 몰랐다. 개츠비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고, 나는 다시 그 어수선한 어둠 속에 혼자였다.

---

1. 뉴헤이븐(New Haven)은 예일 대학교가 있는 도시. 예일 출신들은 학교 이름 대신 도시 이름으로 모교를 가리켰다.

2. 마이더스는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한 프리기아의 왕, 모건(J. P. Morgan)은 당대 미국 금융계의 거물, 마이케나스는 고대 로마의 부호이자 문예 후원자.

3. 큐너드(Cunard)와 화이트스타(White Star)는 당시 대서양을 오가던 대표적인 여객선 회사. 타이태닉호가 화이트스타 소속이었다. 미국에 없는 나이팅게일이 유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농담이다.

2장

웨스트에그와 뉴욕 사이 중간쯤에서 자동차 도로는 허둥지둥 철길 곁으로 바짝 붙어 사분의 일 마일가량 나란히 달렸는데, 어느 황량한 땅 한 자락을 꺼려 슬금슬금 비켜 가려는 듯했다. 그곳은 재의 계곡(valley of ashes)이었다. 재가 밀처럼 자라 이랑이 되고 언덕이 되고 괴상한 정원이 되는 기이한 농장이었고, 재가 집과 굴뚝과 피어오르는 연기의 모양을 하다가 마침내는 초월적인 안간힘을 다해 잿빛 인간의 모양까지 갖추는 곳이었다. 잿빛 인간들은 가루가 풀풀 날리는 공기 속을 흐릿하게, 벌써부터 바스러져 가며 움직였다. 이따금 잿빛 화차들이 줄지어 보이지 않는 선로를 기어오다가 섬뜩하게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그러면 곧바로 잿빛 인간들이 납빛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먼지구름을 일으켰고, 그 구름에 가려 그들이 하는 알 수 없는 일은 보는 이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잿빛 땅 위로, 그리고 그 위를 끝없이 떠돌며 경련하듯 일어나는 음울한 먼지 위로, 잠시 지나면 T. 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 시야에 들어왔다. T. 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은 파랗고 거대했다. 망막 하나의 높이가 1야드였다. 그 눈은 얼굴에서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코 위에 걸친 커다란 노란 안경 너머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보아하니 어느 익살맞은 괴짜 안과 의사가 퀸즈구에서 병원 손님을 불려 보려고 거기 세워 두고는, 저 자신은 눈을 감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거나 그걸 잊어버린 채 이사를 가 버린 모양이었다. 그래도 그 눈은, 페인트칠

한 번 새로 받지 못하고 볕과 비를 맞으며 보낸 숱한 날들에 조금 흐려지기는 했어도, 그 엄숙한 쓰레기 하치장을 굽어보며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재의 계곡은 한쪽 끝이 조그맣고 더러운 강으로 막혀 있었는데, 거룻배가 지나가도록 도개교를 들어 올리면 발이 묶인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 음산한 풍경을 길게는 30분 동안이나 실컷 바라볼 수 있었다. 기차는 거기서 늘 적어도 1분은 섰고, 내가 톰 뷰캐넌의 여자를 처음 만난 것도 그래서였다.

톰에게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건, 톰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라면 어디서나 누군가 기어이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톰이 그 여자를 데리고 손님이 북적이는 카페에 나타나서는, 여자를 테이블에 혼자 앉혀 두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아는 얼굴만 보이면 붙들고 잡담을 늘어놓는 게 못마땅했다. 나는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었어도 인사를 나눌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고 말았다. 어느 오후 톰과 기차를 타고 뉴욕에 가던 길이었는데, 기차가 잿더미 곁에 멈추자 톰이 벌떡 일어서더니 내 팔꿈치를 붙잡고 말 그대로 나를 객차 밖으로 끌어냈다.

"내리자." 톰이 우겼다. "내 여자 좀 소개해 줄게."

톰은 점심 자리에서 술을 꽤 퍼마신 게 아닌가 싶다. 나를 기어이 끌고 가겠다는 고집이 폭력에 가까울 지경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내게 그보다 나은 할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게 톰의 거만한 전제였다.

나는 톰을 따라 흰 칠을 한 나지막한 철길 울타리를 넘었고, 우리는 에클버그 박사의 끈질긴 눈길을 받으며 길을 따라 100야드쯤 되돌아 걸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황무지 가장자리에 들어앉은 조그만 노란 벽돌 건물 한 채뿐이었는데, 황무지에 딸린 읍내 중심가를 한 덩어리로 뭉쳐 놓은 것 같은 그 건물은 둘레에 맞닿은 데가 정말이지 한

군데도 없었다. 그 안에 든 가게 세 칸 가운데 하나는 세를 놓는다며 비어 있었고, 또 하나는 재가 깔린 길을 밟고 들어가는 밤샘 식당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수리, 조지 B. 윌슨, 자동차 매매'라고 써 붙인 정비소였고, 나는 톰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장사가 시원찮은 티가 나고 휑해서, 보이는 차라고는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먼지를 뒤집어쓴 포드 고물 한 대뿐이었다. 이 허깨비 같은 정비소는 눈가림이고 위층 어딘가에 호사스럽고 낭만적인 거처가 숨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막 들던 참에, 주인이 걸레 조각에 손을 닦으며 몸소 사무실 문간에 나타났다. 금발에 기운 없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핏기가 없었고 어렴풋이 잘생긴 얼굴이었다. 우리를 보자 연한 파란 눈에 축축한 희망의 빛이 반짝 솟았다.

"어이, 윌슨, 이 친구." 톰이 그의 어깨를 호쾌하게 철썩 치며 말했다. "장사는 좀 되나?"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윌슨이 영 미덥지 않게 대답했다. "그 차는 언제 저한테 파실 겁니까?"

"다음 주. 지금 우리 기사가 손보고 있어."

"그 양반, 손이 꽤 굼뜬가 봅니다?"

"안 굼떠." 톰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딴 데다 파는 게 낫겠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윌슨이 얼른 해명했다. "제 말은 그저……"

윌슨의 목소리는 흐지부지 잦아들었고, 톰은 짜증스럽게 정비소 안을 휘둘러보았다. 그때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좀 두툼한 여자의 몸집이 사무실 문으로 들어오던 빛을 가로막았다. 삼십 대 중반에 살집이 살짝 있는 편이었지만, 어떤 여자들이 그렇듯 그 살집을 관능적으로 부릴 줄 아는 여자였다. 물방울무늬가 박힌 짙은 남색 비단 크레이프 원피스 위의 얼굴에는 아름답다 할 만한 구석도 반짝이는 데도

없었지만,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생기가 온몸에서 풍겼다. 몸속 신경이 쉬지 않고 불씨처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천천히 미소 짓더니 남편을 그대로 뚫고 지나 걸어왔다. 남편이 유령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톰의 눈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며 악수를 했다. 이어 입술을 축이고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부드럽고도 거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의자 좀 갖다 놓지 그래. 사람들 앉게."

"아, 그래야지." 윌슨은 허둥지둥 맞장구를 치고 조그만 사무실 쪽으로 가더니, 금세 벽의 시멘트 빛깔 속으로 섞여 들어 버렸다. 하얀 잿가루가 근처의 모든 것을 뽀얗게 덮고 있었는데, 그의 짙은 양복과 옅은 머리칼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내만은 예외였다. 아내는 톰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만나자." 톰이 여자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다음 기차 타."

"그래요."

"아래층 신문 가판대 옆에서 기다릴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톰에게서 물러났다. 바로 그때 조지 윌슨이 의자 두 개를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자를 기다렸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며칠 앞둔 때였는데, 온통 잿빛인 깡마른 이탈리아 아이 하나가 철로를 따라 폭음탄을 한 줄로 늘어놓고 있었다.

"지독한 데지?" 톰이 에클버그 박사와 찌푸린 얼굴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끔찍하네."

"그 여자한테는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약이야."

"남편은 반대 안 해?"

"윌슨? 그 친구는 제 마누라가 뉴욕 사는 동생 보러 가는 줄 알아. 어찌나 멍청한지 자기가 살아 있는 줄도 몰라."

그렇게 톰 뷰캐넌과 그의 여자와 나는 함께 뉴욕으로 올라갔다. 아니, 윌슨 부인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칸에 앉았으니 꼭 함께라고는 할 수 없었다. 혹시 같은 기차에 타고 있을지 모를 이스트에그 사람들의 고상한 비위를, 톰도 그 정도는 맞춰 준 셈이었다.

여자는 무늬가 찍힌 갈색 모슬린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뉴욕에 닿아 톰이 부축해 승강장에 내려 줄 때 보니 그 원피스가 제법 펑퍼짐한 엉덩이 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여자는 신문 가판대에서 《타운 태틀》[1] 한 부와 영화 잡지 한 권을 샀고, 역 안 약국[2]에서 콜드크림과 조그만 향수 한 병을 샀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소리가 엄숙하게 울리는 택시 승차장이 나왔는데, 여자는 거기서 택시 네 대를 그냥 보내고 나서야 연보랏빛 차체에 잿빛 시트를 댄 새 차 한 대를 골랐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육중한 역 건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여자가 곧바로 창에서 홱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앞으로 숙여 운전석 쪽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저 강아지 하나 사고 싶어요." 여자가 간절하게 말했다. "아파트에 한 마리 두고 싶어요. 있으면 좋잖아요. 개 말이에요."

택시는 어처구니없게도 존 D. 록펠러를 빼닮은 백발노인 앞으로 후진해 갔다. 노인이 목에 걸어 늘어뜨린 바구니 안에는 무슨 종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아지 열두어 마리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무슨 종이에요?" 노인이 택시 창가로 다가오자 윌슨 부인이 들떠서 물었다.

"온갖 종이 다 있습지요. 어떤 종을 찾으십니까, 부인?"

"경찰견[3] 같은 걸로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그런 종은 없겠죠?"

노인은 미심쩍은 얼굴로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더니, 손을 푹 집어넣어 버둥거리는 한 마리를 목덜미째 끌어올렸다.

"그건 경찰견이 아니잖아." 톰이 말했다.

"예, 딱 경찰견이라고는 못 하지요." 노인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보다는 에어데일 테리어 쪽입니다." 노인은 갈색 걸레 같은 강아지 등을 손바닥으로 쓱 쓸어 보였다. "이 털 좀 보십시오. 대단한 털이지요. 감기 걸려서 주인 속 썩일 일은 절대 없는 놈입니다."

"귀여워요." 윌슨 부인이 신이 나서 말했다. "얼마예요?"

"이 개요?" 노인은 감탄하는 눈길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이 개라면 10달러는 주셔야겠습니다."

그 에어데일은(발이 깜짝 놀랄 만큼 하얬지만 어딘가에 에어데일의 피가 섞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주인이 바뀌어 윌슨 부인의 무릎에 자리를 잡았다. 윌슨 부인은 비바람에도 끄떡없다는 그 털을 넋이 나간 얼굴로 쓰다듬었다.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윌슨 부인이 얌전을 빼며 물었다.

"이 개요? 이 개는 사내아이입지요."

"암캐야." 톰이 딱 잘라 말했다. "자, 돈 받아. 이걸로 가서 개나 열 마리 더 사."

우리는 여름 일요일 오후의 따뜻하고 포근한, 거의 목가적이기까지 한 5번가로 차를 몰았다. 흰 양 떼가 우르르 모퉁이를 돌아 나왔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잠깐." 내가 말했다. "난 여기서 내려야겠어."

"안 되지." 톰이 얼른 끼어들었다. "아파트에 같이 안 올라가면 머틀이 서운해할 거야. 그렇지, 머틀?"

"같이 가요." 그 여자가 졸랐다. "동생 캐서린한테 전화할게요. 볼 줄 아는 사람들 말로는 굉장한 미인이래요."

"글쎄요,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택시는 계속 달려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다시 웨스트사이드의 100번대 거리 쪽으로 돌아갔고, 158번가에 이르러 길고 하얀 케이크처럼 늘어선 아파트 건물들 가운데 한 조각 앞에 멈췄다. 윌슨 부인은 궁으로 돌아온 여왕처럼 위엄 어린 눈길로 동네를 한 번 휘둘러보고는, 강아지와 그 밖에 산 물건들을 챙겨 들고 거만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매키 씨네 부부도 올라오라고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윌슨 부인이 선언했다. "그리고 물론 동생한테도 전화 넣어야 되고요."

아파트는 꼭대기 층이었고, 작은 거실과 작은 식당과 작은 침실, 그리고 욕실이 전부였다. 거실에는 방에 비해 턱없이 큰, 태피스트리 천을 씌운 가구 한 벌이 문간까지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베르사유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귀부인들의 장면에 줄곧 발이 걸려 비틀거리게 되었다. 그림이라고는 지나치게 확대한 사진 한 장뿐이었는데, 흐릿한 바위 위에 암탉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암탉은 보닛 모자로 바뀌었고, 뚱뚱한 노부인의 얼굴이 방 안을 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철 지난 《타운 태틀》 몇 권이 《베드로라 불린 시몬》[4] 한 권,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자잘한 추문 잡지 몇 권과 함께 놓여 있었다. 윌슨 부인은 무엇보다 강아지부터 챙겼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마지못해 짚을 채운 상자와 우유를 가지러 가더니 시키지도 않은 크고 딱딱한 개 비스킷 한 통까지 얹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오후 내내 우유 접시에 잠겨

심드렁하게 풀어져 갔다. 그사이 톰은 잠가 둔 서랍장 문을 열고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나는 평생 딱 두 번 취해 보았는데, 그 두 번째가 그날 오후였다. 그래서 여덟 시가 넘도록 아파트 안에 명랑한 햇살이 가득했는데도, 그날 일어난 일은 내 기억 속에서 하나같이 뿌옇고 흐릿한 막에 덮여 있다. 윌슨 부인은 톰의 무릎에 앉아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다 담배가 떨어지자 나는 모퉁이 약국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두 사람 다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눈치껏 거실에 앉아 《 베드로라 불린 시몬 》 을 한 장 내리 읽었는데, 글이 워낙 형편없었거나 위스키 때문에 모든 게 뒤틀려 보였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톰과 머틀이(첫 잔을 비운 뒤로 윌슨 부인과 나는 서로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막 다시 나타났을 때, 손님들이 아파트 문간에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동생 캐서린은 서른 살쯤 된, 날씬하고 세상 물정에 훤해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붉은 단발머리를 끈적하게 딱 붙여 굳혔고 얼굴은 분을 발라 우윳빛으로 하얬다. 눈썹은 뽑아 버린 다음 한결 멋 부린 각도로 다시 그려 넣었는데,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자연의 노력 때문에 얼굴 전체가 어딘가 번진 듯 흐릿해 보였다. 캐서린이 움직일 때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도자기 팔찌가 두 팔을 따라 오르내리며 서로 부딪쳐서 딸그락 소리가 쉴 새 없이 났다. 캐서린은 제집에 들어오듯 바삐 들어와서는 가구를 제 것처럼 둘러보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여기 사는가 싶었다. 그런데 물어보니 캐서린은 과하다 싶게 웃음을 터뜨리고 내 질문을 소리 내어 되풀이하더니, 여자 친구 하나와 호텔에서 산다고 했다.

매키 씨는 아래층에 사는 창백하고 여성스러운 남자였다. 광대뼈에 비누 거품이 하얗게 한 점 묻은 걸 보니 막 면도를 하고 온 모양이었고, 방 안의 누구에게나 더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매키 씨는 자기가 "예술 바닥"에서 일한다고 일러 주었는데, 나중에 짐작해 보니 사진사였고, 벽에 심령체처럼 부옇게 떠 있던 윌슨 부인 어머니의 흐릿한 확대 사진도 그의 작품이었다. 그의 아내는 새된 목소리에 나른하고, 반반하게 생겼으며, 끔찍했다. 매키 부인은 결혼한 뒤로 남편이 자기 사진을 127번이나 찍었다고 나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윌슨 부인은 조금 전에 옷을 갈아입어서 이제는 크림색 시폰으로 지은 공들인 애프터눈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방 안을 휩쓸고 다닐 때마다 그 드레스가 쉴 새 없이 사락거렸다. 옷이 바뀌자 사람됨까지 바뀌어서, 정비소에서 그토록 눈에 띄던 강렬한 생기는 위세가 등등한 거만함으로 변해 있었다. 웃음도, 몸짓도, 단언하는 말도 시시각각 더 요란하게 꾸며졌다. 여자가 부풀어 오를수록 둘레의 방은 쪼그라들었고, 마침내 여자는 담배 연기 자욱한 공기 속에서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축 위에 올라앉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

"얘." 윌슨 부인이 새침하게 꾸민 목소리를 한껏 높여 동생에게 말했다. "이런 작자들은 대개 번번이 바가지를 씌운다니까.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야. 지난주에 발 좀 봐 달라고 여자를 하나 여기로 불렀는데, 청구서를 받아 보니 누가 보면 내 맹장염이라도 떼어 낸 줄 알겠더라."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매키 부인이 물었다.

"에버하트 부인이요. 남의 집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을 봐 주는 사람이에요."

"옷이 참 예쁘네요." 매키 부인이 한마디 했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윌슨 부인은 경멸하듯 한쪽 눈썹을 치켜올려 그 칭찬을 물리쳤다.

"그냥 막 입는 헌 옷인걸요." 윌슨 부인이 말했다. "남 보기에 어떻든 상관없을 때나 가끔 휙 걸쳐요."

"그래도 정말 근사하게 어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키 부인이 굽히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체스터가 딱 그 자세로 담아내기만 하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말없이 윌슨 부인을 바라보았고, 윌슨 부인은 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기고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마주 보았다. 매키 씨는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한 채 그 여자를 골똘히 뜯어보더니, 얼굴 앞에서 한 손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였다.

"조명을 바꿔야겠군요." 잠시 뒤 매키 씨가 말했다. "얼굴의 양감을 좀 살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뒷머리까지 전부 잡아내 보겠습니다."

"조명을 바꾸다니, 어림도 없어." 매키 부인이 소리쳤다. "내 생각엔……"

남편이 "쉿!" 하자 우리는 모두 다시 그 피사체를 바라보았는데, 그때 톰 뷰캐넌이 들으란 듯이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매키네 두 사람도 한잔씩 하지." 톰이 말했다. "머틀, 다들 잠들기 전에 얼음이랑 탄산수 좀 더 가져와."

"그 애한테 얼음 가져오라고 했어요." 머틀은 아랫것들의 게으름에 절망했다는 듯 눈썹을 치켜올렸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란! 줄곧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닦달해야 한다니까요."

머틀은 나를 보고 까닭 없이 웃었다. 그러고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강아지에게 가서 황홀해하며 입을 맞추고는 부엌으로 휩쓸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리사 열두어 명이 분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기세였다.

"롱아일랜드에서 꽤 괜찮은 작품을 몇 점 찍었지요." 매키 씨가 힘주어 말했다.

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중 두 점은 아래층에 액자로 걸어 두었어요."

"두 점이라니, 뭐가?" 톰이 따져 물었다.

"습작 두 점 말입니다. 하나는 '몬토크 곶: 갈매기'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몬토크 곶: 바다'라고 부르지요."

동생 캐서린이 소파에 앉은 내 곁에 와서 앉았다.

"그쪽도 롱아일랜드에 사세요?" 캐서린이 물었다.

"웨스트에그에 살아요."

"어머, 정말요? 저 한 달쯤 전에 거기 파티에 갔었어요. 개츠비라는 남자네 집이었는데. 그 사람 아세요?"

"그 사람 바로 옆집에 살아요."

"글쎄, 다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빌헬름 황제[5]의 조카인가 사촌이래요. 돈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다간 큰일이에요."

내 이웃에 관한 이 흥미진진한 정보는, 매키 부인이 느닷없이 캐서린을 가리키는 바람에 끊기고 말았다.

"체스터, 저 아가씨라면 당신이 뭔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키 부인이 불쑥 소리쳤지만, 매키 씨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톰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연줄만 닿는다면 롱아일랜드 쪽 작업을 더 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첫발을 디딜 기회를 달라는 것뿐입니다."

"머틀한테 부탁해 봐." 윌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톰이 짧게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소개장을 써 줄 거야. 그렇지, 머틀?"

"뭘 해 줘요?" 머틀이 깜짝 놀라 물었다.

"매키한테 네 남편 앞으로 소개장을 써 주라고. 그래야 매키가 네 남편을 모델로 습작을 몇 점 찍을 거 아냐." 톰은 뭔가를 지어내느라 잠시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다. "'주유기 앞의 조지 B. 윌슨'이라든가, 뭐 그런 거."

캐서린이 내게 바싹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둘 다 자기랑 결혼한 사람을 못 견뎌 해요."

"그래요?"

"못 견뎌 한다니까요." 캐서린은 머틀을 보고, 이어서 톰을 보았다. "제 말은요, 그렇게 못 견디겠으면 뭐 하러 계속 같이 사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이혼하고 둘이 결혼해 버리겠어요."

"머틀도 윌슨 씨를 싫어해요?"

대답은 뜻밖이었다. 내 말을 엿들은 머틀이 대답했는데, 사납고 상스러운 말이었다.

"그것 봐요!"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러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실은 톰의 아내 때문에 둘이 못 합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톨릭 신자라서요. 가톨릭은 이혼을 안 하잖아요."

데이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그토록 공들인 거짓말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

"둘이 결혼하게 되면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 가서 살 거래요."

"남의 눈을 피하려면 유럽으로 가는 편이 낫겠는데요."

"어머, 유럽 좋아하세요?" 캐서린이 뜻밖에도 반색하며 외쳤다. "저 몬테카를로에서 막 돌아왔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작년에요. 다른 여자애 하나랑 같이 갔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아뇨, 몬테카를로만 딱 갔다 왔어요. 마르세유를 거쳐서요. 떠날 땐 1,200달러가 넘게 있었는데, 카지노 특실에서 이틀 만에 몽땅 털렸지 뭐예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아이고, 그 동네라면 지긋지긋해요!"

늦은 오후의 하늘이 지중해의 푸른 꿀처럼 잠시 창 안에 피어났다. 그러다 매키 부인의 새된 목소리가 나를 방 안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나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매키 부인이 기운차게 선언했다. "몇 년이나 나를 쫓아다니던 쪼그만 유대 놈하고 결혼할 뻔했지 뭐예요. 그 남자가 나보다 한참 아래라는 건 나도 알았어요. 다들 나한테 입이 닳도록 그랬거든요. '루실, 그 남자는 너한테 한참 못 미쳐!' 그래도 체스터를 못 만났으면 틀림없이 그 남자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들어 봐요." 머틀 윌슨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적어도 부인은 그 남자하고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야 안 했죠."

"그런데 나는 결혼했거든요, 그 남자랑." 머틀이 알쏭달쏭하게 말했다. "그게 부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럼 왜 했어, 언니?" 캐서린이 따지듯 물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

머틀은 곰곰이 생각했다.

"신사인 줄 알고 결혼했지." 마침내 머틀이 말했다. "가문이니 법도니 하는 걸 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구두를 핥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더라."

"한동안은 그 사람한테 푹 미쳐 있었잖아." 캐서린이 말했다.

"미쳐 있었다고!" 머틀이 어이가 없다는 듯 외쳤다. "내가 그 인간한테 미쳐 있었다고 누가 그래? 저기 저 남자한테 미쳐 본 적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인간한테도 미쳐 본 적 없어."

머틀이 느닷없이 나를 가리키자 다들 나를 탓하는 눈으로 쳐다보았고, 나는 애정 따위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 주려고 애썼다.

"내가 미쳤던 건 그 인간이랑 결혼할 때, 딱 그때 한 번뿐이야. 하자마자 실수한 줄 알았어. 그 인간이 결혼식 올린다고 남의 제일 좋은 양복을 빌려 입고는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하루는 그 인간이 없을 때 양복 주인이 옷을 찾으러 왔더라고. '어머, 그게 댁의 양복이에요?' 내가 그랬지. '나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도 양복을 내주고는 드러누워서 오후 내내 대성통곡을 했지 뭐야."

"언니는 정말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캐서린이 다시 나에게 말했다. "그 정비소 위층에서 11년째 살고 있다니까요. 게다가 언니한테는 톰이 난생처음 생긴 애인이에요."

위스키 병은(벌써 두 번째 병이었다) 이제 모두가 쉴 새 없이 찾는 물건이 되었는데, 캐서린만은 예외여서 "아무것도 안 마셔도 똑같이 기분이 좋다"고 했다. 톰은 관리인을 불러 이름난 샌드위치를 사 오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녁 한 끼가 너끈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부드러운 어스름 속을 걸어 동쪽 공원 쪽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누군가의 사납고 요란한 말다툼에 휘말렸고, 그 말다툼이 밧줄처럼 나를 의자로 도로

끌어당겼다. 그래도 도시 저 높이 한 줄로 늘어선 우리의 노란 창들은, 어두워 가는 거리에서 무심코 올려다보는 사람에게 인간사의 은밀함을 제 몫만큼은 더해 주었을 것이다. 고개를 들고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나는 보았다. 나는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었고, 끝없이 다채로운 삶에 매혹되는 동시에 진저리를 쳤다.

머틀이 의자를 내 쪽으로 바싹 끌어당기더니, 느닷없이 따뜻한 입김에 실어 톰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내게 쏟아부었다.

"기차에 보면 늘 맨 마지막까지 남는, 서로 마주 보는 작은 자리 두 개 있잖아요, 거기서였어요. 동생 보러 뉴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참이었죠. 그 사람은 야회복에 에나멜 구두 차림이라 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붙은 광고를 보는 척해야 했죠. 역에 들어설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섰는데 하얀 셔츠 앞섶이 내 팔에 닿길래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더라고요. 어찌나 흥분했던지 그 사람이랑 택시에 타면서도 그게 지하철이 아니라는 걸 모르다시피 했다니까요. 머릿속에선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자꾸자꾸 맴돌았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

머틀이 매키 부인 쪽으로 돌아앉자, 방 안이 머틀의 꾸며 낸 웃음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어머, 부인." 머틀이 소리쳤다. "이 드레스, 내가 다 입고 나면 부인한테 줄게요. 내일 새로 하나 사야 하거든요. 사야 할 걸 전부 목록으로 적어 둘 거예요. 마사지 받고, 머리 웨이브 하고, 개 목걸이, 스프링을 누르면 열리는 그 귀여운 조그만 재떨이, 그리고 엄마 산소에 놓을, 검은 비단 리본을 달아서 여름 내내 가는 화환도요. 할 일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게 목록을 적어 둬야겠어요."

아홉 시였다. 그러고는 거의 곧바로 시계를 보았는데 열 시였다. 매키 씨는 주먹 쥔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꼭 행동파 사나이를 찍은 사진 같았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마음에 걸리던 마른 비누 거품 자국을 그의 뺨에서 닦아 냈다.

강아지는 탁자 위에 앉아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담배 연기 너머를 바라보며 이따금 가냘프게 끙끙거렸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어딘가로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가 서로를 놓쳤고, 서로를 찾아다니다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찾아냈다. 자정이 다 되어 갈 무렵 어느 때인가, 톰 뷰캐넌과 윌슨 부인은 얼굴을 맞대고 서서 윌슨 부인에게 데이지의 이름을 입에 올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열띤 목소리로 따지고 있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윌슨 부인이 소리를 질렀다.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 부를 거예요! 데이지! 데이……"

짧고 날랜 손놀림 한 번에, 톰 뷰캐넌은 손바닥으로 윌슨 부인의 코를 부러뜨렸다.

그러고는 욕실 바닥에 피 묻은 수건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나무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모든 소란 위로 높이, 길게 이어지다 끊기다 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다. 매키 씨가 선잠에서 깨어 얼떨떨한 얼굴로 문 쪽을 향해 걸음을 떼더니, 반쯤 가다가 돌아서서 그 광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내와 캐서린은 구급 용품을 손에 들고 빽빽한 가구 사이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나무랐다가 달랬다가 했고, 소파 위에서는 절망에 빠진 형체 하나가 막힘없이 피를 흘리며 베르사유를 수놓은 태피스트리 위에 《타운 태틀》을 펼쳐 덮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매키 씨는 다시 돌아서서 그대로 문을 나섰다. 나는 샹들리에에 걸어 둔 모자를 집어 들고 뒤따라 나갔다.

"언제 점심 한번 하러 오세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데 매키 씨가 권했다.

"어디로요?"

"아무 데나요."

"레버에서 손 떼세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쏘아붙였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매키 씨가 위엄을 차리며 말했다. "건드리고 있는 줄 몰랐군요."

"좋아요." 내가 응했다. "기꺼이 가죠."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속옷 바람으로 시트 사이에 일어나 앉아 커다란 작품집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미녀와 야수…… 고독…… 식료품 가게의 늙은 말…… 브루클른 다리……"

그러고 나서 나는 펜실베이니아 역의 싸늘한 아래층에 반쯤 잠든 채 누워, 조간 《트리뷴》을 멍하니 바라보며 새벽 네 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1. 사교계 소문과 추문을 싣던 가십 잡지. 피츠제럴드가 지어낸 이름으로, 당시 뉴욕에 실제로 있던 가십 주간지 《타운 토픽스》를 떠올리게 한다.

2. 당시 미국의 약국은 약만이 아니라 화장품과 담배, 잡화까지 두루 팔았다.

3. 저먼 셰퍼드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이 개를 흔히 '경찰견(police dog)'이라 불렀다.

4. 영국 작가 로버트 키블이 1921년에 낸 소설. 1차 대전 중 프랑스에 간 성공회 군목의 연애를 그렸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애정 묘사로 물의를 빚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5.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 1차 대전에서 미국과 싸운 적국의 군주였다.

3장

여름밤 내내 이웃집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푸르스름한 정원에서는 남자들과 아가씨들이 속삭임과 샴페인과 별빛 사이를 나방처럼 오갔다. 오후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나는 그 집 손님들이 뗏목 위 다이빙대에서 물로 뛰어드는 모습이며 그 집 해변의 뜨거운 모래밭에서 볕을 쬐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사이 모터보트 두 척이 해협의 물살을 가르며 사람을 태운 널빤지를 끌고 폭포처럼 부서지는 물거품 위를 내달렸다. 주말이면 그의 롤스로이스가 합승 버스가 되어 아침 아홉 시부터 자정이 한참 지날 때까지 손님들을 싣고 시내를 오갔고, 스테이션왜건은 날랜 노란 벌레처럼 쪼르르 달려 나가 들어오는 기차마다 마중을 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임시로 부른 정원사 하나까지 더해 하인 여덟 명이 대걸레와 솔과 망치와 전지가위를 들고 온종일 땀을 흘리며 지난밤이 할퀴고 간 자리를 손보았다.

금요일마다 뉴욕의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와 레몬이 다섯 상자씩 들어왔고, 월요일마다 바로 그 오렌지와 레몬이 알맹이를 빼낸 반쪽 껍데기가 되어 피라미드처럼 쌓인 채 뒷문으로 나갔다. 부엌에는 기계가 한 대 있었는데, 집사가 엄지로 조그만 단추를 200번 누르기만 하면 오렌지 200개의 즙을 30분 만에 짜낼 수 있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출장 연회 업자들이 한 부대를 이루어 내려왔다. 수백 피트나 되는 천막용 천에다, 개츠비의 거대한 정원을 통째로 크리스마스트리로 만들 만큼 넉넉한 색색의 전구까지 싣고서였다.

반짝이는 오르되브르로 꾸민 뷔페 식탁 위에서는 향신료를 발라 구운 햄이, 어릿광대 옷처럼 알록달록한 샐러드며 페이스트리로 빚은 돼지며 마법에 걸린 듯 짙은 금빛으로 구워진 칠면조와 비좁게 어깨를 부딪치고 있었다. 중앙 홀에는 진짜 놋쇠 난간을 두른 바가 차려졌다. 바에는 진과 온갖 독한 술에 까마득히 잊힌 코디얼[1]까지 갖추어 두었는데, 여자 손님들은 대부분 너무 어려서 그 술들을 하나하나 구별하지도 못했다.

일곱 시가 되면 악단이 와 있다. 달랑 다섯 명짜리 초라한 악단이 아니라, 오보에와 트롬본과 색소폰과 비올과 코넷과 피콜로에 낮은 북과 높은 북까지 갖추어 오케스트라석 하나를 통째로 메우는 악단이다. 마지막까지 헤엄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해변에서 올라와 위층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뉴욕에서 온 차들은 진입로에 다섯 겹으로 늘어서 있고, 벌써 복도며 응접실이며 베란다가 원색의 옷차림과 기묘하게 새로 자른 단발머리와 스페인 카스티야 사람들도 꿈꾸지 못했을 숄로 울긋불긋하다. 바는 한창 흥청거리고, 쟁반에 실려 떠다니는 칵테일이 바깥 정원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마침내 공기는 수다와 웃음소리로, 무심코 흘리는 야릇한 암시와 하자마자 잊히는 소개로, 서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끼리 호들갑스럽게 반기는 인사로 살아서 들썩인다.

지구가 해로부터 휘청 멀어져 갈수록 불빛은 점점 밝아지고, 이제 악단은 노란 칵테일 음악을 연주하며, 목소리들이 빚어내는 오페라는 한 음 더 높아진다. 웃음은 시시각각 헤퍼져서 아낌없이 쏟아지고, 유쾌한 말 한마디에도 왈칵 엎질러진다. 무리는 점점 더 빠르게 바뀐다. 새로 온 사람들로 부풀었다가, 한 호흡 사이에 흩어지고 또 모인다. 벌써 떠도는 이들도 있다. 자신만만한 아가씨들이 몸집 좋고 한자리에 진득하게 붙박인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다가, 짜릿하고 즐거운 한순간 어느 무리의 한가운데가 되고, 그러고는 승리감에 들떠 쉴 새 없이 바뀌는

불빛 아래 바다처럼 일렁이며 뒤바뀌는 얼굴과 목소리와 빛깔 사이로 미끄러져 간다.

그러다 갑자기 이 떠돌이 가운데 하나가, 하늘하늘 떨리는 오팔빛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허공에 떠다니는 칵테일 한 잔을 낚아채더니 용기를 내려고 단숨에 털어 넣고는, 프리스코[2]처럼 두 손을 놀리며 캔버스 무대 위로 혼자 춤을 추며 나선다. 한순간 조용해진다. 악단장이 선선히 그 아가씨에게 박자를 맞춰 주고, 저 아가씨가 폴리스에 나오는 길다 그레이[3]의 대역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여기저기서 수다가 와르르 터져 나온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개츠비의 집에 처음 간 그날 밤, 정말로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은 나를 포함해 몇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 가는 게 아니었다. 그냥 갔다. 자동차에 올라타면 차가 롱아일랜드까지 실어다 주었고,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개츠비의 집 문 앞에 닿아 있었다. 일단 거기 닿으면 개츠비를 아는 누군가가 소개를 해 주었고, 그다음부터는 놀이공원에나 어울릴 법한 행동 수칙을 따랐다. 개츠비를 아예 만나 보지도 않고 왔다 가는 때도 있었다. 순전히 파티를 즐기러 오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곧 입장권이었다.

나는 정말로 초대를 받았다. 그 토요일 아침 일찍, 울새 알처럼 연푸른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내 잔디밭을 건너와 자기 주인이 보낸 쪽지를 전해 주었는데, 놀라울 만큼 격식을 차린 글이었다. 오늘 밤 열리는 자신의 '조촐한 파티'에 왕림해 주신다면 개츠비로서는 더없는 영광이겠다고 했다. 몇 번 나를 뵌 적이 있어 진작 찾아뵈려 했으나 묘하게 사정이 겹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어 있었다. 그리고 끝에는 위풍당당한 필체로 제이 개츠비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흰 플란넬 양복을 차려입고 일곱 시가 조금 넘어 그 집 잔디밭으로 건너갔고, 모르는 사람들이 소용돌이치며 맴도는 틈을

적잖이 거북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래도 통근 기차에서 눈여겨본 얼굴이 여기저기 보이기는 했다.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젊은 영국인들이었다. 수가 무척 많았고, 다들 옷을 잘 차려입었고, 다들 조금 굶주린 기색이었으며, 다들 듬직하고 부유해 보이는 미국인들을 붙들고 낮고 간곡한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뭔가를 팔러 온 사람들이었다. 채권이든 보험이든 자동차든. 적어도 그들은 이 근방에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이 널려 있다는 걸 애가 탈 만큼 잘 알았고, 딱 맞는 가락으로 몇 마디만 건네면 그 돈이 제 것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 집 주인부터 찾아보려 했다. 그런데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두세 사람이 하나같이 어이없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어찌나 펄쩍 뛰며 잡아떼던지, 나는 슬그머니 칵테일 탁자 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정원을 통틀어 혼자 온 남자가 할 일 없는 외톨이처럼 보이지 않고 어정거릴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었다.

순전히 멋쩍은 나머지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마실 작정으로 가던 참에, 조던 베이커가 집에서 나와 대리석 계단 맨 위에 섰다. 몸을 살짝 뒤로 젖힌 채, 깔보는 듯하면서도 흥미롭다는 눈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기든 말든 나는 누구에게든 들러붙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기 시작할 판이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던 쪽으로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원 너머까지 울린 내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다가가자 조던이 건성으로 대꾸했다. "이 집 옆에 사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조던은 무심하게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챙겨 주겠다는 약속 같은 손길이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노란 드레스를 입고 계단 아래 멈춰 선 두 아가씨에게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세요!" 두 아가씨가 입을 모아 외쳤다. "우승 못 하셔서 아쉬워요."

골프 대회 이야기였다. 조던은 한 주 전 결승에서 졌다.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요." 노란 옷 아가씨 하나가 말했다. "한 달쯤 전에 여기서 뵌 적 있어요."

"그새 머리를 물들이셨네요." 조던이 한마디 했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두 아가씨는 벌써 무심히 발길을 옮긴 뒤였고, 조던의 말은 때 이르게 떠오른 달에 대고 한 말이 되어 버렸다. 그 달도 저녁 식사처럼 출장 연회 업자의 바구니에서 꺼내 온 게 틀림없었다. 조던의 가늘고 볕에 그은 금빛 팔을 내 팔에 걸친 채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정원을 느긋하게 거닐었다. 칵테일 쟁반 하나가 어스름을 헤치고 우리 쪽으로 떠내려왔고, 우리는 노란 옷의 두 아가씨, 그리고 남자 셋과 한 탁자에 앉았다. 남자들은 셋 다 '웅얼웅얼 씨(Mr. Mumble)'라고 소개받았다.

"이런 파티에 자주 오세요?" 조던이 옆자리 아가씨에게 물었다.

"지난번에 온 게 바로 뵈었던 그 파티예요." 아가씨가 또랑또랑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일행을 돌아보았다. "너도 그렇지, 루실?"

루실도 그랬다.

"난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루실이 말했다.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니까 늘 재미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의자에 걸려서 드레스가 찢어졌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이랑 주소를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크루아리에 의상실에서 소포가 왔는데, 새 이브닝드레스가 들어 있지 뭐예요."

"그래서 그 옷, 그냥 받으셨어요?" 조던이 물었다.

"그럼요. 오늘 밤 입고 오려고 했는데 가슴께가 너무 커서 고치러 보냈어요. 가스 불꽃 같은 파란색에 연보라 구슬이 달린 옷이에요. 265달러짜리요."

"그런 일을 하는 남자라니, 뭔가 좀 수상해요." 다른 아가씨가 신이 나서 말했다. "누구하고든 말썽이 나는 건 싫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 물었다.

"개츠비 말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두 아가씨와 조던이 은밀한 얘기를 나누듯 머리를 맞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에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우리 모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웅얼웅얼 씨 셋이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루실이 못 미덥다는 듯 반박했다. "그보다는 전쟁 때 독일 스파이였다는 쪽이죠."

남자 하나가 맞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자랐다더군요."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장담했다.

"어머, 아니에요." 처음 그 아가씨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쟁 때 미군에 있었다던데요." 우리가 이번엔 또 그 말에 솔깃해지자 아가씨는 신이 나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죽였다는 데 내기라도 걸 수 있어요."

아가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서리를 쳤다. 루실도 몸서리를 쳤다. 우리는 모두 돌아서서 개츠비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이 세상에서 굳이 소곤거려야 할 일을 별로 찾지 못한 사람들조차 그를 두고는

소곤거렸으니, 그가 불러일으키는 낭만적인 억측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했다.

첫 번째 만찬이 차려지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면 한 번 더 나올 참이었다. 조던은 정원 건너편 탁자에 둘러앉은 자기 일행에게 나를 불렀다. 부부 세 쌍에 조던을 에스코트하는 대학생 하나가 끼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끈덕진 데다 걸핏하면 노골적인 음담을 던졌고, 조던이 조만간 많든 적든 제 몸을 자기에게 허락하리라고 믿는 게 뻔히 보였다. 이 일행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고 점잖게 한 덩어리를 지키며, 이 고장의 근엄한 귀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고 있었다. 이스트에그가 짐짓 몸을 낮춰 웨스트에그에 와 주면서도 그 무지갯빛 흥청거림에 물들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경계하는 모양새였다.

"나가요." 어쩐지 헛되고 어울리지 않는 30분이 흐른 뒤 조던이 속삭였다. "여긴 저한테 너무 점잖아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던은 우리가 이 집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일행에게 설명했다. 내가 아직 주인을 한 번도 못 만나서 불안해한다나. 대학생은 냉소적이고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들여다본 바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개츠비는 없었다. 조던이 계단 꼭대기에서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고, 베란다에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뭔가 중요해 보이는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더니 천장이 높은 고딕풍 서재가 나왔다. 조각을 새긴 영국산 떡갈나무 판자로 벽을 두른 방이었는데, 아마 바다 건너 어느 폐허에서 통째로 뜯어 온 것 같았다.

부엉이 눈처럼 동그랗고 커다란 안경을 쓴 뚱뚱한 중년 남자 하나가 얼큰하게 취한 채 커다란 탁자 모서리에 걸터앉아, 흐리멍덩하면서도 골똘한 눈으로 서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남자는 흥분한 기색으로 휙 돌아앉더니 조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가 다짜고짜 물었다.

"뭘요?"

남자가 서가 쪽으로 손을 휘저었다.

"저거요. 아니, 사실은 검증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검증했거든요. 진짜예요."

"책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진짜라니까요. 페이지도 있고 뭐든 다 있어요. 나는 튼튼하고 그럴싸한 판지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진짜예요. 페이지도 있고…… 자! 내가 보여 줄게요."

우리가 안 믿으리라고 넘겨짚은 남자는 서가로 달려가더니 《스토더드 강연집》 제1권을 들고 돌아왔다.[4]

"봐요!"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틀림없는 인쇄물이에요. 나도 깜빡 속았다니까요. 이 친구, 아주 벨라스코가 따로 없어요.[5] 대성공이에요. 이 철저함 좀 봐요! 이 사실감! 게다가 어디서 멈출지도 알았어요. 페이지는 안 갈라 놨거든요.'[6] 하지만 뭘 더 바라요? 뭘 더 기대하겠어요?"

남자는 내 손에서 책을 낚아채 허둥지둥 서가에 도로 꽂고는, 벽돌 한 장만 빠져도 서재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누구랑 왔어요?" 남자가 따지듯 물었다. "아니면 그냥 왔어요? 나는 누가 데려왔어요. 다들 누가 데려왔지요."

조던은 대답 없이 초롱초롱하고 쾌활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루스벨트라는 여자가 데려왔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다. "클로드 루스벨트 부인요. 알아요? 어젯밤에 어디선가 만났어요. 벌써 일주일째 취해 있는데, 서재에 앉아 있으면 술이 좀 깰까 싶어서요."

"깼어요?"

"조금은 깬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온 지 한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책 얘기 했던가요? 진짜예요. 그게……"

"하셨어요."

우리는 엄숙하게 남자와 악수를 나누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제 정원의 캔버스 무대에서는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늙은 남자들은 젊은 아가씨들을 뒤로 밀어붙이며 끝도 없이 볼품없는 원을 그렸고, 잘난 체하는 남녀들은 유행을 따라 몸을 배배 꼬며 서로 끌어안은 채 구석 자리를 지켰다. 짝 없이 혼자 춤추는 아가씨들도 수두룩했고, 악단의 밴조나 드럼을 잠시 넘겨받아 짐을 덜어 주는 아가씨들도 있었다. 자정 무렵에는 흥이 한층 달아올랐다. 이름난 테너가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불렀고, 악명 높은 콘트랄토는 재즈를 불렀으며, 노래와 노래 사이에는 정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묘기'를 부렸다. 그러는 동안 행복하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왈칵왈칵 여름 하늘로 솟아올랐다. 무대 쌍둥이 한 쌍이 의상까지 갖춰 입고 아기 흉내를 내는 공연을 했는데, 알고 보니 노란 옷의 그 두 아가씨였다. 샴페인은 핑거볼보다 큰 잔에 담겨 나왔다. 달은 더 높이 떠올랐고, 해협에는 은빛 비늘로 된 삼각형 하나가 떠서, 잔디밭의 밴조들이 뻣뻣하게 똑똑 떨구는 양철 같은 소리에 맞춰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조던 베이커와 함께였다. 우리는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 하나,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걷잡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시끄러운 꼬마 아가씨와 한 탁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나도 즐거웠다. 핑거볼만 한 잔으로 샴페인을 두 잔 비웠더니, 눈앞의 광경이 무언가 의미심장하고 근원적이며 심오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흥이 잠시 잦아든 틈에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디서 뵌 얼굴 같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다. "전쟁 때 1사단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 네. 28보병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1918년 6월까지 16연대에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뵌 적이 있다 싶었지요."

우리는 비에 젖은 프랑스의 잿빛 작은 마을 몇 군데를 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는 이 근방에 사는 모양이었다. 수상 비행기를 막 한 대 샀는데 아침에 시험 삼아 띄워 볼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가 보시겠습니까, 올드 스포트[7]? 해협을 따라 물가 가까이만 돌아볼 생각입니다."

"몇 시에 가요?"

"언제든 가장 편하신 시간에요."

이름을 물어보려는 말이 막 혀끝까지 나왔을 때 조던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좀 즐거우세요?" 조던이 물었다.

"훨씬 나아요." 나는 새로 알게 된 남자에게 다시 몸을 돌렸다. "저한테는 좀 별난 파티예요. 아직 주인 얼굴도 못 봤거든요. 저는 저기 사는데……" 나는 멀리 보이지 않는 산울타리 쪽으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개츠비라는 이 사람이 운전사 편에 초대장을 보냈더라고요."

남자는 잠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개츠비입니다." 남자가 불쑥 말했다.

"네?" 나는 소리쳤다.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올드 스포트. 아무래도 제가 썩 훌륭한 주인은 못 되는 모양입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아니, 이해한다는 정도를 훌쩍 넘어서는 미소였다. 살면서 네댓 번이나 마주칠까 말까 한, 영원히 안심해도 좋다고 다독이는 무언가가 깃든 드문 미소였다. 그 미소는

한순간 영원한 온 세상을 마주하는 듯하다가, 아니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당신 편을 드는 마음으로 오로지 당신에게 쏠렸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은 딱 그만큼 이해해 주었고, 스스로를 믿고 싶은 만큼 믿어 주었으며, 가장 좋은 모습일 때 남에게 심어 주고 싶은 바로 그 인상을 자기도 틀림없이 받았노라고 장담해 주었다. 바로 그 대목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내 앞에는 서른을 한두 해 넘겼을 우아한 젊은 건달 하나가 서 있었다. 공들여 격식을 차린 말씨가 하마터면 우스꽝스러울 뻔한 사내였다. 그가 제 이름을 밝히기 얼마 전부터 나는 그가 말을 신중하게 골라 쓴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개츠비 씨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힌 거의 그 순간, 집사 하나가 서둘러 다가와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례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올드 스포트." 그가 간곡하게 권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합석하겠습니다."

그가 가자마자 나는 곧장 조던을 돌아보았다. 놀랐다는 걸 알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나는 개츠비 씨가 얼굴이 불그레하고 뚱뚱한 중년 남자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내가 다그쳐 물었다. "아세요?"

"그냥 개츠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요."

"결국 그 얘기로 넘어가시네요." 조던이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언젠가 저한테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등 뒤로 흐릿한 배경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조던의 다음 말에 이내 스러져 버렸다.

"그렇지만 전 그 말 안 믿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조던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냥 거기 다녔을 것 같지가 않아요."

조던의 말투에 묻은 무언가가 아까 그 아가씨가 "그 사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하던 말을 떠올리게 했고, 그 바람에 호기심이 더 동했다. 개츠비가 루이지애나의 늪지대에서 나왔다거나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의 빈민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였다면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갔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난데없이 어디선가 태연하게 흘러들어 와 롱아일랜드해협 가에 궁전을 사들이는 법은 없었다. 적어도 시골에서 올라와 세상 물정 모르던 나는 그런 법은 없다고 믿었다.

"어쨌든 큰 파티를 여는 사람이잖아요." 조던이 구체적인 얘기라면 질색하는 도시 사람다운 태도로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전 큰 파티가 좋아요. 아주 오붓하거든요. 작은 파티에서는 사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큰북이 둥 울리더니, 서로 말을 되받아 메아리치는 정원의 웅성거림 위로 악단장의 목소리가 불쑥 울려 퍼졌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악단장이 외쳤다. "개츠비 씨의 요청으로 지금부터 블라드미르 토스토프[8] 씨의 최신작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카네기 홀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곡이지요.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는 쾌활하게 선심 쓰듯 웃으며 덧붙였다. "센세이션도 그런 센세이션이 없었지요!" 그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곡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가 우렁차게 말을 맺었다. "'블라드미르 토스토프의 재즈 세계사'!"

토스토프 씨의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는 모르고 지나갔다. 곡이 막 시작될 무렵, 대리석 계단에 홀로 서서 흐뭇한 눈으로 이 무리 저 무리를 둘러보는 개츠비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볕에 그은 살갗이 얼굴 위로 보기 좋게 팽팽히 당겨져 있었고, 짧은 머리는 날마다 다듬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서 음험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형제처럼 어우러진 흥청거림이 무르익을수록 개츠비는 점점 더 단정해지는 것 같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 그를 손님들과 달라 보이게 하는 데 한몫하는 걸까 싶었다. '재즈 세계사'가 끝났을 때 아가씨들은 강아지처럼 살갑게 남자들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누군가 받아 주리라는 걸 알고 장난스레 뒤로 쓰러지듯 남자들 품으로, 아니 아예 여럿이 모인 무리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개츠비에게 뒤로 쓰러지는 아가씨는 아무도 없었고, 개츠비의 어깨에 닿는 프랑스식 단발머리도 없었으며, 머리를 맞대고 노래하는 사중창단 가운데 개츠비의 머리가 고리 하나를 이루는 일도 없었다.

"실례합니다."

어느새 개츠비의 집사가 우리 곁에 서 있었다.

"베이커 양이십니까?" 집사가 물었다. "실례지만 개츠비 씨께서 따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하고요?" 조던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조던은 어리둥절하다는 듯 나에게 눈썹을 치켜올려 보이며 천천히 일어나서는 집사를 따라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보니 조던은 야회복을, 아니 어떤 드레스든 운동복처럼 입는 사람이었다. 몸놀림에 어딘가 경쾌한 멋이 있었는데, 맑고 상쾌한 아침의 골프장에서 처음 걸음마를 배운 사람 같았다.

나는 혼자 남았고, 시각은 거의 두 시였다. 테라스 위로 내민, 창이 여럿 달린 기다란 방에서 한동안 어수선하면서도 궁금증을 돋우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던의 그 대학생은 이제 코러스 걸 둘을 붙들고 해산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다가 나더러 끼라고 사정했지만, 나는 그를 슬쩍 피해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란 옷 아가씨 하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이름난 코러스단 출신이라는 키 크고 머리가 붉은 아가씨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샴페인을 잔뜩 마신 그 아가씨는 노래를 부르던 도중에, 얼토당토않게도 세상만사가 몹시, 몹시 슬프다고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래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울기까지 했다. 노래가 잠깐 쉬는 대목마다 숨넘어가는 흐느낌으로 틈을 메웠고, 그러고는 떨리는 소프라노로 다시 가사를 이어 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다고 순순히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마스카라를 구슬처럼 잔뜩 뭉쳐 바른 속눈썹에 닿자 눈물은 먹물 빛으로 물들었고, 남은 길은 느릿느릿 검은 실개천이 되어 내려갔다. 누군가 얼굴에 그려진 악보를 보고 부르면 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아가씨는 두 손을 번쩍 쳐들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술기운에 깊은 잠으로 곯아떨어졌다.

"자기 남편이라는 남자하고 싸웠대요." 내 곁에 있던 아가씨가 설명해 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아 있는 여자들은 이제 대부분 남편이라는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조던의 일행, 그러니까 이스트에그에서 온 네 사람마저 불화로 갈라져 있었다. 그중 남자 하나가 젊은 여배우와 이상하리만큼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위엄 있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어넘기려 하다가 끝내 완전히

무너져서 측면 공격에 나섰다. 이따금 성난 다이아몬드처럼 남편 곁에 불쑥 나타나서는 그 귀에 대고 "약속했잖아요!" 하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건 제멋대로 구는 남자들만이 아니었다. 지금 현관 홀에는 딱하게도 정신이 말짱한 남자 둘과 몹시 성이 난 그 아내들이 있었다. 두 아내는 조금 높아진 목소리로 서로 맞장구를 치며 위로하고 있었다.

"내가 좀 즐겁다 싶으면 꼭 집에 가자고 한다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소리는 난생처음 들어요."

"우린 늘 제일 먼저 자리를 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 밤은 거의 꼴찌잖아." 남자 하나가 멋쩍게 말했다. "악단도 30분 전에 갔다고."

그런 몹쓸 심술은 믿을 수가 없다고 두 아내가 입을 모았지만, 말다툼은 짧은 몸싸움으로 끝났고, 두 아내는 발버둥을 치며 번쩍 들린 채 밤 속으로 실려 나갔다.

홀에서 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재 문이 열리더니 조던 베이커와 개츠비가 함께 나왔다. 개츠비는 조던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몇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열띠던 태도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며 격식을 차렸다.

조던의 일행이 현관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조던을 불렀지만, 조던은 나와 악수를 하느라 잠깐 꾸물거렸다.

"방금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조던이 속삭였다. "우리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글쎄요, 한 시간쯤요."

"그건…… 정말이지 놀라웠어요." 조던은 딴생각에 잠긴 얼굴로 되뇌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맹세해 놓고 이렇게 애만 태우고 있네요." 조던은 내 얼굴에 대고 우아하게 하품을 했다. "꼭 한번 찾아오세요…… 전화번호부에…… 시거니 하워드 부인 이름으로요…… 제 고모예요……" 조던은 말하면서 벌써 서둘러 가고 있었다. 볕에 그은 손을 경쾌하게 흔들어 인사를 보내더니, 문간의 일행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처음 온 자리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게 좀 부끄러워서, 나는 개츠비를 둘러싸고 모여 있는 마지막 손님들 틈에 끼었다. 초저녁에 그를 찾아 헤맸다는 걸 해명하고, 정원에서 그를 몰라본 걸 사과하고 싶었다.

"별말씀을요." 그가 열띤 목소리로 나를 말렸다. "그런 건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올드 스포트." 스스럼없는 호칭이었지만, 괜찮다는 듯 내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간 손길 이상의 스스럼없음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아홉 시에 수상 비행기 타러 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의 어깨 뒤에서 집사가 말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님."

"알겠어요, 곧 가지요. 바로 간다고 전해 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자 갑자기, 마지막까지 남은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게 무언가 기분 좋은 의미가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가 처음부터 줄곧 그러기를 바랐다는 듯이. "안녕히 가십시오, 올드 스포트…… 안녕히."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그날 밤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다. 문에서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전조등 열두어 개가 괴상하고 소란스러운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길가 도랑에 새 쿠페 한 대가 처박혀 있었는데,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바퀴 하나가 사정없이 뜯겨 나가 있었다. 개츠비의 진입로를 빠져나간 지 채 2분도 안 된 차였다. 바퀴가 빠진 것은 날카롭게 튀어나온 담 모서리 탓이었고, 지금은 호기심 많은 운전사 대여섯 명이 그 바퀴를 꽤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저마다 차를 길에 세워 둔 채 내리는 바람에 길이 막혀서 뒤에 선 차들이 한참 전부터 귀에 거슬리게 빵빵거렸고, 그 소리가 가뜩이나 난장판인 현장을 더 어지럽혔다.

기다란 먼지막이 외투를 입은 남자 하나가 부서진 차에서 내려 길 한복판에 서서는, 기분 좋게 어리둥절한 얼굴로 차를 보았다가 타이어를 보았다가, 다시 타이어를 보았다가 구경꾼들을 보았다가 했다.

"보세요!" 남자가 설명했다. "도랑에 빠졌어요."

남자에게는 그 사실이 한없이 놀라운 모양이었다. 나는 그 남다른 경탄의 빛을 먼저 알아보았고, 이어서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조금 전까지 개츠비의 서재를 애용하던 바로 그 손님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기계라면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딱 잘라 말했다.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담을 들이받으셨어요?"

"나한테 묻지 마요." 부엉이 눈은 이 일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운전은 잘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요.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밖에는 나도 몰라요."

"운전이 서투르시면 밤에는 운전할 생각을 마셔야죠."

"하지만 나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남자가 발끈해서 해명했다. "할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구경꾼들 사이에 숙연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바퀴 하나로 끝났으니 운 좋은 줄 알아요! 운전도 서툰 사람이 제대로 할 생각조차 없었다니!"

"뭘 모르시는군요." 범인이 해명했다. "운전한 건 내가 아니에요. 차에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선언이 불러온 충격은 쿠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동안 길게 이어지는 "아아아!" 소리로 터져 나왔다. 군중은(이제는 정말 군중이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문이 활짝 열리자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아주 느릿느릿, 한 부분씩, 창백하고 흐느적거리는 사람 하나가 부서진 차에서 걸어 나왔다. 커다란 무도화 한 짝으로 땅바닥을 미심쩍게 더듬으면서.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시고 끊임없이 울어 대는 경적에 정신이 없는지, 그 유령 같은 사내는 한동안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그제야 먼지막이 외투를 입은 남자를 알아보았다.

"뭔 일이래요?" 사내가 태연하게 물었다. "기름 떨어졌나요?"

"저거 봐요!"

손가락 대여섯 개가 잘려 나간 바퀴를 가리켰다. 사내는 한동안 바퀴를 멀뚱히 바라보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듯 위를 올려다보았다.

"바퀴가 빠졌어요." 누군가 설명해 주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첨엔 차가 선 줄도 몰랐네요."

잠시 말이 끊겼다. 그러더니 사내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어깨를 쫙 펴고는, 굳게 마음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주유소 어딨는지 누가 좀 알려 줄래요?"

적어도 열두어 명이, 개중에는 그보다 조금 덜 취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퀴와 차가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끈으로도 이어져 있지 않다고 사내에게 설명했다.

"뒤로 빼 봐요." 잠시 뒤 사내가 제안했다. "후진 기어를 넣고요."

"바퀴가 빠졌다니까요!"

사내는 머뭇거렸다.

"해 봐서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사내가 말했다.

고양이 울음 같은 경적 소리가 절정에 이르자 나는 돌아서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다.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웨이퍼처럼 얇은 달이 개츠비의 집 위에서 빛나며 밤을 아까처럼 곱게 밝히고 있었다. 아직 불빛이 환한 그의 정원에서 웃음과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달은 살아남아 거기 떠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허가 이제 창마다, 커다란 문마다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그 공허는 현관에 서서 격식을 갖추어 작별의 손을 들어 보이는 주인의 모습을 완전한 고립 속에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쓴 것을 다시 읽어 보니, 몇 주씩 떨어진 사흘 밤의 일만이 나를 온통 사로잡았던 것처럼 써 놓았다. 실은 그 반대였다. 그 일들은 분주한 여름에 우연히 끼어든 일들일 뿐이었고, 한참 뒤까지도 나를 사로잡은 정도로 치면 내 개인적인 일들에 한없이 못 미쳤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보냈다. 이른 아침이면 뉴욕 남쪽 끝의 하얀 협곡 같은 거리를 바삐 걸어 프로비티 신탁회사[9]로 가는 동안 아침 해가 내 그림자를 서쪽으로 길게 던졌다. 다른 사무원들이며 젊은 채권 판매원들과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였고, 어둡고 붐비는 식당에서 그들과 함께 조그만 돼지고기 소시지와 으깬 감자와 커피로 점심을

먹었다. 저지시티에 살면서 회계부에서 일하던 아가씨와 잠깐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 그 아가씨의 오빠가 나를 험악한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하는 바람에, 7월에 아가씨가 휴가를 떠났을 때 나는 그 관계가 조용히 흐지부지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녁은 대개 예일 클럽에서 먹었다. 어째서인지 그게 하루 중 가장 우울한 일과였다. 저녁을 먹고 나면 위층 도서실로 올라가 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투자와 증권을 공부했다. 대개 떠들썩한 패거리가 몇 있었지만 도서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공부하기에는 좋은 곳이었다. 그러고 나서 밤공기가 푸근하면 매디슨가를 따라 오래된 머리힐 호텔을 지나 걸어 내려갔고, 33번가로 접어들어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갔다.

나는 뉴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풍기는 그 짜릿하고 모험 가득한 기운이 좋았고, 남자와 여자와 기계들이 쉴 새 없이 깜박이며 오가는 모습이 가만있지 못하는 눈에 안겨 주는 만족감이 좋았다. 나는 5번가를 걸어 올라가며 인파 속에서 낭만적인 여자들을 골라내고는, 몇 분 뒤면 내가 그 여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테고 아무도 그걸 알거나 나무라지 않으리라 상상하기를 좋아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들을 따라 숨은 거리 모퉁이의 아파트까지 갔고, 여자들은 문 안의 따뜻한 어둠 속으로 스러지기 전에 뒤돌아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대도시의 마법 같은 황혼 녘이면 나는 이따금 떨쳐지지 않는 외로움을 느꼈고, 남들에게서도 그걸 느꼈다. 혼자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진열창 앞을 서성이는 가난한 젊은 사무원들, 땅거미 속의 젊은 사무원들은 밤과 인생에서 가장 가슴 저미는 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여덟 시, 40번대 거리의 어두운 골목마다 극장가로 향하는 택시들이 부르릉거리며 다섯 겹으로 늘어설 때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택시 안에서는 사람의 형체들이 서로에게

기대고, 노랫소리가 흐르고, 들리지 않는 농담에 웃음이 터졌으며, 불붙은 담배가 알아볼 수 없는 동그라미를 그렸다. 나도 저들처럼 즐거움을 향해 서둘러 가며 그 은밀한 설렘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나는 그들이 잘되기를 빌었다.

한동안 조던 베이커를 보지 못하다가 한여름에 다시 만났다. 처음에는 조던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는 게 우쭐했다. 조던은 골프 챔피언이었고, 모두가 그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러다 그 이상이 되었다. 정말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 애틋한 호기심 같은 것이 생겼다. 조던이 세상에 내보이는 권태롭고 오만한 얼굴 뒤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꾸민 태도란 처음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대개 무언가를 감추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냈다. 워릭의 어느 저택에서 열린 주말 모임에 함께 갔을 때, 조던은 빌린 차를 지붕을 젖힌 채 빗속에 세워 두고는 그 일로 거짓말을 했다. 그 순간 데이지네 집에서 보낸 그날 밤 끝내 생각나지 않던 조던에 관한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조던이 처음 나간 큰 골프 대회에서 하마터면 신문에까지 날 뻔한 소동이 있었다. 준결승에서 치기 나쁜 자리에 떨어진 공을 조던이 슬쩍 옮겼다는 말이 돌았다. 일은 추문이라 할 만큼 커질 뻔하다가 잠잠해졌다. 캐디 하나가 진술을 뒤집었고, 유일한 다른 목격자도 자기가 잘못 보았을지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 일과 그 이름은 내 머릿속에 나란히 붙어 남아 있었다.

조던 베이커는 영리하고 약삭빠른 남자들을 본능적으로 피했는데, 이제 보니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은 아예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세계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었다. 조던은 구제 불능으로 정직하지 못했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걸 견디지 못했고, 그렇게 지기 싫어하는 성미였으니, 세상을 향해 그 서늘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도 단단하고 경쾌한 제 몸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둘러대고 속이는 수를 쓰기 시작했으리라고 나는 짐작한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여자의 부정직함은 깊이 탓할 일이 못 된다. 나는 가볍게 유감스러워하다가 이내 잊어버렸다. 운전을 두고 묘한 대화를 나눈 것도 바로 그 주말 모임에서였다. 조던이 인부 몇 사람 곁을 너무 바짝 스쳐 가는 바람에 우리 차 흙받기가 한 사람의 외투 단추를 툭 치고 지나간 게 발단이었다.

"운전 정말 형편없네요." 내가 항의했다. "좀 더 조심하든지, 아니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든지 하세요."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조던이 가볍게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 줄 테니까요." 조던은 고집을 부렸다. "사고가 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조던 씨만큼 무신경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사람은 영영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조던이 대답했다. "전 무신경한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닉 씨가 좋은 거예요."

볕에 시달린 조던의 잿빛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있었지만, 조던은 일부러 우리 사이를 한 걸음 옮겨 놓았고, 나는 한순간 조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굼뜨고, 욕망에 제동을 거는 내면의 규칙들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고향에 두고 온 그 얽힌 관계에서 확실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끝에 '사랑을 담아, 닉'이라고 서명해 왔지만, 떠오르는 거라고는 그 아가씨가 테니스를 칠 때면 윗입술에 땀방울이 콧수염처럼 희미하게 맺히던 모습뿐이었다. 그래도 둘

사이에는 어렴풋한 언약 같은 것이 있었고,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그것부터 눈치 있게 끊어 내야 했다.

누구나 으뜸가는 덕목 가운데 적어도 하나쯤은 자기에게 있으리라고 은근히 혐의를 두기 마련인데, 내 경우는 이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정직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

1. 코디얼(cordial)은 과일이나 약초로 맛과 향을 낸 달콤한 리큐어. 미국에서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으로 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2. 조 프리스코(Joe Frisco, 1889~1958). 중산모를 쓰고 시가를 문 채 추는 재즈 춤으로 인기를 끈 보드빌 무용수이자 희극 배우.

3. 길다 그레이(Gilda Gray, 1901~1959)는 '시미'라는 춤을 유행시킨 무용수. 폴리스(Follies)는 해마다 브로드웨이에 오르던 화려한 레뷔 '지그펠드 폴리스'를 말하며, 그레이는 1922년에 이 무대에 섰다.

4. 여행 강연가 존 L. 스토더드(John L. Stoddard, 1850~1931)의 강연을 엮은 여러 권짜리 여행기 전집. 당시 가정용 전집으로 널리 팔렸다.

5. 데이비드 벨라스코(David Belasco, 1853~1931). 브로드웨이의 연출가이자 제작자. 진짜 가구와 소품을 무대에 그대로 옮겨 놓는 사실주의 연출로 이름났다.

6. 당시 책은 인쇄한 종이를 접어 묶은 채 가장자리를 잘라 내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아서, 읽는 사람이 칼로 페이지를 갈라 가며 읽어야 했다. 페이지가 붙어 있다면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뜻이다.

7. 올드 스포트(old sport). 영국 상류층 신사들의 말투를 흉내 낸 친근한 호칭으로 '여보게, 이 친구' 정도의 뜻이다. 개츠비의 입버릇인데, 미국인의 입에서 나오면 어딘가 꾸민 티가 나고 어색하게 들린다. 이 번역은 그 어색함을 살리려고 뜻을 옮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8. 토스토프(Tostoff)는 '대충 해치우다, 뚝딱 만들어 내다'라는 뜻의 영어 toss off를 러시아 사람 이름처럼 비튼 것이다.

9. probity는 '정직, 청렴'이라는 뜻이다.

4장

일요일 아침, 해안을 따라 늘어선 마을마다 교회 종이 울리는 동안 온 세상이 제 여자를 끼고 다시 개츠비의 집으로 몰려와, 그의 잔디밭에서 깔깔거리며 반짝거렸다.

"그 사람 밀주업자래요." 개츠비의 칵테일과 꽃 사이 어디쯤을 누비며 젊은 아가씨들이 말했다. "한번은 사람을 죽였대요. 그 사람이 폰 힌덴부르크[1]의 조카고 악마하고는 육촌 간이라는 걸 알아낸 남자를요. 자기야, 장미 한 송이만 집어 줘. 그리고 저기 저 크리스털 잔에다 마지막으로 한 방울만 따라 줘."

그해 여름 개츠비의 집에 드나든 사람들의 이름을 나는 언젠가 기차 시간표의 빈자리에 적어 둔 적이 있다. 이제는 낡아서 접힌 자리마다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는 시간표인데, 맨 위에 '1922년 7월 5일부터 이 시간표를 시행함'이라고 찍혀 있다. 그래도 흐릿해진 잿빛 이름들은 아직 읽을 수 있다. 개츠비의 환대를 받아 누리면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그에게 은근한 경의를 바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는, 내가 뭉뚱그려 늘어놓는 말보다 이 이름들이 훨씬 잘 보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트에그에서는 체스터 베커 부부와 리치 부부[2]가 왔고, 내가 예일에서 알던 번슨이라는 남자와, 지난여름 메인주에서 물에 빠져 죽은 웹스터 시벳 박사가 왔다. 그리고 혼빔 부부와 윌리 볼테르 부부, 늘 한구석에 모여 있다가 누구든 가까이 오기만 하면 염소처럼 코를

치켜들던 블랙벅이라는 일족 전체. 그리고 이즈메이 부부와 크리스티 부부(아니, 정확히는 휴버트 아우어바흐와 크리스티 씨의 아내),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어느 겨울 오후 아무 까닭도 없이 머리가 목화처럼 하얗게 세어 버렸다는 에드거 비버.

내 기억으로는 클래런스 엔다이브도 이스트에그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흰 니커보커 차림으로 와서는 정원에서 에티라는 놈팡이와 주먹다짐을 벌였다. 섬에서도 더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치들 부부와 O. R. P. 슈레이더 부부, 조지아주에서 온 스톤월 잭슨 에이브럼스 부부, 피시가드 부부와 리플리 스넬 부부가 왔다. 스넬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사흘 전에도 와 있었는데, 자갈 깔린 진입로에 어찌나 곤드레만드레 취해 뻗어 있었던지 율리시스 스웨트 부인의 자동차가 그의 오른손을 깔고 지나갔다. 댄시 부부도 왔고, 예순이 훌쩍 넘은 S. B. 화이트베이트와 모리스 A. 플링크와 해머헤드 부부, 담배 수입업자 벨루가와 벨루가의 아가씨들도 왔다.

웨스트에그에서는 폴 부부와 멀레디 부부, 세실 로벅과 세실 쇤, 주상원의원 굴릭, '필름스 파 엑설런스'를 쥐고 흔들던 뉴턴 오키드, 그리고 에크하우스트와 클라이드 코언과 돈 S. 슈워츠(아들 쪽)와 아서 매카티가 왔는데, 모두 이래저래 영화판에 발을 걸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캣립 부부와 벰버그 부부,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목 졸라 죽인 그 멀둔의 형제 G. 얼 멀둔. 흥행업자 다 폰타노도 왔고, 에드 르그로와 제임스 B. ('싸구려 술') 페럿과 드종 부부와 어니스트 릴리도 왔다. 이들은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페럿이 정원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면 가진 돈을 몽땅 털렸다는 뜻이었고, 그러면 이튿날 어소시에이티드 트랙션의 주가가 그에게 쏠쏠하게 출렁거려 줘야 했다.

클립스프링어라는 남자는 어찌나 자주 와 있었던지 '하숙생'으로 통했는데, 그에게 달리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연극판 사람으로는 거스 웨이즈와 호러스 오도너번과 레스터 마이어와 조지 덕위드와 프랜시스 불이 있었다. 역시 뉴욕에서 온 사람으로는 크롬 부부와 백히슨 부부와 데니커 부부, 러셀 베티, 코리건 부부와 켈러허 부부와 듀어 부부와 스컬리 부부, S. W. 벨처, 스머크 부부, 지금은 이혼한 젊은 퀸 부부, 그리고 타임스스퀘어에서 지하철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헨리 L. 팔메토가 있었다.

베니 매클레너핸은 늘 아가씨를 넷씩 데리고 나타났는데, 얼굴이며 몸으로 치면 매번 똑같은 아가씨들은 아니었지만, 서로 어찌나 판박이였던지 전에도 왔던 아가씨들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름은 잊어버렸다. 재클린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 콘수엘라, 아니면 글로리아나 주디나 준이었다. 성은 꽃 이름이나 열두 달 이름처럼 가락이 고운 것이거나, 아니면 미국 대자본가들의 좀 더 근엄한 성이었는데, 조금만 캐물으면 아가씨들은 자기가 그 집안의 사촌이라고 털어놓곤 했다.

이들 말고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다. 파우스티나 오브라이언은 적어도 한 번은 왔다. 그리고 베데커네 아가씨들, 전쟁 때 총에 맞아 코가 날아간 젊은 브루어, 앨브럭스버거 씨와 그의 약혼녀 하그 양, 아디타 피츠피터스, 한때 미국재향군인회 회장이었던 P. 주잇 씨, 운전사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를 데리고 온 클로디아 힙 양, 그리고 어디의 무슨 왕자라던 사람. 우리는 그를 '공작'이라고 불렀는데, 본명은 혹시 알았다 해도 잊어버렸다.

이 사람들이 모두 그해 여름 개츠비의 집에 왔다.

7월 말의 어느 날 아침 아홉 시, 개츠비의 호화로운 차가 돌투성이 진입로를 덜컹거리며 올라와 내 집 문 앞에 서더니, 세 음짜리 경적으로 가락 한 소절을 요란하게 뽑아냈다.

나는 그의 파티에 두 번 갔고, 수상 비행기에도 올라 보았으며, 하도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그 집 해변도 자주 드나들던 터였지만, 개츠비가 나를 찾아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 스포트. 오늘 저하고 점심 드시지요. 그래서 같이 차로 올라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유난히 미국적인, 어떤 동작이든 척척 해내는 몸놀림이었다. 짐작하건대 그런 몸놀림은 어려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해 보지 않은 데서, 그보다도 신경질적이고 들쭉날쭉한 우리네 운동 경기가 지닌 형식 없는 우아함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기질은 깍듯이 격식을 차리는 그의 태도를 뚫고 끊임없이 불쑥불쑥 드러났는데, 그럴 때면 가만있지 못하는 조바심이 되어 나타났다.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어딘가에서 늘 발 하나가 까딱거리거나, 손 하나가 조급하게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내가 감탄하는 눈으로 차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올드 스포트?" 그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게 폴짝 뛰어내렸다. "전에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본 적이야 있었다. 누구나 본 적이 있었다. 짙은 크림색 차체에 니켈 도금이 번쩍거렸고, 괴물처럼 기다란 몸체 여기저기가 의기양양한 모자 상자와 음식 상자와 공구 상자로 불룩했으며, 미로처럼 얽힌 앞 유리들이 계단을 이루며 층층이 솟아 해를 열두어 개나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초록 가죽을 댄 온실 같은 자리에 앉아 여러 겹의 유리 뒤에 숨은 채 시내로 출발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나는 개츠비와 대여섯 번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 중요한 인물이리라던 첫인상은 차츰 흐려졌고, 이제 그는 그저 옆집에서 요란하게 꾸민 길가 술집을 하는 주인일 뿐이었다.

그러다 그날,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웨스트에그 마을에 닿기도 전에 개츠비는 우아하게 시작한 문장들을 끝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내버려 두는가 하면, 캐러멜색 양복의 무릎을 망설이듯 손바닥으로 탁탁 치기 시작했다.

"저, 올드 스포트." 그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금 얼떨떨해서, 그런 질문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할 두루뭉술한 얼버무림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럼 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여기저기서 들으시는 온갖 이야기 때문에 저를 잘못 아시는 건 싫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자기 집 홀에서 오가는 대화에 양념처럼 뿌려지던 그 해괴한 험담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하느님 앞에 맹세코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불쑥 올라가더니, 하늘의 벌더러 언제든 내릴 수 있게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저는 중서부 어느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다들 돌아가셨지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교육은 옥스퍼드에서 받았습니다. 제 선조들이 여러 대에 걸쳐 모두 거기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집안의 전통입니다."

개츠비가 나를 곁눈질했다. 그 순간 나는 조던 베이커가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는지 알았다. 개츠비는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았다'는 대목을 서둘러 넘기거나, 꿀꺽 삼키거나, 그 대목에서 목이 메었는데, 전에도 그 말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 같았다. 이 의심 하나로 그의 이야기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결국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음흉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중서부 어디요?" 내가 무심한 척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군요."

"식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제게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엄숙하던지, 한 일가가 한꺼번에 대가 끊긴 그 일의 기억이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 같았다. 잠깐은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들었지만, 흘끗 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 뒤로는 유럽의 수도란 수도를, 그러니까 파리며 베네치아며 로마를 돌아다니며 젊은 인도 왕족처럼 살았습니다. 보석을, 주로 루비를 모으고, 큰 짐승 사냥을 다니고, 그림도 조금 그렸지요. 그저 저 혼자 보려고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제게 일어난 몹시 슬픈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표현 하나하나가 어찌나 닳고 닳았던지, 떠오르는 그림이라고는 터번을 두른 '등장인물' 하나가 파리의 불로뉴 숲에서 호랑이를 쫓으며 온몸의 땀구멍마다 톱밥을 흘리는 모습뿐이었다.

"그러다 전쟁이 났습니다, 올드 스포트. 전쟁은 크나큰 위안이었지요. 저는 죽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무슨 마법에 걸린 목숨인지 도무지 죽지를 않더군요. 전쟁이 시작되자 중위로 임관했습니다. 아르곤 숲에서는 기관총 대대에서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어찌나 멀리 치고 나갔던지, 보병이 따라오지 못해서 우리 양옆으로 반 마일씩 빈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틀 낮 이틀 밤을 버텼습니다. 130명이 루이스 기관총 열여섯 정을 가지고요. 마침내 보병이 올라와 보니,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사이에서 독일군 3개 사단의 휘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연합국 정부란 정부는 하나같이 제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몬테네그로까지요. 저 아래 아드리아해에 있는 작은 몬테네그로까지 말입니다!"

작은 몬테네그로! 그는 그 말을 번쩍 들어 올려 보이고는, 예의 그 미소를 지으며 그 말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몬테네그로의 파란 많은 역사를 헤아렸고, 몬테네그로 사람들의 용감한 투쟁에 공감했다. 몬테네그로의 따뜻하고 조그만 가슴에서 이런 헌사를 끌어내기까지 그 나라의 사정이 사슬처럼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도 속속들이 알아주었다. 이제 내 불신은 매혹 속에 잠겨 버렸다. 잡지 열두어 권을 허겁지겁 훑어 넘기는 기분이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리본에 매달린 쇳조각 하나가 내 손바닥에 떨어졌다.

"그게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겁니다."

놀랍게도 그 물건은 진짜처럼 보였다. 둥근 테두리를 따라 '다닐로 훈장(Orderi di Danilo)'이라는 글귀가 돌아가고, 이어서 '몬테네그로 국왕 니콜라(Montenegro, Nicolas Rex)'라고 새겨져 있었다.

"뒤집어 보십시오."

"제이 개츠비 소령." 내가 소리 내어 읽었다. "탁월한 무공을 기리며."

"이것도 제가 늘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옥스퍼드 시절의 기념품이지요. 트리니티 칼리지 안뜰에서 찍었는데,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동커스터 백작입니다."

블레이저 차림의 젊은이 대여섯 명이 아치형 통로에서 한가롭게 어슬렁거리는 사진이었는데, 아치 너머로 숱한 첨탑이 보였고, 거기 개츠비가 있었다. 지금보다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얼굴로, 손에 크리켓 방망이를 들고서.

그렇다면 다 사실이었다. 대운하 가에 선 그의 궁전에서 호랑이 가죽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고, 부서진 마음을 갉아대는 아픔을 달래려고 루비 궤짝을 열어 진홍빛으로 빛나는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도 눈에 선했다.

"오늘 제가 큰 부탁을 하나 드릴 참입니다." 그가 흡족한 얼굴로 기념품들을 주머니에 도로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에 대해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저 어디서 굴러온 아무개로 여기시는 건 싫었거든요. 실은 저는 대개 낯선 사람들 틈에 섞여 지냅니다. 제게 일어났던 슬픈 일들을 잊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요." 그가 머뭇거렸다. "오늘 오후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요?"

"아니요, 오늘 오후에요. 베이커 양을 모시고 차를 드시러 가신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베이커 양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올드 스포트,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베이커 양이 고맙게도 이 일에 관해 대신 말씀드려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나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궁금하기보다는 짜증스러웠다. 제이 개츠비 씨 이야기나 하자고 조던을 차 마시러 불러낸 게 아니었다. 틀림없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부탁일 것 같았고, 나는 잠시나마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그 잔디밭에 발을 들여놓았던 일 자체를 후회했다.

그는 더는 한마디도 하려 들지 않았다.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깍듯한 태도는 점점 더 굳어 갔다. 우리는 붉은 띠를 두른 원양 선박들이 언뜻 보이는 포트루스벨트(Port Roosevelt)를 지나, 금박이 바랜 1900년대풍의 어두운 술집들이, 그래도 손님만은 끊기지 않은 술집들이 늘어선 자갈 깔린 빈민가를 내달렸다. 이윽고 재의 계곡이 양옆으로 펼쳐졌고, 지나가는 길에 윌슨 부인이 헐떡이는 생기를 뿜으며 정비소 주유기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우리는 날개처럼 흙받기를 활짝 편 채 애스토리아의 절반에 빛을 흩뿌리며 달렸다. 절반뿐이었던 것은, 고가 철도의 기둥들 사이를 요리조리 누비고 있는데 귀에 익은 오토바이 소리가 '털털털 탕!' 하고 들리더니 잔뜩 흥분한 경찰 하나가 우리 옆으로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이었다.

"알았어요,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소리쳐 대답했다. 우리는 속도를 늦췄다. 개츠비는 지갑에서 흰 카드 한 장을 꺼내 경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아, 그러시군요." 경찰이 모자챙에 손을 대며 수긍했다. "다음번엔 알아뵙겠습니다, 개츠비 씨. 실례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물었다. "옥스퍼드 사진이요?"

"예전에 경찰국장에게 편의를 좀 봐 드린 적이 있어서, 해마다 제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옵니다."

거대한 다리를 건너는 동안, 철골 사이로 비쳐 드는 햇빛은 달리는 차들 위에서 쉴 새 없이 깜박였고, 강 건너편에서는 도시가 하얀 무더기로, 각설탕 덩어리로 솟아올랐다. 모두 냄새 없는 돈으로, 소망 하나를 담아 지어 올린 것들이었다. 퀸즈버러 다리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언제나 처음 보는 도시다. 세상의 온갖 신비와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약속하는 도시.

죽은 사람 하나가 꽃을 수북이 실은 영구차를 타고 우리 곁을 지나갔고, 그 뒤를 차양을 내린 마차 두 대와 친구들을 태운 좀 더 명랑한 마차들이 따랐다. 친구들은 동남유럽 사람 특유의 비극적인 눈과 짧은 윗입술을 하고 우리를 내다보았는데, 나는 개츠비의 근사한 차를 구경한 일이 그들의 침울한 휴일에 한 자락 끼게 되어 기뻤다. 블랙웰스섬을 지날 때는 백인 운전사가 모는 리무진 한 대가 우리를 앞질러 갔는데, 안에는 한껏 멋을 부린 흑인 셋, 사내놈 둘에 아가씨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들이 거만하게 우리와 겨루기라도 하듯 노른자 같은 눈알을 우리 쪽으로 굴려 대는 것을 보고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이 다리를 미끄러지듯 넘어왔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개츠비조차 별로 놀라울 것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요란한 한낮. 선풍기가 시원하게 돌아가는 42번가의 어느 지하 식당에서 나는 점심을 먹으려고 개츠비를 만났다. 바깥 거리의 눈부신 빛에 끔벅거리던 눈이 어둑한 실내에 익고 나서야, 대기실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캐러웨이 씨, 제 친구 울프심 씨입니다."

코가 납작하고 몸집이 작은 유대인 하나가 커다란 머리를 쳐들더니, 양쪽 콧구멍에 무성하게 우거진 털 두 덤불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뒤에야 나는 어둑한 데서 그의 조그만 눈을 찾아냈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딱 한 번 쳐다봤지요." 울프심 씨가 내 손을 열심히 흔들며 말했다. "그러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뭘 하셨는데요?" 내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하지만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던 게 분명했다. 그는 내 손을 놓더니 표정이 풍부한 그 코로 개츠비를 겨누었다.

"내가 캐츠포한테 돈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좋아, 캐츠포. 그놈이 입 다물 때까지는 한 푼도 주지 마.' 그랬더니 그놈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입을 다물었지요."

개츠비가 우리 두 사람의 팔을 하나씩 끼고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울프심 씨는 막 꺼내던 새 문장을 꿀꺽 삼키고 몽유병자처럼 멍하니 딴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이볼로 하시겠습니까?" 수석 웨이터가 물었다.

"여기 이 식당 참 좋은 식당이에요." 울프심 씨가 천장에 그려진, 장로교 신자처럼 얌전한 님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길 건너가 더 좋아요!"

"네, 하이볼로 주세요." 개츠비가 웨이터에게 대답하고는 울프심 씨에게 말했다. "거긴 너무 덥잖아요."

"덥고 좁지요. 그래요." 울프심 씨가 말했다. "그래도 추억이 가득해요."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물었다.

"옛날 메트로폴 말입니다."

"옛날 메트로폴." 울프심 씨가 침울하게 곱씹었다. "죽고 없는 얼굴들로 가득하지요. 이제 영영 가 버린 친구들로 가득하고요. 놈들이 거기서 로지 로젠탈[3]을 쏜 그 밤은 내가 살아 있는 한 못 잊어요. 그 식탁에 우리가 여섯 사람이었는데, 로지는 저녁 내내 먹기를 많이 먹고 마시기를 많이 마셨어요. 거의 아침이 됐을 때 웨이터가 묘한 얼굴을 하고 로지한테 오더니 말해요, 밖에서 누가 좀 보자고 한다고. '알았어.' 로지가 그러고는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로지를 의자에 도로 끌어 앉혔지요.

"'그 개자식들이 너를 원하면 이리로 들어오라고 해, 로지. 하지만 너는, 하느님께 맹세코, 이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돼.'

"그게 새벽 네 시였어요. 블라인드만 걷었어도 날이 밝은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어요?"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갔지요, 물론." 울프심 씨의 코가 분개한 듯 나를 향해 번뜩였다. "문간에서 돌아서더니 말해요. '저 웨이터가 내 커피 못 치우게 해!' 그러고는 보도로 나갔는데, 놈들이 잔뜩 부른 그 배에다 총을 세 방 쏘고 차를 몰고 가 버렸어요."

"그중 네 명이 전기의자에서 처형됐지요." 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베커까지 치면 다섯이지요." 그의 콧구멍이 흥미롭다는 듯 내 쪽을 향했다. "사업 거넥션[4]을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두 마디가 나란히 붙어 나오니 섬뜩했다. 개츠비가 나 대신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그가 소리쳤다. "이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울프심 씨는 실망한 눈치였다.

"그냥 친구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례했습니다." 울프심 씨가 말했다. "내가 사람을 틀렸네요."

먹음직스러운 다진 고기 요리가 나오자, 울프심 씨는 옛 메트로폴의 감상적인 분위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납도록 얌전하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눈은 아주 천천히 식당 안을 빙 둘러 훑었는데, 마지막에는 몸을 돌려 바로 뒤에 앉은 사람들까지 살펴보고서야 반원을 마저 그렸다. 내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 식탁 밑까지 한 번 짧게 들여다보았으리라 싶다.

"저,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침에 차 안에서 제가 기분을 좀 상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 미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넘어가지 않고 버텼다.

"저는 수수께끼 같은 건 질색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왜 터놓고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든 걸 꼭 베이커 양을 거쳐야 하죠?"

"아,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아시다시피 베이커 양은 대단한 운동선수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사람이지요."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시계를 보고 벌떡 일어나 서둘러 자리를 떴고, 식탁에는 나와 울프심 씨만 남았다.

"전화를 해야 해서요." 울프심 씨가 눈으로 그를 좇으며 말했다. "좋은 친구지요, 안 그래요? 보기에 잘생겼고 완벽한 신사고요."

"그렇네요."

"오그스퍼드[5] 사람이에요."

"아!"

"영국에 있는 오그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오그스퍼드 대학 알아요?"

"들어 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 하나지요."

"개츠비 씨하고는 오래 알고 지내셨어요?" 내가 물었다.

"몇 년 됐지요." 그가 흐뭇한 투로 대답했다. "전쟁 끝나고 바로 그 사람하고 알게 되는 기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얘기해 보고 알았지요, 내가 혈통 좋은 사람을 하나 찾아냈구나 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집에 데려가서 어머니하고 누이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커프스단추를 보고 계시는군요."

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말에 비로소 보았다. 묘하게 낯익은 상아 조각들로 만든 단추였다.

"사람 어금니로는 최상품이에요." 그가 일러 주었다.

"이런!" 나는 단추를 살펴보았다. "아주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그렇죠." 그는 셔츠 소맷부리를 윗옷 소매 속으로 휙 밀어 넣었다. "그래요, 개츠비는 여자 문제에는 아주 조심해요. 친구 마누라는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이 본능적인 신뢰의 대상이 식탁으로 돌아와 앉자, 울프심 씨는 커피를 홱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무 눌러앉아서 눈총받기 전에 두 젊은 양반한테서 이만 도망가야겠어요."

"서두르실 거 없어요, 마이어." 개츠비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울프심 씨가 손을 들어 올렸다. 축복을 내리는 것 같은 손짓이었다.

"참 예의 바르시네요. 하지만 나는 다른 세대 사람이에요." 그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두 분은 여기 앉아서 운동 얘기도 하고, 아가씨들 얘기도 하고, 또 그……" 그는 다시 손을 한 번 휘저어 상상 속의 명사를 채워 넣었다. "나로 말하자면 쉰 살이에요. 더는 두 분께 폐를 끼치지 않겠어요."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그의 비극적인 코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나 싶었다.

"그분은 가끔 몹시 감상적이 되십니다." 개츠비가 설명했다. "오늘이 그 감상적인 날 가운데 하루고요. 뉴욕 바닥에선 꽤 이름난 인물이에요. 브로드웨이의 터줏대감이지요."

"대체 뭐 하는 분인데요? 배우예요?"

"아닙니다."

"치과 의사요?"

"마이어 울프심이요? 아니요, 그분은 도박사입니다." 개츠비는 머뭇거리다가 태연하게 덧붙였다. "1919년에 월드시리즈[6]를 조작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월드시리즈를 조작했다고요?" 내가 되뇌었다.

그 말에 나는 휘청거릴 만큼 놀랐다. 1919년에 월드시리즈가 조작되었다는 건 물론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저 어쩌다 벌어진 일, 피할 수 없이 이어진 어떤 사슬의 끝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한 사람이 오천만 명의 믿음을 갖고 놀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것도 금고를 폭파하는 강도처럼 오로지 그 일 하나에 골몰해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다 그런 일을 하게 됐대요?" 잠시 뒤 내가 물었다.

"그냥 기회를 알아본 거지요."

"그런데 왜 감옥에 안 가 있어요?"

"못 잡아넣습니다, 올드 스포트. 워낙 영리한 분이라서요."

계산은 내가 하겠다고 우겼는데,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가져왔을 때 붐비는 식당 저편으로 톰 뷰캐넌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 같이 가요." 내가 말했다. "인사할 사람이 있어서요."

톰은 우리를 보자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대여섯 걸음 다가왔다.

"어디 처박혀 있었던 거야?" 톰이 반색을 하며 다그쳤다. "네가 전화 한 통 없다고 데이지가 잔뜩 화났어."

"이쪽은 개츠비 씨, 이쪽은 뷰캐넌 씨."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눴고, 개츠비의 얼굴에 처음 보는 굳고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래, 어떻게 지냈어?" 톰이 나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밥을 먹어?"

"개츠비 씨하고 점심 먹었어."

나는 개츠비 씨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는 이미 거기 없었다.

1917년 10월의 어느 날……

(그날 오후, 플라자 호텔 찻집에서 등받이가 꼿꼿한 의자에 꼿꼿이 앉은 채 조던 베이커가 말했다)

……나는 이리저리 볼일을 보러 걸어 다니고 있었어. 반은 보도로, 반은 잔디밭으로. 잔디밭을 걷는 게 더 좋았어. 밑창에 고무 돌기가 박힌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게 말랑한 땅을 꽉꽉 물어 줬거든. 새로 산 체크무늬 치마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조금씩 날릴 때마다 집집마다 앞에 내건 빨갛고 하얗고 파란 깃발들이 빳빳하게 펴지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쯧쯧쯧쯧 혀를 찼지.

깃발 중에 제일 큰 깃발, 잔디밭 중에 제일 넓은 잔디밭은 데이지 페이네 집 거였어. 데이지는 막 열여덟 살이었으니까 나보다 두 살 많았는데, 루이빌의 젊은 아가씨들 가운데 인기가 단연 으뜸이었어. 늘 흰옷을 입고 다녔고, 조그만 흰색 로드스터도 한 대 있었지. 그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렸고, 캠프 테일러의 들뜬 젊은 장교들이 그날 밤 데이지를 독차지할 특권을 달라고 졸라 댔어. "그럼 한 시간만이라도요!"

그날 아침 내가 그 집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데이지의 흰 로드스터가 연석 옆에 서 있었고, 데이지는 처음 보는 중위 하나하고 그 안에 앉아 있었어. 둘이 서로한테 어찌나 푹 빠져 있었던지, 내가 5피트 앞에 이를 때까지 데이지는 나를 못 봤어.

"안녕, 조던." 데이지가 뜻밖에 나를 불렀어. "이리 좀 와 봐."

데이지가 나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게 우쭐했어. 언니들 가운데 내가 제일 동경하던 사람이 데이지였거든. 데이지는 나더러 붕대 만들러 적십자에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 그렇다고 했지. 그럼 오늘은 자기가 못 간다고 거기 좀 전해 줄래? 데이지가 말하는 동안 그 장교는 데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자애라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누가 자기를 그렇게 봐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어. 그게 나한테는 낭만적으로 보여서 그 일을 여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제이 개츠비였어. 그 뒤로 4년 넘게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봤지. 롱아일랜드에서 만나고 나서도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게 1917년이었어. 이듬해쯤에는 나한테도 따라다니는 남자가 몇 생겼고 시합에도 나가기 시작해서 데이지를 자주 보지는 못했어. 데이지는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무리하고 어울렸어. 누구하고든 어울리기라도 할 때 얘기지만. 데이지를 두고 별별 소문이 다 돌았어. 어느 겨울밤에 데이지가 해외로 떠나는 군인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뉴욕에 가겠다고 가방을 싸다가 엄마한테 들켰다는 거야. 결국 못 가게 막혔지만, 그 뒤로 몇 주 동안 식구들하고 말도 안 하고 지냈대. 그다음부터는 군인들하고는 더 어울리지 않고, 평발에 근시라서 아예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동네 청년 몇 명하고만 놀았지.

그다음 해 가을에는 데이지가 다시 명랑해졌어. 예전만큼 명랑했지. 휴전이 되고 나서 사교계에 데뷔했고, 2월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온 남자하고 약혼했다나 봐. 그런데 6월에는 시카고의 톰 뷰캐넌하고 결혼했어. 루이빌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요란하고 성대한 결혼식은 처음이었을 거야. 톰은 전용 객차 네 량에 사람을 백 명이나 싣고 내려와서 뮐바흐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고, 결혼식 전날에는 데이지한테 350,000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어.

난 신부 들러리였어. 결혼 전날 만찬 30분 전에 데이지 방에 들어갔더니, 데이지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더라. 6월의 밤처럼 사랑스러웠어. 그리고 원숭이처럼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었지. 한 손에는 소테른 포도주 병을, 다른 손에는 편지 한 통을 쥐고 있었어.

"추카해 줘어." 데이지가 웅얼거렸어. "술은 한 번도 안 마셔 봤는데, 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래, 데이지?"

정말이지 무서웠어. 여자애가 그러는 건 처음 봤거든.

"자, 얘들아." 데이지는 침대 위에 끌어다 놓은 휴지통을 더듬더니 진주 목걸이를 끄집어냈어. "이거 아래층에 갖고 가서 주인이 누구든

돌려줘. 다들한테 데이지가 맘 바꼈다고 해. 이렇게 말해. '데이지가 맘 바꼈대!'"

그러더니 데이지가 울기 시작했어. 울고 또 울었지. 나는 뛰쳐나가서 데이지 엄마의 하녀를 찾아왔고, 우리는 문을 잠그고 데이지를 찬물 욕조에 집어넣었어. 데이지는 그 편지를 끝내 놓지 않았어. 욕조까지 들고 들어가서 젖은 채로 공처럼 꽉 뭉쳐 쥐고 있다가, 편지가 눈송이처럼 부슬부슬 부서지는 걸 보고서야 비누 접시에 놓아두게 해 주더라.

그런데 데이지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각성제로 암모니아수를 먹이고, 이마에 얼음을 대 주고, 드레스를 다시 입혀 등 뒤의 훅을 채워 줬어. 30분 뒤 우리가 방을 나설 때는 진주 목걸이가 데이지 목에 걸려 있었고, 그 일은 그걸로 끝이었어. 이튿날 다섯 시에 데이지는 몸 한 번 떨지 않고 톰 뷰캐넌하고 결혼해서 남태평양으로 석 달짜리 여행을 떠났어.

둘이 돌아왔을 때 샌타바버라에서 봤는데, 남편한테 저렇게 푹 빠진 여자는 처음 본다 싶었어. 톰이 잠깐만 방을 비워도 데이지는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면서 "톰 어디 갔어?" 하고 물었고, 톰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일 때까지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 모래밭에 앉아 톰의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곤 했지. 손가락으로 톰의 눈두덩을 쓸어 주면서, 헤아릴 길 없이 기쁜 얼굴로 톰을 내려다보면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뭉클했어. 넋을 잃고 보다가 소리 죽여 웃게 되는 그런 광경이었지. 그게 8월이었어. 내가 샌타바버라를 떠나고 일주일 뒤에 톰이 어느 날 밤 벤투라 도로에서 짐마차를 들이받아 차 앞바퀴 하나가 뜯겨 나갔어. 같이 타고 있던 여자도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덩달아 신문에 났는데, 샌타바버라 호텔의 객실 하녀였어.

이듬해 4월에 데이지가 딸을 낳았고, 둘은 일 년 동안 프랑스에 가 있었어. 어느 봄에는 칸에서, 나중에는 도빌에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러고는 시카고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지. 데이지가 시카고에서 인기가 좋았던 건 너도 알 거야. 둘은 노는 물이 빠른 사람들, 하나같이 젊고 돈 많고 막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데이지는 그 속에서도 흠 하나 없는 평판을 지키고 나왔어.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도 몰라. 술꾼들 틈에서 술을 안 마시면 아주 유리하거든. 입조심을 할 수 있고, 게다가 자기가 벌이는 자잘한 일탈도 딴 사람들이 다 눈이 멀도록 취해서 보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쓸 때로 골라 맞출 수 있으니까. 어쩌면 데이지는 연애 놀음 같은 건 아예 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한 6주 전에, 데이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츠비라는 이름을 들은 거야. 내가 너한테, 기억나? 웨스트에그에 사는 개츠비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말이야. 네가 집에 가고 나서 데이지가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깨우더니 "무슨 개츠비?" 하고 물었어.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 사람 생김새를 설명해 줬더니, 데이지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목소리로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더라. 그제야 나도 이 개츠비와 데이지의 흰 차에 앉아 있던 그 장교를 연결 지었어.

조던 베이커가 이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우리는 플라자를 나선 지 30분이 지나 마차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해는 웨스트사이드 50번대 거리에 늘어선 영화배우들의 높은 아파트 뒤로 넘어갔고, 벌써 귀뚜라미처럼 풀밭에 모여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무더운 어스름 속으로 피어올랐다.

"나는야 아라비아의 족장, 그대 사랑은 나의 것. 그대 잠든 밤이면 그대 천막으로 살금살금 숨어들리라……"

"묘한 우연이네." 내가 말했다.

"근데 우연이 아니었어. 전혀."

"왜?"

"개츠비는 데이지를 물길 바로 건너편에 두려고 그 집을 산 거야."

그렇다면 그 6월의 밤, 그가 우러러 바라던 것은 그저 별만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 없는 화려함이라는 자궁에서 느닷없이 태어나, 비로소 내게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개츠비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말이야." 조던이 말을 이었다. "네가 언제 오후에 데이지를 너희 집에 초대하고 나서 자기를 건너오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 부탁이 너무도 소박해서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5년을 기다렸고, 지나가는 나방들에게 별빛을 나누어 주는 대저택까지 샀는데, 그게 다 어느 날 오후 남의 집 정원으로 '건너오기' 위해서였다니.

"그렇게 사소한 부탁 하나 하려고 내가 이걸 다 알아야 했던 거야?"

"겁이 나는 거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네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 있잖아, 그 모든 걸 걷어 내고 보면 그 사람 영락없는 건달이거든."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럼 왜 너한테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집을 데이지한테 보여 주고 싶은 거야." 조던이 설명했다. "그런데 네 집이 바로 옆이잖아."

"아!"

"내 생각엔 개츠비는 어느 날 밤 데이지가 자기 파티에 어쩌다 흘러들어 오지 않을까 반쯤은 기대했던 것 같아." 조던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데이지는 끝내 오지 않았지. 그러자 사람들한테 데이지를 아느냐고 슬쩍슬쩍 묻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걸려든 게 나였어. 그

사람이 파티에서 나를 따로 불러낸 게 바로 그날 밤이야. 본론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공들여 뜸을 들였는지 네가 들었어야 했는데. 물론 나는 당장 뉴욕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치는 줄 알았어.

"'격에 어긋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그러더라. '바로 옆집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가 톰하고 각별한 친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예 그 계획을 통째로 접으려고 하더라고. 톰에 대해서는 잘 몰라. 혹시 데이지 이름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몇 년 동안 시카고 신문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날이 어두웠다. 작은 다리 밑으로 마차가 쑥 내려갈 때 나는 조던의 금빛 어깨에 팔을 둘러 끌어당기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갑자기 나는 더는 데이지와 개츠비를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만사에 대한 회의를 밑천 삼아 살면서, 내 팔이 두른 테두리 안에 딱 들어오게 경쾌하게 몸을 기댄 이 깨끗하고 단단하고 한계가 뚜렷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머리가 어찔해지는 흥분 같은 것과 함께 어떤 구절 하나가 내 귓속에서 고동치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쁜 자와 지친 자밖에 없다.'

"그리고 데이지한테도 인생에 뭔가 있어야지." 조던이 나에게 중얼거렸다.

"데이지도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해?"

"데이지는 몰라야 돼. 개츠비는 데이지가 아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그냥 데이지를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어두운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늘어선 곳을 지났다. 그러자 여리고 창백한 빛이 한 블록을 가득 채운 59번가의 건물들이 공원 안으로 환한 빛을 내리비추었다. 개츠비나 톰 뷰캐넌과 달리 나에게는

어두운 처마 끝과 눈부신 간판들을 따라 몸 없는 얼굴이 떠다니는 여자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두 팔에 힘을 주며 곁의 여자를 끌어당겼다. 핏기 없는, 비웃는 듯한 입이 미소를 지었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더 가까이, 이번에는 내 얼굴까지 끌어당겼다.

---

1.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1847~1934).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지휘한 원수로,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적국 독일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2. 이 명단에 나오는 이름 상당수는 동물·식물·물고기 이름을 비튼 것이다.

3. 실존 도박업자 허먼 로젠탈(Herman Rosenthal)을 가리킨다. 경찰과 도박판의 뒷거래를 폭로하려다가 1912년 7월 뉴욕 호텔 메트로폴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뉴욕 경찰 간부 찰스 베커와 총잡이 네 명이 전기의자에서 처형되었다.

4. 커넥션(connection), 곧 사업상의 연줄을 울프심은 억양이 섞인 발음으로 gonnegtion이라고 한다.

5. 옥스퍼드(Oxford)를 울프심은 Oggsford라고 발음한다.

6.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 여덟 명이 도박꾼들에게 돈을 받고 신시내티 레즈에 일부러 져 준 사건.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불린다. 뒤에서 판을 짜고 돈을 댄 인물로 뉴욕의 거물 도박사 아널드 로스스틴(Arnold Rothstein, 1882~1928)이 지목되었으나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울프심은 로스스틴을 본뜬 인물이다.

5장

그날 밤 웨스트에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잠깐 우리 집에 불이 났나 싶어 겁이 덜컥 났다. 새벽 두 시인데 반도 한 귀퉁이가 통째로 불빛에 휩싸여 이글거렸고, 관목 덤불에 떨어진 그 빛은 현실의 것 같지 않았으며, 길가 전선 위로는 가느다란 반짝임이 길게 늘어져 번득였다.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그게 개츠비의 집이라는 걸 알았다. 탑 꼭대기부터 지하실까지 온통 불이 켜져 있었다.

처음에는 또 파티가 벌어진 줄 알았다. 흥청망청하던 난장판이 어느새 '숨바꼭질'이나 '정어리 통조림'[1] 같은 놀이판으로 바뀌어, 온 집을 활짝 열어 놓고 노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바람이 전선을 흔들 때마다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그 집이 어둠에 대고 눈을 찡긋거리는 것 같았다. 택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데, 개츠비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저택이 꼭 세계 박람회장 같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는 멍하니 제 집 쪽으로 눈을 돌렸다. "방을 몇 군데 들여다보던 참입니다. 코니아일랜드[2]에 가시지요, 올드 스포트. 제 차로요."

"너무 늦었어요."

"그럼 수영장에 한번 풍덩 뛰어드는 건 어떻습니까? 여름 내내 한 번도 써 보질 못했거든요."

"들어가서 자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을 애써 누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베이커 양하고 얘기했어요." 잠시 뒤 내가 말했다. "내일 데이지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차 마시러 오라고 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괜히 번거롭게 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언제가 편하세요?"

"언제가 편하신지는 제가 여쭤야지요." 그가 얼른 내 말을 바로잡았다. "번거롭게 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모레는 어때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마지못한 듯 말했다. "잔디를 좀 깎아 두고 싶은데요."

우리는 둘 다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는데, 덥수룩한 내 잔디밭이 끝나고 더 짙고 말끔하게 가꾼 그의 잔디밭이 펼쳐지는 자리에 칼로 그은 듯한 경계가 나 있었다. 아무래도 내 잔디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가 자신 없이 말하고는 머뭇거렸다.

"며칠 미루시는 게 낫겠어요?" 내가 물었다.

"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말머리를 몇 번이나 꺼냈다 말았다 하며 더듬거렸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저, 올드 스포트, 돈을 많이 버시는 편은 아니지요?"

"많이는 못 벌죠."

그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이었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된다면…… 실은 제가 따로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업이지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생각했는데, 벌이가 그리 많지 않으시다면…… 채권을 파시지요, 올드 스포트?"

"팔아 보려고는 하죠."

"그럼 이 일에 관심이 가실 겁니다. 시간도 별로 안 뺏기고 쏠쏠하게 돈을 만지실 수도 있어요. 마침 좀 은밀한 성격의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와서 보면, 사정만 달랐더라면 그 대화는 내 인생의 고비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제안은 누가 봐도 뻔하게, 그것도 눈치 없이, 내가 해 줄 수고에 대한 대가로 내민 것이어서 나는 거기서 그의 말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요." 내가 말했다. "정말 고맙지만 일을 더 맡을 수는 없겠어요."

"울프심하고 거래하실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점심때 나온 그 '거넥션' 얘기에 내가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는 줄로 아는 게 분명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똑똑히 말해 주었다. 그는 내가 무슨 이야기든 꺼내 주기를 바라며 조금 더 기다렸지만, 나는 딴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장단을 맞춰 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일로 나는 머리가 어질어질할 만큼 들뜨고 행복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걸음 그대로 깊은 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뒤로 개츠비가 코니아일랜드에 갔는지 어쨌는지, 그 집이 요란하게 불을 밝히고 서 있는 동안 몇 시간이나 '방을 들여다보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튿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차 마시러 오라고 청했다.

"톰은 데려오지 마." 내가 미리 일렀다.

"뭐?"

"톰은 데려오지 말라고."

"'톰'이 누군데?" 데이지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약속한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열한 시에 비옷 차림의 남자 하나가 잔디 깎는 기계를 끌고 와서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개츠비 씨가 이 댁 잔디를 깎아 드리라고 자기를 보냈다고 했다. 그제야 핀란드인 가정부에게 다시 나와 달라는 말을 깜빡했다는 게 생각나서, 나는 차를 몰고 웨스트에그 마을로 나가 흰 회칠이 비에 젖어 눅눅한 골목골목을 뒤지며 가정부를 찾고, 찻잔과 레몬과 꽃도 좀 샀다.

꽃은 살 필요가 없었다. 두 시에 개츠비네 집에서 온실 하나가 통째로 건너왔기 때문이다. 그걸 다 담을 그릇도 셀 수 없이 딸려 왔다. 한 시간 뒤 현관문이 조바심치듯 열리더니 흰 플란넬 양복에 은빛 셔츠, 금빛 넥타이 차림의 개츠비가 허둥지둥 들어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거뭇했다.

"다 괜찮습니까?" 그가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잔디 말씀이라면, 보기 좋아요."

"무슨 잔디요?" 그가 멍하니 되물었다. "아, 마당 잔디 말씀이군요." 그는 창밖으로 잔디를 내다보았지만, 그 표정으로 보아 무엇 하나 제대로 보았을 성싶지 않다.

"아주 보기 좋네요." 그가 건성으로 말했다. "어느 신문에서 네 시쯤이면 비가 그칠 거라더군요. 《저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건 다 갖추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 드시는 데 필요한 거요."

나는 그를 식료품실로 데려갔다. 그는 핀란드인 가정부를 조금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델리카트슨에서 사 온 레몬 케이크 열두 개를 둘이서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거면 될까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그러고는 공허하게 덧붙였다. "…… 올드 스포트."

세 시 반쯤 되자 비가 한풀 꺾여 축축한 안개로 바뀌었고, 그 안개 속을 이따금 가느다란 빗방울이 이슬처럼 헤엄쳐 다녔다. 개츠비는 클레이의 《경제학》 한 권을 멍한 눈으로 뒤적였다. 부엌 바닥을 쿵쿵 울리는 핀란드 여자의 발소리에 흠칫 놀라는가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바깥에서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 이따금 뿌옇게 흐린 창 쪽을 기웃거렸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집에 가 봐야겠다고 했다.

"왜요?"

"차 마시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는 어디 딴 데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시계를 보았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이제 겨우 네 시 이 분 전이에요."

그는 풀이 죽어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떠밀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집 앞 샛길로 꺾어 드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둘 다 벌떡 일어났고, 나도 조금 애가 타서 마당으로 나갔다.

물방울이 뚝뚝 듣는 앙상한 라일락 나무 아래로 지붕 없는 커다란 차 한 대가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차가 멈췄다. 라벤더색 삼각모 밑으로 비스듬히 기울인 데이지의 얼굴이 환하고 황홀한 미소를 띠고 나를 내다보았다.

"여기가 정말로 네가 사는 데야, 내 사랑?"

설레게 일렁이는 그 목소리는 빗속에서 들이켜는 짜릿한 강장제였다. 나는 한동안 말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귀로만 그 소리를 따라 오르내려야 했다.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파란 물감을 붓으로 한 번 쓱

그은 것처럼 뺨에 붙어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걸 도우려고 잡은 손에는 반짝이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너 나 사랑하니?" 데이지가 내 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아니면 내가 왜 혼자 와야 했는데?"

"그건 래크렌트 성[3]의 비밀이야. 운전사한테 멀리 가서 한 시간쯤 있다 오라고 해."

"한 시간 있다가 와, 퍼디." 그러고는 심각하게 소곤거렸다. "이름이 퍼디야."

"휘발유가 그 사람 코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아닐걸." 데이지가 천진하게 대답했다. "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이 텅 비어 있어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거참, 우습네."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뭐가 우스운데?"

그때 현관문에서 가볍고 점잖은 노크 소리가 나서 데이지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 보니, 송장처럼 창백한 개츠비가 두 손을 저울추처럼 윗옷 주머니에 푹 찔러 넣은 채 물웅덩이 한가운데 서서 비장하게 내 눈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윗옷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나를 지나 성큼성큼 복도로 들어서더니, 철삿줄에 매달린 것처럼 홱 돌아서서는 거실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우스운 일은 조금도 아니었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를 의식하며, 나는 점점 거세지는 비를 막으려고 문을 당겨 닫았다.

30초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거실에서 목이 멘 듯한 웅얼거림과 웃다 만 소리가 들리더니, 맑지만 꾸민 티가 나는 데이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이지 너무너무 반가워요."

말이 끊겼다. 그 공백이 끔찍하게 오래갔다. 복도에서는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개츠비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벽난로 선반에 기대 있었다. 더없이 느긋한 척, 아니 지루하기까지 한 척 억지로 꾸민 자세였다. 머리를 어찌나 뒤로 젖혔던지 벽난로 선반에 놓인 고장 난 시계의 문자판에 뒤통수가 닿아 있었고, 그 자세로 넋 나간 눈을 하고 데이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딱딱한 의자 끝에 겁먹은 채로, 그러나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개츠비가 중얼거렸다. 눈길이 잠깐 내 쪽을 스쳤고, 입술이 벌어지며 웃으려다 말았다. 다행히 시계가 때마침 바로 그 순간을 골라 그의 머리에 밀려 위태롭게 기울어졌고, 그는 얼른 돌아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붙잡아 제자리에 도로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뻣뻣하게 앉아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괴고 손으로 턱을 받쳤다.

"시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는 내 얼굴까지 열대의 뙤약볕에 덴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머릿속에 흔해 빠진 인사말이 천 개는 들어 있었건만 하나도 끌어낼 수가 없었다.

"오래된 시계예요." 나는 바보처럼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

잠깐이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고 믿었던 것 같다.

"우리 몇 년 동안 못 만났죠." 데이지가 말했다. 그 목소리로서는 더없이 사무적인 투였다.

"오는 11월이면 5년이에요."

개츠비의 대답이 기계처럼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적어도 1분은 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부엌에 가서 차 끓이는 걸 좀 거들어 달라고 필사적으로 제안해 두 사람을 겨우 일으켜 세웠는데, 바로 그때 악마 같은 핀란드인 가정부가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찻잔과 케이크가 오가는 반가운 북새통 속에서 겉모양만큼은 그럭저럭 점잖게 자리가 잡혔다. 개츠비는 그늘진 구석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는, 데이지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긴장한, 불행한 눈으로 우리 둘을 꼬박꼬박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평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나는 틈이 나자마자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개츠비가 대번에 겁먹은 얼굴로 다그쳤다.

"금방 올게요."

"가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비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맙소사!"

"왜 그러세요?"

"이건 끔찍한 실수입니다." 그가 고개를 이리저리 저으며 말했다. "끔찍한, 정말 끔찍한 실수예요."

"그냥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덧붙였다. "데이지도 어색해해요."

"데이지가 어색해한다고요?" 그가 못 믿겠다는 듯 되뇌었다.

"딱 개츠비 씨만큼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꼭 어린애처럼 구시네요." 나는 참다못해 쏘아붙였다. "그뿐이 아니에요. 무례하기까지 하다고요. 데이지 혼자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더니, 잊지 못할 원망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저쪽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30분 전 개츠비가 초조하게 집을 한 바퀴 돌 때 그랬던 것처럼 뒷문으로 나가서, 빽빽하게 우거진 잎이 비를 막는 천막이 되어 주는 옹이투성이의 커다란 검은 나무 밑으로 뛰어갔다. 비는 다시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고, 개츠비네 정원사가 말끔히 깎아 놓은 내 들쭉날쭉한 잔디밭 여기저기에는 자잘한 진흙 수렁과 태곳적 늪지가 즐비했다. 나무 밑에서는 개츠비의 거대한 저택 말고는 볼 것이 없었으므로, 나는 칸트가 교회 첨탑을 바라보듯[4] 30분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10년 전 '시대 양식'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할 무렵 어느 양조업자가 지었는데, 그가 이웃 오두막 주인들에게 지붕을 짚으로 이어 주기만 하면 오두막마다 5년 치 세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계획에 맥이 빠졌는지도 모른다. 양조업자는 그 길로 시름시름 앓아누웠다. 자식들은 문에 검은 근조 화환을 그대로 걸어 둔 채 그 집을 팔아 버렸다. 미국 사람들은 농노 노릇이라면 기꺼이, 아니 안달이 나서라도 하려 들면서도 농투성이 신세만은 언제나 한사코 마다해 왔다.

30분이 지나자 다시 해가 났다. 식료품 가게 배달차가 하인들의 저녁거리를 싣고 개츠비네 진입로를 돌아 들어갔다. 개츠비 본인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하녀 하나가 그 집 위층 창문을 차례로 열기 시작하더니, 창마다 잠깐씩 모습을 드러냈다가 가운데의 커다란 내닫이창에서는 몸을 쑥 내밀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정원에 침을 뱉었다. 이제 돌아갈 때였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그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웅얼거리는 목소리처럼, 이따금 북받치는 감정에 실려 조금씩 높아지고 부풀어 오르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런데

새로 찾아온 고요 속에서, 내 집 안에도 고요가 내려앉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난로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만 빼고는 낼 수 있는 소리란 소리는 다 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다. 두 사람은 소파 양 끝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물었거나, 아니면 물음 하나가 아직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어색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데이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츠비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환호하는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없이도 새로운 행복감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아, 안녕하십니까, 올드 스포트." 그는 몇 년 만에 나를 보는 사람처럼 말했다. 잠깐은 그가 악수라도 청할 줄 알았다.

"비가 그쳤어요."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방 안에 햇살이 작은 방울처럼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그는 기상 예보관처럼, 되돌아오는 빛의 황홀한 후원자처럼 미소 지으며 그 소식을 데이지에게 다시 전했다. "어때요? 비가 그쳤대요."

"기뻐요, 제이." 아리고 서러운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목청은 뜻밖에 찾아온 기쁨만을 이야기했다.

"데이지하고 같이 저희 집에 건너오셨으면 합니다." 그가 말했다. "데이지한테 집 구경을 시켜 주고 싶어서요."

"정말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요, 올드 스포트."

데이지는 세수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고(그제야 내 집 수건 꼴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동안 개츠비와 나는 잔디밭에 나가 기다렸다.

"저희 집, 보기 좋지요?"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집 앞면 전체가 햇빛을 받는 것 좀 보십시오."

나는 근사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요." 그의 눈이 아치형 문 하나하나, 네모난 탑 하나하나를 훑었다. "저 집 살 돈을 버는 데 딱 3년 걸렸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으신 줄 알았는데요."

"물려받았지요, 올드 스포트." 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큰 공황 때 거의 다 날렸습니다. 전쟁 공황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건 제 사정입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으니까.

"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바로잡았다. "약품 사업을 하다가 석유 사업을 했지요. 지금은 둘 다 안 합니다만." 그가 좀 더 유심히 나를 보았다. "그럼 요전 날 밤 제가 드린 제안을 생각해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데이지가 집에서 나왔다. 드레스에 두 줄로 달린 놋쇠 단추가 햇빛에 반짝였다.

"저기 저 커다란 집이요?" 데이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서 어떻게 혼자 사는지 모르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늘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두지요. 재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름난 사람들이요."

우리는 해협을 따라 난 지름길로 가지 않고 큰길로 내려가서 커다란 샛문으로 들어갔다. 데이지는 매혹적인 목소리로 소곤소곤 감탄을 늘어놓았다. 하늘을 등지고 선 봉건 시대 성 같은 윤곽의 이쪽저쪽에 감탄했고, 정원에 감탄했고, 노랑수선화의 반짝이는 향기와 산사나무꽃과 자두꽃의 거품 같은 향기와 '대문 앞 입맞춤(kiss-me-at-the-gate)'의 옅은 금빛 향기에 감탄했다. 대리석 계단에 이르렀는데도 화사한 드레스들이 문을 드나드는 기척 하나 없고 나무에서 우는 새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기분이 묘했다.

안으로 들어가 마리 앙투아네트풍 음악실과 왕정복고풍 살롱을 이리저리 거니는 동안, 소파와 탁자 뒤마다 손님들이 몸을 감춘 채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개츠비가 '머튼 칼리지 도서관'[5]이라 부르는 서재의 문을 닫을 때는 부엉이 눈 사내가 유령처럼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장밋빛과 라벤더색 비단을 휘감고 갓 꽂은 꽃으로 화사한 시대 양식의 침실들을 지나고 옷방과 당구실과 바닥에 욕조를 파묻은 욕실들을 지났다. 그러다 어느 방에 불쑥 들어가게 되었는데, 잠옷 바람에 머리가 부스스한 남자가 바닥에서 간에 좋다는 체조를 하고 있었다. '하숙생' 클립스프링어 씨였다. 그날 아침 그가 굶주린 얼굴로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개츠비가 쓰는 방들에 이르렀다. 침실과 욕실, 그리고 애덤 양식[6]의 서재였다. 우리는 서재에 앉아 그가 벽장에서 꺼낸 샤르트뢰즈를 한 잔씩 마셨다.

그는 한순간도 데이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그 눈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새로 값을 매기고 있었던 것 같다. 이따금 넋이 나간

듯 제 소유물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데이지가 정말로, 놀랍게도 눈앞에 와 있으니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더는 진짜가 아니라는 듯이. 한번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의 침실은 모든 방 가운데 가장 수수했다. 광택을 죽인 순금 화장 도구 한 벌로 꾸민 화장대만 빼면. 데이지는 신이 나서 머리빗을 집어 들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자 개츠비는 털썩 앉더니 손으로 눈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이거 참 우스운 일이네요, 올드 스포트." 그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그는 눈에 보이게 두 단계를 거쳐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당혹감과 까닭 모를 기쁨을 지나, 이제는 데이지가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경이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너무도 오랫동안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꿈을 끝의 끝까지 꾸었으며, 말하자면 이를 악문 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기다려 왔다. 이제 그 반동으로, 태엽을 너무 감은 시계처럼 기운이 풀려 가고 있었다.

잠시 뒤 정신을 추스른 그는 특허품이라는 커다란 옷장 두 개를 우리 앞에서 열어젖혔다. 옷장 안에는 양복과 실내복과 넥타이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셔츠는 열두 장씩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영국에 제 옷을 사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 시작될 때마다,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이것저것 골라서 보내 주지요."

그는 셔츠 한 무더기를 꺼내더니 우리 앞으로 한 장씩 던지기 시작했다. 얇은 리넨과 두툼한 실크와 고운 플란넬로 지은 셔츠들이 떨어지면서 접힌 자리가 스르르 풀렸고, 탁자는 형형색색으로 어지럽게 뒤덮여 갔다. 우리가 감탄하는 사이 그는 더 가져왔고, 부드럽고 호사스러운 더미는 점점 높아졌다. 산호색, 풋사과 같은 연둣빛, 라벤더색, 옅은 주황색 바탕에 줄무늬며 당초무늬며 격자무늬가

들어가고, 쪽빛 실로 머리글자를 수놓은 셔츠들이었다. 갑자기 데이지가 목멘 소리를 내더니 셔츠 더미에 얼굴을 묻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셔츠가 너무 아름다워요." 데이지가 흐느꼈다. 두툼한 천 더미에 파묻힌 목소리가 먹먹했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슬퍼요."

집 안을 다 보고 나면 정원과 수영장과 수상 비행기와 한여름 꽃들을 볼 참이었다. 그런데 개츠비의 창밖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잔물결로 주름진 해협의 수면을 바라보았다.

"안개만 아니면 물길 건너 당신 집이 보일 텐데요." 개츠비가 말했다. "당신 집 선착장 끝에는 늘 밤새도록 초록 불빛이 켜져 있지요."

데이지가 불쑥 개츠비의 팔에 제 팔을 끼웠다. 그러나 그는 방금 자기가 한 말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불빛이 지녔던 거대한 의미가 이제 영영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그 불빛은, 자신과 데이지를 멀리 갈라놓았던 그 아득한 거리에 비하면 데이지에게 아주 가까이, 거의 닿을 듯이 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달 곁의 별만큼이나 가까워 보였다. 이제 그것은 다시 선착장에 켜진 초록 불빛 하나였다. 그가 헤아리던 마법의 물건이 하나 줄었다.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어스름 속에서 뭔지 모를 물건들을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책상 위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끌었다. 요트 복장을 한 나이 지긋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이분은 누구예요?"

"그거요? 댄 코디 씨입니다, 올드 스포트."

어렴풋이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서랍장 위에는 역시 요트 복장을 한 개츠비의 작은 사진이 있었다. 도전하듯 고개를 뒤로 젖힌 개츠비였는데, 열여덟 살쯤에 찍은 것 같았다.

"너무 좋아요!" 데이지가 탄성을 질렀다. "이 퐁파두르 머리 좀 봐요! 퐁파두르 머리를 했었다는 얘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요트 얘기도요."

"이것 좀 봐요." 개츠비가 얼른 말했다. "여기 오려 둔 기사가 잔뜩 있어요. 전부 당신 기사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걸 들여다보았다. 루비를 보여 달라고 청하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고, 개츠비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저,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올드 스포트…… 작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작은 도시가 뭔지는 알아야지요…… 디트로이트를 작은 도시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

"빨리 이리 와 봐요!" 창가에서 데이지가 외쳤다.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지만 서쪽 하늘에서는 어둠이 갈라져 있었고, 바다 위로는 분홍빛과 금빛 구름이 거품처럼 뭉게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저것 좀 봐요." 데이지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잠시 뒤에 말했다. "저 분홍 구름 하나를 가져다가 당신을 태우고 이리저리 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때 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한사코 말렸다. 어쩌면 내가 곁에 있어서 둘만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흡족했는지도 모른다.

"좋은 수가 있어요." 개츠비가 말했다. "클립스프링어한테 피아노를 치게 하지요."

그는 "유잉!" 하고 부르며 방을 나가더니, 몇 분 뒤 쑥스러워하는 젊은 남자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조금 초췌해 보이는 남자로, 대모테 안경을 썼고 금발 머리숱이 성겼다. 이제는 목 단추를 끌러 놓은 '스포츠 셔츠'에 운동화, 무슨 색이라 하기 어려운 흐리멍덩한 빛깔의 즈크 바지로 그럭저럭 점잖게 차려입고 있었다.

"저희가 운동하시는 걸 방해했나요?" 데이지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자고 있었습니다!" 클립스프링어 씨가 쩔쩔매며 외쳤다. "그러니까, 자다가요. 그러다 일어났는데……"

"클립스프링어는 피아노를 칩니다." 개츠비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렇죠, 유잉, 올드 스포트?"

"잘은 못 칩니다. 저는…… 거의 못 쳐요. 연습을 통 안 해서 손이 다 굳……"

"아래층으로 가지요." 개츠비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가 스위치를 탁 올리자 온 집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잿빛 창문들이 사라졌다.

음악실에서 개츠비는 피아노 옆의 램프 하나만 켰다. 그는 떨리는 성냥불로 데이지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고, 복도에서 들어온 빛이 반들거리는 마룻바닥에 되튀어 오르는 것 말고는 아무 불빛도 없는 방 저편 멀찍한 소파에 데이지와 함께 앉았다.

클립스프링어는 '사랑의 보금자리(The Love Nest)'[7]를 치고 나서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개츠비를 찾아 처량하게 두리번거렸다.

"보시다시피 연습을 통 안 해서 손이 다 굳었어요. 못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습을 통 안 해서 손이 다 굳……"

"말이 너무 많아요,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명령했다. "치기나 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신나지 않나요……"[8]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요란했고, 해협을 따라 희미한 천둥소리가 흘러갔다. 이제 웨스트에그에는 불이란 불이 다 켜지고 있었고, 사내들을 가득 실은 전철이 뉴욕을 떠나 빗속을 뚫고 집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사람살이가 깊숙이 뒤바뀌는 시간이었고, 공기 속에서는 흥분이 일고 있었다.

"하나는 확실해, 그보다 확실한 건 없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애만 늘지. 그러는 동안에, 그 틈틈이……"

작별 인사를 하러 다가가다가 나는 개츠비의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누리는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두고 희미한 의심이 스치기라도 한 듯한 얼굴이었다. 거의 5년!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의 꿈에 못 미쳐 떨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데이지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환상이 지닌 어마어마한 생명력 때문에. 환상은 데이지를 넘어섰고, 모든 것을 넘어섰다. 그는 창조의 열정으로 그 환상에 몸을 던졌고, 쉬지 않고 보태고 또 보태며, 제 쪽으로 날려 오는 반짝이는 깃털이란 깃털은 모조리 가져다 그것을 치장했다. 한 사내가 유령 같은 제 마음속에 쌓아 둘 수 있는 것에는 어떤 불길도, 어떤 싱그러움도 맞서지 못한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개츠비는 조금, 그러나 눈에 띄게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는 데이지의 손을 잡았고, 데이지가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나직이 말하자 북받치는 감정에 휩싸여 데이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엇보다 그를 붙든 것은 열에 들뜬 듯 오르내리며 따스하게 떨리는 그 목소리였던 것 같다. 아무리 꿈꾸어도 꿈이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었으니까. 그 목소리는 죽지 않는 노래였다.

두 사람은 나를 잊고 있었다. 그래도 데이지는 고개를 들어 손을 내밀었다. 개츠비는 이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한 번 더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도 나를 마주 보았다. 아득한 눈길로, 강렬한

삶에 사로잡힌 채. 그러고 나서 나는 방을 나와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두 사람을 거기 함께 남겨 둔 채.

---

1. 숨바꼭질을 거꾸로 하는 놀이. 한 사람이 숨으면 나머지가 찾아다니다가, 찾아낸 사람은 차례로 그 자리에 함께 숨는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통조림 속 정어리처럼 한데 끼어 있게 된다.

2. 뉴욕 브루클린 남쪽 끝의 바닷가 유원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놀이 시설로 이름났다.

3. 아일랜드 작가 마리아 에지워스(Maria Edgeworth)가 1800년에 낸 소설 《래크렌트 성(Castle Rackrent)》. 아일랜드의 한 지주 가문이 대를 이어 몰락해 가는 이야기다.

4.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생각에 잠길 때면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첨탑에 눈을 두었다고 한다. 이웃집 나무가 자라 첨탑을 가리자 그 나무를 잘라 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5. 머튼 칼리지(Merton College)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칼리지 가운데 하나로, 그 도서관은 영국에서 손꼽히게 오래된 대학 도서관이다.

6. 18세기 영국 건축가 로버트 애덤(Robert Adam, 1728~1792)이 유행시킨 신고전주의 실내 장식 양식.

7. 1920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리(Mary)'에 나와 크게 유행한 노래.

8. 1921년의 유행가 'Ain't We Got Fun'(우리 신나지 않나요)의 한 대목. 리처드 A. 화이팅이 곡을 쓰고 거스 칸과 레이먼드 B. 이건이 가사를 붙였다. 돈은 없어도 즐겁게 사는 젊은 부부를 노래한다.

6장

이 무렵 어느 날 아침, 뉴욕에서 온 야심만만한 젊은 기자 하나가 개츠비의 집 문 앞에 나타나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라니, 무엇에 관해서 말입니까?" 개츠비가 정중하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뭐든 발표하실 성명 같은 거요."

영문 모를 5분이 지나고서야 드러난 바로는, 그 남자는 신문사에서 오가는 말 가운데 개츠비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 무슨 일과 엮여서 나온 이름인지는 밝히려 들지 않았거나 본인도 잘 몰랐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데도 그는 갸륵하게 제 발로 나서서 '한번 보려고' 부리나케 달려온 참이었다.

되는대로 찔러본 셈이었지만 기자의 직감은 옳았다.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는 그것만으로 그의 과거에 관한 권위자가 되어 버린 수백 명이 여기저기 퍼뜨린 탓에, 개츠비의 악명은 여름 내내 불어나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신문에 날 판이었다. '캐나다로 통하는 지하 파이프라인'[1] 같은 당대의 전설들이 그에게 들러붙었고, 그가 실은 집이 아니라 집처럼 생긴 배에 살면서 롱아일랜드 해안을 따라 몰래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도 끈질기게 떠돌았다.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이 노스다코타의 제임스 개츠에게 왜 흐뭇한 일이었는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제임스 개츠. 그것이 그의 진짜 이름, 적어도 법적인 이름이었다. 이름을 바꾼 것은 열일곱 살 때, 그것도 그의 출세가 첫발을 떼는 것을

지켜본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슈피리어호에서 가장 음흉한 모래톱 위에 댄 코디의 요트가 닻을 내리는 광경을 본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찢어진 초록색 저지에 캔버스 바지 차림으로 호숫가를 어슬렁거리던 사람은 제임스 개츠였지만, 노 젓는 배를 빌려 요트 투올로미호까지 저어 가서 바람이라도 한 번 들이치면 30분 안에 배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다고 코디에게 알려 준 사람은 이미 제이 개츠비였다.

내 생각에 그 이름은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부모는 게으르고 변변찮은 농사꾼이었는데, 그의 상상력은 한 번도 그들을 제 부모로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사실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의 제이 개츠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플라톤적 관념에서 솟아났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다면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그러니 그는 아버지의 일[2]을 해야 했다. 거대하고 속되며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을 섬기는 일을. 그래서 열일곱 살 소년이 지어낼 법한 딱 그런 제이 개츠비를 지어냈고, 그 관념에 끝까지 충실했다.

일 년 넘게 그는 슈피리어호 남쪽 기슭을 따라 떠돌며 조개를 캐거나 연어를 잡거나, 그 밖에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살았다. 볕에 그을려 단단해져 가는 몸은 반은 사납고 반은 느긋한 그 상쾌한 나날의 노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갔다. 일찍 여자를 알았으나 여자들이 떠받들어 버릇을 망쳐 놓는 바람에 도리어 여자를 경멸하게 되었는데, 어린 처녀들은 뭘 몰라서였고 나머지 여자들은 그가 걷잡을 수 없는 자기도취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을 두고 호들갑을 떨어서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늘 거센 소요가 일었다. 밤이면 잠자리까지 더없이 기괴하고 황당한 공상들이 따라붙었다. 세면대 위에서 시계가 째깍거리고 바닥에 뒤엉켜 널린 옷가지를 달이 젖은 빛으로 흠뻑 적시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이 현란한 우주 하나가 저절로 실을 자아내듯 풀려 나왔다. 밤마다 그 공상의 무늬에 무언가를 덧대다 보면 이윽고 졸음이 어느 선명한 장면 위로 내려앉아 그 장면을 망각의 품에 끌어안았다. 한동안 이런 몽상은 그의 상상력이 빠져나갈 숨구멍이 되어 주었으니, 현실이란 실은 현실이 아니라는 흡족한 암시였고 세상이라는 반석이 요정의 날개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약속이었다.

장차 누릴 영광을 향한 본능에 이끌려, 그는 몇 달 전 미네소타 남부의 작은 루터교 대학인 세인트올라프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보낸 2주 동안 그는 그 학교가 제 운명의 북소리에, 아니 운명 그 자체에 사납도록 무관심한 데 낙담했고, 학비를 벌려고 떠맡은 청소부 일을 경멸했다. 그러고는 다시 슈피리어호로 흘러 돌아왔고, 댄 코디의 요트가 기슭 가까운 얕은 물에 닻을 내린 그날에도 여전히 할 일을 찾고 있었다.

그때 코디는 쉰 살이었다. 네바다의 은광이, 유콘이, 1875년 이래 금속을 좇아 일어난 온갖 광풍이 빚어낸 사내였다. 몬태나 구리를 사고팔아 몇 곱절의 백만장자가 되었을 무렵에는 몸은 튼튼했지만 정신은 흐리멍덩해지기 직전이었고, 이를 눈치챈 셀 수 없이 많은 여자가 그의 돈을 우려내려 들었다. 신문기자 엘라 케이는 코디의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 맹트농 부인[3] 노릇을 하다가 끝내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다. 그리 향기롭지 못한 그간의 곡절은 1902년, 부풀리기 좋아하는 신문들 덕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지나치게 손님을 반기는 해안들을 따라 5년째 떠돌던 코디가 리틀걸만(Little Girl Bay)에 제임스 개츠의 운명으로 나타났다.

노를 쉬며 난간을 두른 갑판을 올려다보는 젊은 개츠에게, 그 요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이었다. 짐작건대 그는 코디를 보고 웃었을 것이다. 자기가 웃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그즈음에는 이미

알아냈을 테니까. 아무튼 코디는 몇 가지를 물었고(그 가운데 한 질문이 갓 지은 그 이름을 끌어냈다), 이 젊은이가 눈치 빠르고 야심이 터무니없이 크다는 걸 알았다. 며칠 뒤 코디는 그를 덜루스로 데려가 파란 윗옷 한 벌과 흰 즈크 바지 여섯 벌, 요트 모자 하나를 장만해 주었고, 투올로미호가 서인도 제도와 바버리 해안[4]을 향해 떠날 때 개츠비도 함께 떠났다.

그는 이렇다 할 직함 없이 코디 개인에게 고용된 몸이라, 코디 곁에 있는 동안 사무장, 항해사, 선장, 비서, 심지어 간수 노릇까지 번갈아 맡았다. 술 깬 댄 코디는 술 취한 댄 코디가 머지않아 무슨 흥청망청한 짓을 벌일지 알았으므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개츠비를 점점 더 믿고 의지했다. 이 관계는 5년 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배는 대륙을 세 바퀴 돌았다.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엘라 케이가 배에 오르고 일주일 뒤 댄 코디가 주인 된 도리도 없이 덜컥 죽어 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관계는 한없이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개츠비의 위층 침실에 걸려 있던 코디의 초상을 나는 기억한다. 머리가 희끗하고 혈색이 불콰한 데다 굳고 텅 빈 얼굴을 한 그 사내는, 미국이 지나온 어느 한 시기에 변경의 사창가와 술집에 들끓던 야만스러운 폭력을 동부 해안으로 도로 실어 온 개척 시대의 난봉꾼이었다. 개츠비가 술을 그토록 조금 마신 것도 따지고 보면 코디 때문이었다. 흥청대는 파티가 무르익으면 여자들이 개츠비의 머리칼에 샴페인을 문질러 바르는 일이 이따금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술을 멀리하는 버릇을 들였다.

그리고 그가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코디에게서였다. 25,000달러였다. 그러나 그 돈을 받지는 못했다. 자기를 겨냥해 쓰인 법률상의 술수가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수백만 달러 가운데 남은 돈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에게 넘어갔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기막히게도

제격인 교육이었고, 제이 개츠비의 막연한 윤곽에는 어느새 살이 올라 한 사람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었다.

개츠비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의 내력을 두고 처음 떠돌던, 털끝만큼도 사실이 아닌 그 터무니없는 소문들을 깨뜨려 놓고 싶어서 여기에 적어 둔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내가 혼란에 빠져 있던 때, 그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 믿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 무렵이었다. 그래서 개츠비가 말하자면 한숨 돌리던 이 짧은 멈춤을 틈타 이런 오해들을 치워 두려 한다.

내가 그의 일에 얽혀 들던 것도 그 무렵 잠시 멈추었다. 몇 주 동안 나는 개츠비를 보지도, 전화로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대개 뉴욕에서 조던과 이리저리 쏘다니며 노망기가 든 조던의 고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일요일 오후 그의 집에 건너갔는데, 도착한 지 2분도 안 되어 누군가가 한잔하자며 톰 뷰캐넌을 데리고 들어왔다. 당연히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건 그런 일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말을 타고 온 일행은 세 사람이었다. 톰과 슬론이라는 남자, 그리고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는데, 여자는 전에도 그 집에 와 본 적이 있었다.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현관 앞에 선 개츠비가 말했다. "이렇게 들러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인사에 신경이나 썼을까!

"어서 앉으십시오. 담배나 시가 태우시지요." 그는 부지런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벨을 눌러 댔다. "마실 것을 금방 내오겠습니다."

톰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몹시 동요했다. 그러나 톰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온 목적이 그것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므로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마음을 놓지 못했을 것이다. 슬론 씨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레모네이드라도? 아니요, 됐습니다. 샴페인 조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오시는 길은 즐거우셨습니까?"

"이 근방은 길이 아주 좋더군요."

"아무래도 자동차들이……"

"그렇죠."

개츠비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방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소개를 받은 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전에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뷰캐넌 씨."

"아, 그럼." 톰은 무뚝뚝하게나마 예의를 차려 말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뻔했다. "만났었지. 아주 잘 기억하고말고."

"2주쯤 전에요."

"맞아. 여기 닉하고 같이 있었지."

"부인을 압니다." 개츠비가 거의 공격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

톰이 나를 돌아보았다.

"이 근처 살아, 닉?"

"바로 옆집이야."

"그래?"

슬론 씨는 대화에 끼지 않고 거만하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고 있었고, 여자 역시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하이볼 두 잔을 비우고 나더니 뜻밖에도 살갑게 굴기 시작했다.

"다음 파티에는 우리 다 같이 올게요, 개츠비 씨." 여자가 제안했다. "어때요?"

"물론이지요. 와 주시면 저야 기쁘지요."

"거 좋겠군요." 슬론 씨가 고마운 기색도 없이 말했다. "자…… 슬슬 집에 가 봐야겠는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개츠비가 붙잡았다. 이제 그는 평정을 되찾았고, 톰을 좀 더 보고 싶었다. "저녁이라도……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뉴욕에서 다른 분들이 들를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은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부인이 열성스럽게 말했다. "두 분 다요."

'두 분'에는 나도 들어 있었다. 슬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 여자에게만 한 말이었다.

"진심이에요." 부인이 우겼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리도 넉넉하고요."

개츠비가 어쩔까 묻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가고 싶었고, 슬론 씨가 자기를 못 오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건 알아채지 못했다.

"저는 못 갈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그럼 개츠비 씨는 오세요." 부인이 이번에는 개츠비에게만 공을 들이며 졸랐다.

슬론 씨가 여자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지금 출발하면 안 늦어요." 부인이 들으란 듯 큰 소리로 우겼다.

"저는 말이 없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군대에서는 말을 탔지만 말을 사 본 적은 없어서요. 제 차로 뒤따라가야겠군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남은 우리는 현관으로 걸어 나갔고, 거기서 슬론과 그 부인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친구 정말 올 모양이네." 톰이 말했다. "저 여자가 자기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여자 쪽에서 오라고 하잖아."

"저 여자 집에서 큰 만찬이 있는데, 저 친구는 가 봤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톰이 얼굴을 찌푸렸다. "저 친구가 대체 어디서 데이지를 만난 건지 모르겠군. 정말이지, 내 생각이 구식인지는 몰라도 요즘 여자들은 너무 쏘다녀서 영 마음에 안 들어. 별별 해괴한 놈들을 다 만나고 다닌다니까."

갑자기 슬론 씨와 그 부인이 계단을 내려가 말에 올랐다.

"가자고." 슬론 씨가 톰에게 말했다. "늦었어. 가야 해."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다. "우린 못 기다리고 갔다고 그 사람한테 좀 전해 주겠어요?"

톰과 나는 악수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쌀쌀하게 고개만 까딱했는데, 그들이 빠른 걸음으로 말을 몰아 진입로를 내려가 8월의 무성한 잎 그늘 아래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개츠비가 모자와 얇은 외투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톰은 데이지가 혼자 쏘다니는 게 확실히 마음에 걸렸던 모양으로, 바로 다음 토요일 밤에는 데이지와 함께 개츠비의 파티에 왔다. 그날 저녁 유난히 숨 막히는 기운이 감돌았던 건 어쩌면 톰이 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데, 그해 여름 개츠비가 연 파티들 가운데 그 파티만 유독 기억에 도드라진다. 같은 사람들, 적어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샴페인도 똑같이 넘쳐 났으며, 온갖 빛깔과 온갖 음조가 뒤섞인 소란도 똑같았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불쾌한 것이, 전에는 없던 날 선 기운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게 느껴졌다. 아니면 그저 내가 익숙해져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새 웨스트에그를 그 나름의 기준과 그 나름의 거물들을 갖춘,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세계로, 누구에게 뒤진다는 의식이 없기에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제 데이지의 눈을 통해 그곳을 다시 보고 있었던 셈이다. 제 나름대로 애써 적응해 온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서글프다.

두 사람은 해 질 녘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반짝이는 수백 명 사이로 거닐며 나아가는 동안 데이지의 목소리는 목 안에서 소곤소곤 온갖 재주를 부렸다.

"난 이런 게 너무 설레." 데이지가 속삭였다. "오늘 저녁 아무 때나 나한테 키스하고 싶어지면, 닉, 말만 해.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 줄게. 내 이름만 대면 돼. 아니면 초록 카드를 내밀든가. 내가 초록 카드를 나눠 주는 중이……"

"둘러봐요." 개츠비가 권했다.

"둘러보고 있어요. 정말 근사한……"

"이름만 들어 보신 분들 얼굴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톰의 오만한 눈이 사람들 사이를 훑었다.

"우린 별로 나다니질 않아서." 톰이 말했다. "실은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막 생각하던 참이야."

"저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개츠비가 흰 자두나무 아래 위엄 있게 자리 잡은, 눈부시고 사람이라기보다는 난초에 가까운 여자를 가리켰다. 톰과 데이지는 지금껏 유령처럼 화면 속에만 있던 영화계 명사를 알아볼 때 으레 따라오는 그 묘하게 비현실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그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지가 말했다.

"저분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남자가 그 감독이고요."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격식을 차려 이 무리 저 무리로 옮겨 다녔다.

"뷰캐넌 부인…… 그리고 뷰캐넌 씨……"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가 덧붙였다. "폴로 선수이십니다."

"아, 아니야." 톰이 얼른 손사래를 쳤다. "난 아니라고."

그러나 개츠비는 그 말의 울림이 마음에 들었던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 내내 톰은 '폴로 선수'로 불렸으니까.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 본 건 처음이에요." 데이지가 탄성을 질렀다. "그 남자 좋던데요. 이름이 뭐였죠? 코가 좀 파르스름하던 사람이요."

개츠비는 그게 누구인지 일러 주면서 군소 영화 제작자라고 덧붙였다.

"아무튼 난 그 사람이 좋았어요."

"폴로 선수 노릇은 좀 사양하고 싶은데." 톰이 기분 좋게 말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망각 속에서 구경하는 편이 좋겠어."

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개츠비가 우아하고 점잖은 폭스트롯을 추는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가 춤추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한가로이 우리 집으로 건너가 30분 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나는 데이지의 부탁대로 정원에 남아 망을 보았다. "불이 나거나 물난리가 날지도 모르잖아." 데이지가 이유를 댔다. "아니면 하느님이 무슨 조화를 부리실지도 모르고."

톰이 제 망각에서 빠져나와 모습을 드러낸 건 우리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을 무렵이었다. "저쪽 사람들하고 먹어도 괜찮겠지?" 그가 말했다. "웬 친구가 아주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거든."

"그래, 가." 데이지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주소라도 적어 두고 싶으면 여기 내 조그만 금색 연필 있어."…… 잠시 뒤 데이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여자애가 '천하긴 해도 예쁘다'고 내게 말했고, 나는

개츠비와 단둘이 보낸 30분을 빼면 데이지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앉은 식탁은 유난히 술기운이 오른 자리였다. 그건 내 탓이었다. 개츠비는 전화를 받으러 불려 갔고, 나는 불과 2주 전에 바로 이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으니까. 그러나 그때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 이제는 공기 속에서 곪아 가고 있었다.

"좀 어때요, 베데커 양?"

질문을 받은 아가씨는 내 어깨에 기대 푹 쓰러지려다 번번이 실패하던 참이었다. 그 물음에 아가씨는 몸을 곧추세우고 눈을 떴다.

"뭐어?"

내일 이 동네 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치자며 데이지를 조르던, 몸집이 크고 굼뜬 여자가 베데커 양을 두둔하고 나섰다.

"아, 이제 괜찮아요. 칵테일을 대여섯 잔 마시면 늘 저렇게 소리를 질러 대거든요. 술은 좀 멀리하라고 내가 늘 말하는데."

"멀리한다니까." 피고가 맥없이 우겼다.

"네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려서 내가 여기 시벳 박사님한테 그랬잖아. '박사님, 도와주셔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야 얘도 고마워하겠지." 또 다른 친구가 고마운 기색도 없이 말했다. "근데 얘 머리를 수영장에 처박는 바람에 드레스가 흠뻑 젖었잖아."

"난 머리를 수영장에 처박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질색이야." 베데커 양이 웅얼거렸다. "뉴저지에서 한번은 사람들이 날 물에 빠뜨려 죽일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술을 멀리해야지." 시벳 박사가 받아쳤다.

"사돈 남 말 하시네!" 베데커 양이 사납게 소리쳤다. "당신 손 떨리잖아. 당신한테는 절대 수술 안 받을 거야!"

그런 판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거의 마지막 장면은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그 영화감독과 그의 '스타'를 지켜보던 모습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흰 자두나무 아래 있었는데, 창백하고 가느다란 달빛 한 줄기가 사이에 끼어 있을 뿐 얼굴이 거의 맞닿아 있었다. 문득 그 감독이 이만큼 가까워지려고 저녁 내내 아주 천천히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한 치를 더 숙이더니 여자의 뺨에 입술을 갖다 댔다.

"난 저 여자 좋아." 데이지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데이지의 비위를 거슬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게 몸짓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웨스트에그에, 브로드웨이가 롱아일랜드의 한 어촌에 씨를 뿌려 낳아 놓은 이 전례 없는 '장소'에 질겁했다. 낡은 완곡어법의 굴레 밑에서 들썩이는 그 날것의 활력에, 그리고 이곳 주민들을 무(無)에서 무로 가는 지름길로 몰아대는 너무도 노골적인 운명에 질겁했다. 데이지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 앞쪽은 어두웠고, 환한 문 하나만이 10제곱피트쯤 되는 빛을 부드럽고 까만 새벽 속으로 쏘아 보내고 있었다. 이따금 위층 옷방 블라인드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다가 다른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림자들의 행렬이 보이지 않는 거울 앞에서 연지를 바르고 분을 두드렸다.

"대체 이 개츠비라는 작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톰이 불쑥 따져 물었다. "무슨 거물 밀주업자라도 되나?"

"그런 얘긴 어디서 들었어?" 내가 물었다.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짐작한 거지. 이런 신흥 부자들은 상당수가 그냥 거물 밀주업자야. 너도 알잖아."

"개츠비는 아니야." 내가 짧게 잘라 말했다.

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진입로의 자갈이 그의 발밑에서 자그락자그락 밟혔다.

"하긴, 이런 동물원을 끌어모으느라 어지간히 용을 썼겠지."

산들바람이 데이지의 모피 깃에 서린 잿빛 안개를 흔들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재미있잖아." 데이지가 애써 말했다.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던데."

"재미있었다니까."

톰이 웃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아까 그 여자애가 찬물로 샤워 좀 시켜 달라고 했을 때 데이지 얼굴 봤어?"

데이지가 음악에 맞춰 쉰 듯하면서도 리듬을 타는 속삭임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낱말 하나하나에서 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의미를 끌어냈다. 가락이 높아지면 목소리는 그 가락을 따라가며 음역이 낮은 여자 목소리들이 흔히 그러듯 달콤하게 갈라졌고, 음이 바뀔 때마다 데이지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법이 조금씩 공기 속으로 흘러넘쳤다.

"초대도 안 받고 오는 사람이 많아." 데이지가 불쑥 말했다. "그 여자애도 초대받은 게 아니었어.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점잖아서 싫단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 작자가 누군지, 뭘 해서 먹고사는지 알고 싶어." 톰이 고집했다. "그리고 꼭 알아내 볼 생각이야."

"지금 당장 말해 줄 수 있어." 데이지가 대답했다. "약국을 몇 군데 했었대.[5] 아주 여러 군데. 혼자 힘으로 일으킨 거래."

늑장을 부리던 리무진이 그제야 진입로를 굴러 올라왔다.

"잘 자, 닉." 데이지가 말했다.

데이지의 눈길이 나를 떠나 불 밝힌 계단 꼭대기를 찾았는데, 거기 열린 문으로는 그해에 유행한 깔끔하고 서글픈 작은 왈츠 '새벽 세 시(Three O'Clock in the Morning)'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쨌거나 개츠비의 파티에는 바로 그 격식 없는 무심함 속에, 데이지의 세계에는 전혀 없는 낭만적인 가능성들이 있었다. 저 위, 그 노래 속의 무엇이 데이지를 다시 안으로 부르는 것 같았을까? 어슴푸레하고 헤아릴 길 없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믿기지 않는 손님이, 한없이 드물고 경탄할 만한 누군가가 찾아올지도 몰랐다. 정말로 눈부신 어느 젊은 아가씨가 나타나 개츠비를 한 번 싱그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법 같은 만남의 한순간만으로, 흔들림 없던 그 5년의 헌신을 지워 버릴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개츠비가 손이 빌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서, 나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밤의 수영 패거리가 몸은 식고 기분은 들뜬 채 검은 해변에서 뛰어 올라올 때까지, 머리 위 손님방들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정원을 서성거렸다. 마침내 그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볕에 그은 얼굴 살갗은 여느 때와 달리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눈은 빛나면서도 지쳐 있었다.

"데이지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가 대뜸 말했다.

"당연히 좋아했죠."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가 고집했다.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낙담해 있음을 짐작했다.

"데이지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가 말했다.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파티 얘기예요?"

"파티요?" 그는 손가락을 탁 튕겨 그동안 자기가 열었던 파티를 모조리 날려 버렸다. "올드 스포트, 파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에게 가서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라고 말해 주기를 바랐다. 그보다 덜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데이지가 그 한마디로 4년을 지워 버리고 나면, 두 사람은 좀 더 현실적인 조치들을 정할 수 있을 터였다. 그중 하나는, 데이지가 자유로운 몸이 되면 두 사람이 루이빌로 돌아가 데이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꼭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데 데이지는 이해를 못 해요." 그가 말했다. "예전에는 이해했는데요. 우린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는 말을 끊고, 과일 껍질과 내버려진 파티 선물과 짓밟힌 꽃들이 흩어진 쓸쓸한 길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저라면 데이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겠어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쳤다. "물론 되풀이할 수 있어요!"

그는 정신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과거가 바로 여기, 제 집 그늘 속에,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면서도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걸 예전하고 똑같이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데이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들어 보니 무언가를,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 같은 것을,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쏟아부어 버린

그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그의 삶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지만, 어느 출발점으로 딱 한 번만 돌아가 모든 것을 천천히 되짚어 갈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터였다……

……5년 전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낙엽이 지는 거리를 걷다가 나무가 없고 보도가 달빛에 하얗게 물든 곳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거기 멈춰 서서 서로에게로 몸을 돌렸다. 서늘한 밤이었다. 한 해에 두 번 돌아오는 환절기의 그 신비로운 설렘이 깃든 밤. 집집마다 켜진 고요한 불빛이 어둠 속으로 웅웅거리며 번져 나갔고, 별들 사이에서는 무언가가 술렁이며 부산을 떨었다. 개츠비는 곁눈으로 보았다. 보도블록들이 정말로 사다리를 이루어 나무들 위 어느 비밀스러운 곳까지 뻗어 올라가고 있었고, 혼자서 오르기만 한다면 그는 거기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일단 거기 이르면 삶의 젖꼭지를 물고 빨 수 있었고,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경이의 젖을 꿀꺽꿀꺽 들이켤 수 있었다.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그의 얼굴 가까이 올라오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개츠비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 환상을 언젠가 스러질 이 여자의 숨결에 영원히 맺어 버리면, 제 마음은 다시는 하느님의 마음처럼 뛰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별에 대고 친 소리굽쇠의 떨림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고는 입을 맞추었다. 입술이 닿자 데이지는 그를 위해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났고, 육화(incarnation)는 완성되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내내, 그 끔찍한 감상벽 속에서조차, 나는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무언가를, 붙잡힐 듯하다가 빠져나가는 어떤 리듬을, 잃어버린 말들의 한 조각을 떠올렸다. 한순간 어떤 구절이 내 입안에서 모양을 갖추려 했고, 내 입술은 말 못 하는 사람의 입술처럼 벌어졌다. 놀라서 새어 나온 한 가닥 숨결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그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듯이. 그러나 입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내가 거의 떠올릴 뻔했던 그것은 영영 전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

1. 캐나다에서 국경 너머로 술을 몰래 끌어오는 땅속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소문. 금주법 시대에 캐나다는 미국으로 밀수되는 술의 주요 공급처였다.

2.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빌린 말. 성전에서 사흘 만에 찾아낸 열두 살 예수가 부모에게 한 대답을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로 옮겼다. 한국어 성경은 대개 '아버지 집에 있어야'로 옮긴다.

3. 맹트농 부인(Madame de Maintenon, 1635~1719). 루이 14세의 서자들을 돌보는 가정교사로 궁정에 들어와 왕의 신임을 얻었고, 왕비가 죽은 뒤 왕과 비밀리에 결혼해 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휘둘렀다.

4.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오늘날의 모로코에서 리비아에 이르는 해안을 가리키던 옛 이름. 샌프란시스코의 이름난 환락가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5. 금주법 시대에도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용' 위스키를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약국은 밀주를 유통하는 흔한 위장처였다.

7장

개츠비를 둘러싼 호기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어느 토요일 밤 그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의 트리말키오[1] 노릇은 시작될 때만큼이나 영문 모르게 막을 내렸다. 기대에 부풀어 그 집 진입로로 꺾어 들어온 자동차들이 겨우 1분쯤 머물다가는 뾰로통하게 도로 빠져나간다는 걸, 나는 아주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싶어 알아보러 건너갔더니, 악당처럼 험상궂게 생긴 처음 보는 집사 하나가 문간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미심쩍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개츠비 씨가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 잠시 뒤 그는 늑장을 부리듯 마지못해 "요" 자를 덧붙였다.

"통 안 보이셔서 좀 걱정이 됐어요. 캐러웨이가 다녀갔다고 전해 주세요."

"누구?" 그가 무례하게 되물었다.

"캐러웨이요."

"캐러웨이라. 알았어요, 전하죠."

그러더니 대뜸 문을 쾅 닫아 버렸다.

우리 집 핀란드인 가정부가 전해 준 말로는, 개츠비가 일주일 전에 집안 하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여섯 명을 새로 들였다고 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웨스트에그 마을에 나와 상인들한테 뒷돈을 받아 챙기는 일도 없이,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전화로 딱

적당한 만큼만 주문해 들였다. 식료품 가게 배달 소년은 그 집 부엌이 꼭 돼지우리 같더라고 전했고, 마을에서는 새로 온 사람들이 애당초 하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이튿날 개츠비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 떠나세요?"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올드 스포트."

"하인들을 다 내보내셨다면서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을 두고 싶었습니다. 데이지가 꽤 자주 건너오거든요. 오후에요."

그러니까 뜨내기손님들로 들끓던 그 거대한 객줏집이, 데이지의 눈에 스친 못마땅한 기색 하나에 카드로 지은 집처럼 그만 폭삭 무너져 내린 셈이었다.

"울프심이 좀 챙겨 주고 싶어 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형제자매간이고요. 전에는 작은 호텔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가 전화를 건 건 데이지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내일 데이지네 집에 점심을 먹으러 와 줄 수 있겠느냐며 베이커 양도 온다고 했다. 30분 뒤에는 데이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내가 온다는 걸 알고는 안도하는 눈치였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하필 이런 자리를 골라 한바탕 소동을 벌이리라고는, 더구나 개츠비가 정원에서 대강 그려 보인 그 꽤나 괴로운 장면을 벌이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이튿날은 푹푹 쪘다. 그해 여름의 거의 마지막 날이었고, 틀림없이 가장 더운 날이었다. 내가 탄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햇빛 속으로 나서자, 부글부글 끓는 듯한 정오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내셔널 비스킷 회사 공장에서 울리는 뜨거운 기적 소리뿐이었다. 객차의 밀짚

좌석은 당장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았다. 옆자리 여자는 한동안 흰 블라우스 속으로 얌전하게 땀을 흘리더니, 손가락 밑에서 신문이 눅눅해지자 쓸쓸한 비명을 한 번 지르고는 절망한 듯 깊은 더위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여자의 지갑이 바닥에 철썩 떨어졌다.

"어머나!" 여자가 숨을 헉 들이켰다.

나는 지친 몸을 굽혀 지갑을 주운 다음, 딴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 주려고 팔을 한껏 뻗어 모서리 끝만 겨우 쥔 채 여자에게 돌려주었지만, 여자를 비롯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의심했다.

"덥네요!" 차장이 낯익은 얼굴들에게 말했다. "날씨 한번 대단하죠!…… 더워요!…… 더워!…… 더워!…… 이만하면 덥다 소리 나오시죠? 덥죠? 안 그래요……?"

차장의 손을 거쳐 돌아온 내 정기 승차권에는 그 손이 남긴 거뭇한 얼룩이 배어 있었다. 이런 더위에, 자기가 입 맞추는 달아오른 입술이 누구의 것인지, 심장 위 잠옷 주머니를 축축하게 적시는 머리가 누구의 것인지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뷰캐넌네 집 복도를 타고 희미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 나오며,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개츠비와 나에게까지 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실어 날랐다.

"주인어른의 몸 말씀입니까?" 집사가 송화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죄송합니다만 부인, 그건 대령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낮엔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집사가 한 말은 이랬다.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집사는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땀에 살짝 번들거리는 얼굴로 우리의 빳빳한 밀짚모자를 받으러 다가왔다.

"마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십니다!" 집사는 쓸데없이 방향까지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런 더위에는 군더더기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함께

나눠 쓰는 생명의 곳간을 욕보이는 짓이었다.

차양으로 그늘을 넉넉히 드리운 방은 어둑하고 서늘했다. 데이지와 조던은 커다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선풍기가 노래하듯 일으키는 바람에 맞서 제 흰 드레스가 날리지 않게 몸무게로 눌러 두고 있는 은빛 우상 한 쌍 같았다.

"우린 꼼짝도 못 해."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볕에 그은 살갗 위로 하얗게 분을 바른 조던의 손가락이 잠시 내 손안에 머물렀다.

"그런데 운동선수 토머스 뷰캐넌 씨께서는?" 내가 물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전화기 앞에서 퉁명스럽고 먹먹하게 쉰 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츠비는 진홍빛 양탄자 한가운데 서서 넋을 잃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데이지는 그런 개츠비를 보며 달콤하고 사람을 들뜨게 하는 그 웃음을 웃었다. 그러자 가슴께에서 분가루가 조그맣게 훅 일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소문으로는 말이야." 조던이 속삭였다. "지금 저 전화 건 사람이 톰의 여자래."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복도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높아졌다. "좋아, 그렇다면 그 차는 절대 안 팔겠어…… 내가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 일로 귀찮게 구는 건, 그건 절대 못 참아!"

"전화를 끊어 놓고 혼자 저러는 거야." 데이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장담했다. "진짜 거래야. 마침 내가 좀 알거든."

톰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두꺼운 몸뚱이로 잠깐 문간을 꽉 메우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개츠비 씨!" 톰은 싫은 기색을 용케 감춘 채 넓적하고 납작한 손을 내밀었다. "반갑군, 선생…… 닉……"

"시원한 마실 것 좀 만들어 줘." 데이지가 외쳤다.

톰이 다시 방을 나가자 데이지는 일어나 개츠비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데이지가 나직이 속삭였다.

"여기 숙녀가 있다는 걸 잊었나 보네."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는 미심쩍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도 닉한테 키스하면 되잖아."

"어쩜 저렇게 천하고 상스러운 애가 다 있담!"

"상관없어!" 데이지는 소리치더니 벽돌 벽난로 앞에서 탭댄스를 추듯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더위가 생각났는지 죄지은 사람처럼 소파에 도로 앉았는데, 바로 그때 갓 빨아 다린 옷차림의 유모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 귀하신 보배애." 데이지가 두 팔을 벌리고 노래하듯 불렀다. "널 사랑하는 엄마한테 오렴."

유모가 손을 놓아주자 아이는 방을 가로질러 쪼르르 달려와서는 엄마 드레스 속으로 수줍게 파고들었다.

"우리 귀하신 보배애! 엄마가 우리 애기 노리끼리한 머리에 분 묻혔어? 자, 이제 똑바로 서서 해 봐. 안녕하세요오."

개츠비와 나는 차례로 허리를 숙여, 마지못해 내민 그 조그만 손을 잡았다. 그 뒤로도 개츠비는 놀란 눈으로 줄곧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 아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다고는 한 번도 믿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나 점심 먹기 전에 옷 갈아입었어." 아이가 신이 나서 데이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 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지." 데이지는 아이의 작고 하얀 목에 하나 잡힌 주름에 얼굴을 묻었다. "요 꿈같은 것, 요 녀석. 어쩜 이렇게 꿈같은 쪼끄만 게 다 있을까."

"응." 아이가 태연하게 인정했다. "조던 이모도 하얀 옷 입었어."

"엄마 친구들 어때?" 데이지가 아이를 돌려세워 개츠비와 마주 보게 했다. "다들 예쁘지?"

"아빠는 어딨어?"

"얘는 아빠를 안 닮았어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날 닮았죠. 머리칼도 얼굴 생김새도 다 날 닮았어요."

데이지는 소파에 도로 등을 기댔다. 유모가 한 걸음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가요, 패미."

"잘 가, 우리 아가!"

버릇 잘 든 아이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면서도 유모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문밖으로 끌려 나갔는데, 바로 그때 얼음이 가득 들어 달그락거리는 진 리키 넉 잔을 뒤에 거느리고 톰이 돌아왔다.

개츠비가 잔을 집어 들었다.

"정말 시원해 보이는군요." 그가 눈에 띄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길게, 게걸스럽게 들이켰다.

"어디서 읽었는데, 해가 해마다 뜨거워진다더군." 톰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구가 해 속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잠깐…… 정반대지…… 해가 해마다 식어 간다는 거였어.

"밖으로 나가지." 톰이 개츠비에게 권했다. "집 구경 좀 시켜 주고 싶은데."

나도 두 사람을 따라 베란다로 나갔다. 더위에 괴어 버린 초록빛 해협 위에서는 작은 돛 하나가 더 시원한 바다를 향해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는데, 개츠비는 잠시 그 돛을 눈으로 좇다가 손을 들어 물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제 집이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렇군."

우리의 눈길은 장미 화단과 뜨거운 잔디밭을 넘고, 물가를 따라 복더위가 남기고 간 잡초 섞인 쓰레기를 넘어 위로 올라갔다. 배의 하얀 날개는 파랗고 서늘한 하늘 끝을 배경 삼아 천천히 나아갔고, 그 앞에는 가리비 껍데기처럼 물결이 주름진 대양과 축복이 넘치는 섬들이 펼쳐져 있었다.

"저런 게 진짜 스포츠지."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친구하고 저기 한 시간쯤 나가 있어 봤으면 좋겠군."

우리는 더위를 막느라 그곳 역시 어둑하게 가려 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신경이 곤두선 채 들뜬 기분을 차가운 에일과 함께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넘겼다.

"오늘 오후엔 우리 뭐 하지?" 데이지가 외쳤다. "그리고 내일은, 또 앞으로 30년 동안은?"

"우울한 소리 좀 하지 마." 조던이 말했다. "가을이 와서 공기가 선선해지면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

"그래도 너무 덥단 말이야." 데이지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인 얼굴로 우겼다. "게다가 다 너무 뒤죽박죽이야. 우리 다 같이 시내에 가자!"

데이지의 목소리는 더위를 헤치고 버둥거리며 나아갔다. 더위에 부딪치고, 그 무의미한 더위를 주물러 어떻게든 모양을 빚어 가면서.

"마구간을 차고로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 봤어." 톰은 개츠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고를 마구간으로 고친 사람은 내가 처음일걸."

"시내 갈 사람?" 데이지가 끈질기게 다그쳤다. 개츠비의 눈길이 데이지 쪽으로 둥실 떠 갔다. "아." 데이지가 소리쳤다. "당신은 참 시원해 보여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텅 빈 허공에 단둘이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지가 애써 식탁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은 언제 봐도 참 시원해 보여요." 데이지가 되뇌었다.

데이지는 방금 개츠비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톰 뷰캐넌은 그걸 보았다. 톰은 경악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그는 개츠비를 보았다가,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를 이제야 알아본 사람처럼 다시 데이지를 보았다.

"당신은 그 광고에 나오는 남자를 닮았어요." 데이지가 천진하게 말을 이었다. "그 광고 알죠? 그 남자 나오는……"

"좋아." 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시내 가는 거라면 난 얼마든지 좋아. 자, 다 같이 시내로 가자고."

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눈길은 여전히 개츠비와 제 아내 사이를 번득이며 오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서들!" 톰의 참을성에 조금 금이 갔다. "대체 왜들 이래? 시내에 갈 거면 출발하자고."

애써 성질을 누르느라 떨리는 손으로 톰은 잔에 남은 마지막 에일을 입으로 가져갔고, 우리는 데이지의 목소리에 떠밀려 자리에서 일어나 이글거리는 자갈 진입로로 나섰다.

"그냥 이렇게 가자고?" 데이지가 반대했다. "이대로? 담배 한 대 피울 틈도 안 주고?"

"점심 내내 다들 피웠잖아."

"아이, 좀 재밌게 놀자." 데이지가 톰에게 사정했다. "이렇게 더운데 티격태격할 기운도 없어."

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해." 데이지가 말했다. "가자, 조던."

두 사람이 채비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간 사이, 우리 남자 셋은 그 자리에 서서 뜨거운 자갈을 발로 이리저리 뒤적였다. 서쪽 하늘에는 벌써 은빛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개츠비가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그가 입을 다물기도 전에 톰은 벌써 홱 돌아서서 무슨 말이 나오려나 기다리는 얼굴로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마구간은 여기 있습니까?" 개츠비가 애써 물었다.

"길 따라 사분의 일 마일쯤 내려가면 있어."

"아."

잠시 말이 끊겼다.

"시내엔 뭐 하러 가자는 건지 모르겠군." 톰이 사납게 내뱉었다. "여자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한번 박히면……"

"마실 것 좀 가져갈까?" 데이지가 위층 창문에서 소리쳤다.

"위스키 좀 가져올게." 톰이 대답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개츠비가 뻣뻣하게 내 쪽으로 돌아섰다.

"저 사람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올드 스포트."

"데이지는 목소리에 속이 다 드러나요." 내가 한마디 했다. "그 목소리엔 뭔가가 가득해서……" 나는 머뭇거렸다.

"그 여자 목소리엔 돈이 가득해요." 그가 불쑥 말했다.

바로 그거였다. 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 목소리엔 돈이 가득했다. 그 안에서 한없이 오르내리던 매력, 짤랑거리는 그 소리, 심벌즈가 부르는

그 노래의 정체가 바로 돈이었다…… 하얀 궁전 높은 곳에 사는 왕의 딸, 황금의 아가씨……

톰이 1쿼트들이 술병을 수건에 둘둘 싸며 집에서 나왔고, 그 뒤로 금속 광택이 도는 천으로 지은 꼭 끼는 작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망토를 팔에 걸친 데이지와 조던이 따라 나왔다.

"다 같이 제 차로 가시겠습니까?" 개츠비가 권했다.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초록색 가죽 좌석을 손으로 만져 보았다. "그늘에 세워 둘 걸 그랬군요."

"기어는 보통 차하고 같은가?" 톰이 따지듯 물었다.

"네."

"그럼 그쪽이 내 쿠페를 몰고 와. 이 차는 내가 몰고 시내까지 가지."

개츠비는 그 제안이 달갑지 않았다.

"기름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가 반대했다.

"기름이야 넉넉하지." 톰이 떠들썩하게 말하고는 연료계를 들여다보았다. "떨어지면 약국에 들르면 돼. 요즘은 약국에서 뭐든 살 수 있잖아."

겉보기에 아무 뜻도 없는 이 말 뒤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이지는 얼굴을 찌푸린 채 톰을 보았다. 그리고 개츠비의 얼굴 위로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표정 하나가 스쳐 지나갔는데, 분명히 처음 보는 표정이면서도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누가 말로 묘사하는 것만 들어 본 듯한 표정이었다.

"가자, 데이지." 톰이 손으로 데이지를 개츠비의 차 쪽으로 떠밀며 말했다. "이 서커스 마차에 태워 주지."

톰이 차 문을 열었지만 데이지는 제 몸을 두른 톰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당신은 닉하고 조던 태우고 가. 우린 쿠페로 따라갈게."

데이지는 개츠비 곁에 바싹 붙어 걸으며 손끝으로 그의 윗옷을 매만졌다. 조던과 톰과 나는 개츠비의 차 앞자리에 나란히 올라탔고, 톰이 낯선 기어를 이리저리 조심스레 밀어 넣자 차는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쏜살같이 튀어 나갔다. 두 사람은 금세 뒤로 멀어져 보이지 않았다.

"봤어?" 톰이 다그쳤다.

"뭘?"

톰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다가, 조던과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꽤나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톰이 넌지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한테는 가끔…… 거의 예지력 같은 게 있어서, 뭘 해야 할지 알려 준다고.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톰은 말을 멈추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사태가 그를 따라잡아, 이론의 심연 가장자리에서 도로 끌어냈다.

"그 작자 뒷조사를 좀 해 봤어." 톰이 말을 이었다. "진작 알았으면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는데……"

"그럼 영매라도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조던이 익살스럽게 물었다.

"뭐?" 우리가 웃자 톰은 어리둥절해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영매?"

"개츠비 일로요."

"개츠비 일로! 아니, 그런 데 안 갔어. 그 작자 과거를 좀 조사해 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걸 알아내셨고요." 조던이 친절하게 거들었다.

"옥스퍼드 출신!" 톰은 기가 차다는 얼굴이었다. "옥스퍼드 좋아하네! 분홍색 양복이나 입고 다니는 작자가."

"그래도 옥스퍼드 출신은 맞아요."

"뉴멕시코주 옥스퍼드겠지." 톰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그 비슷한 데든가."

"이봐요, 톰. 그렇게 속물처럼 굴 거면 그 사람을 왜 점심에 불렀어요?" 조던이 뾰로통하게 따졌다.

"데이지가 불렀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래. 어디서 알았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시겠지!"

에일 기운이 가시자 이제 우리는 모두 짜증이 나 있었고, 그걸 알았기에 한동안 말없이 차를 몰았다. 그러다 빛이 바랜 T. 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 길 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기름이 얼마 없을 거라던 개츠비의 말이 그제야 생각났다.

"시내까지 갈 만큼은 있어." 톰이 말했다.

"그래도 바로 여기 정비소가 있잖아요." 조던이 반대했다. "이 찜통더위에 차가 서 버리는 건 싫어요."

톰이 조바심을 내며 발 브레이크와 손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걸었고, 우리 차는 먼지를 피워 올리며 미끄러지다가 윌슨의 간판 아래서 덜컥 멈춰 섰다. 잠시 뒤 주인이 가게 안쪽에서 나와 퀭한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기름 좀 넣어!" 톰이 거칠게 소리쳤다. "우리가 뭐 하러 섰겠어? 경치 구경하러?"

"몸이 아픕니다." 윌슨이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다. "하루 종일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넣을까?" 톰이 다그쳤다. "전화로는 멀쩡하던데."

윌슨은 기대 서 있던 문간 그늘에서 힘겹게 몸을 떼어 내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료 탱크 뚜껑을 돌려 열었는데, 햇빛 아래서 보니 그 얼굴이 푸르죽죽했다.

"점심 드시는데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돈이 몹시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 헌 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차는 어때?"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샀지."

"보기 좋은 노란 차군요." 윌슨이 펌프 손잡이를 힘겹게 당기며 말했다.

"사고 싶나?"

"어림도 없지요." 윌슨이 힘없이 웃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헌 차로는 돈을 좀 만질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돈은 어디 쓰게?"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집사람하고 서부로 갈 생각입니다."

"마누라가 가고 싶어 한다고?" 톰이 흠칫 놀라 소리쳤다.

"10년째 그 얘기만 해 왔습니다." 윌슨은 펌프에 잠시 몸을 기대고 손으로 햇빛을 가렸다. "이제는 가고 싶든 말든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데리고 떠날 겁니다."

쿠페가 흙먼지를 휘날리며 우리 곁을 휙 지나갔고, 흔드는 손 하나가 번쩍 스쳤다.

"얼마야?" 톰이 거칠게 물었다.

"요 이틀 사이에 뭔가 수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윌슨이 말했다. "그래서 떠나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일로 자꾸 성가시게 해 드린 거고요."

"얼마야?"

"1달러 20센트입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대는 더위에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가슴이 철렁했다가 윌슨의 의심이 아직 톰에게까지 내려앉지는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윌슨은 머틀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 없는 딴 세상에서 무슨 삶인가를 따로 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그 충격으로 몸까지 병이 나 버린 참이었다. 나는 윌슨을 보고, 이어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와 비슷한 사실을 알아낸 톰을 보다가, 지능을 따지든 인종을 따지든 사람들 사이에 아픈 사람과 성한 사람의 차이만큼 깊은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윌슨은 너무 아파서 죄지은 사람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가엾은 처녀를 덜컥 임신시켜 놓은 사람처럼.

"그 차는 넘겨주지." 톰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보내 줄게."

그 일대는 오후의 환한 햇볕 아래서도 늘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때 나는 뒤에 뭔가 있다는 경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잿더미 위로는 T. J.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눈이 불침번을 서고 있었지만, 잠시 뒤 나는 20피트도 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눈이 유난히 뚫어지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정비소 위층 창문 하나에 커튼이 조금 걷혀 있었고, 머틀 윌슨이 거기서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넋을 놓았는지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듯했고, 그 얼굴에는 감정이 하나씩 차례로 스며 올라왔다. 천천히 현상되는 사진 속에 사물이 하나둘 드러나듯이. 묘하게 낯익은 표정이었다. 여자들 얼굴에서 자주 본 표정이었는데,

머틀 윌슨의 얼굴에서는 까닭도 목적도 알 수 없어 보였다. 그러다 나는 질투 어린 공포로 휘둥그레진 그 눈이 톰이 아니라, 머틀이 톰의 아내로 잘못 알고 있는 조던 베이커에게 박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단순한 사람이 겪는 혼란만 한 혼란은 없다.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나는 동안, 공포가 뜨거운 채찍처럼 톰을 후려치고 있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안전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던 그의 아내와 그의 여자가 걷잡을 수 없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톰은 데이지를 따라잡는 한편 윌슨을 뒤에 떨쳐 내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본능에 떠밀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우리는 시속 50마일로 애스토리아를 향해 내달렸고, 그러다 마침내 고가 철도의 거미줄 같은 철골들 사이로 느긋하게 달리는 파란 쿠페가 눈에 들어왔다.

"50번가 근처 큰 영화관들은 시원해요." 조던이 넌지시 말했다. "난 다들 어디론가 떠나고 없는 여름 오후의 뉴욕이 좋아요. 뭔가 아주 관능적인 데가 있거든요. 너무 익어서, 온갖 희한한 과일이 손안으로 툭툭 떨어질 것만 같아요."

'관능적'이라는 말에 톰은 한층 더 불안해졌지만, 무슨 반대할 말을 지어내기도 전에 쿠페가 멈춰 섰고, 데이지가 옆에 나란히 차를 대라고 우리에게 손짓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데이지가 소리쳤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너무 더워." 데이지가 투덜거렸다. "먼저들 가. 우린 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만나." 데이지는 애써 희미하게나마 재치를 끌어올렸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만나자. 담배 두 개비를 한꺼번에 피우는 남자가 나야."

"여기서 이러고 입씨름할 수는 없어."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욕을 퍼붓듯 경적을 울려 대자 톰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센트럴 파크 남쪽, 플라자 호텔 앞까지 날 따라와."

톰은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뒤에 오는 두 사람의 차를 찾았고, 길이 막혀 그 차가 뒤처지기라도 하면 다시 눈에 들어올 때까지 속도를 늦추었다. 두 사람이 옆길로 휙 빠져서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져 버릴까 봐 겁이 났던 것 같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그보다 더 영문 모를 걸음을 내디뎌, 플라자 호텔에 스위트룸을 잡고 그 응접실에 들어앉았다.

우리를 그 방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끝난 그 길고 떠들썩한 입씨름은 이제 기억에서 빠져나가고 없다. 다만 그러는 내내 속옷이 축축한 뱀처럼 자꾸만 다리를 휘감으며 기어올랐고 이따금 땀방울이 등줄기를 가로질러 서늘하게 내달렸다는 것만큼은, 지금도 몸이 또렷하게 기억한다. 발단은 욕실 다섯 개를 빌려서 찬물로 목욕을 하자는 데이지의 제안이었는데, 그 생각이 차츰 '민트 줄렙[2] 한잔할 곳'이라는, 좀 더 손에 잡히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우리는 저마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면서 어리둥절해하는 호텔 직원에게 한꺼번에 떠들어 댔고,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굴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척했다……

방은 널찍했지만 숨이 턱턱 막혔고, 벌써 오후 네 시였는데도 창문을 열어 봐야 센트럴 파크의 달아오른 덤불 냄새를 실은 바람만 한 줄기 훅 끼쳐 들어올 뿐이었다. 데이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머리를 매만졌다.

"스위트룸 한번 근사하네요." 조던이 공손하게 속삭였고,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창문 하나 더 열어." 데이지가 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더 열 창문이 없어."

"그럼 전화해서 도끼라도 갖다 달라고 해야겠네……"

"더위 따위는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자꾸 투덜대니까 열 배는 더 덥잖아."

톰은 수건에 둘둘 말아 온 위스키 병을 풀어 탁자에 올려놓았다.

"데이지를 좀 가만 놔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한마디 했다. "시내에 오자고 한 건 뷰캐넌 씨 아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에 박힌 못에 걸려 있던 전화번호부가 미끄러지더니 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졌고, 그러자 조던이 "어머, 실례"라고 속삭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제가 주울게요." 내가 나섰다.

"주웠습니다." 개츠비는 끊어진 끈을 살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흠!"이라고 중얼거리고는 전화번호부를 의자 위로 휙 던졌다.

"그쪽 입버릇 한번 대단하군, 안 그래?" 톰이 날카롭게 말했다.

"뭐가 말입니까?"

"그 '올드 스포트' 타령 말이야. 대체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

"이것 봐, 톰." 데이지가 거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그렇게 남의 말꼬투리나 잡을 거면 난 여기 한시도 안 있을 거야. 전화해서 민트 줄렙에 넣을 얼음이나 시켜."

톰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짓눌려 있던 더위가 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고, 우리는 어느새 아래층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그 장엄하고도 불길한 화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더위에 결혼이라니, 상상이나 돼요?" 조던이 울적하게 외쳤다.

"그래도…… 난 6월 한가운데에 결혼했는걸." 데이지가 기억을 더듬었다. "6월의 루이빌! 누가 기절했었는데, 기절한 사람이 누구였지, 톰?"

"빌럭시." 톰이 짧게 대답했다.

"빌럭시라는 남자였는데, 다들 '블록스' 빌럭시라고 불렀고,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건 정말이야, 게다가 테네시주 빌럭시 출신이었어.[3]"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옮겼어요." 조던이 거들었다. "우리 집이 교회에서 딱 두 집 건너였거든요. 그러고는 아빠가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할 때까지 3주나 눌러 지냈어요. 그 사람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뒤, 자기 말이 불경스럽게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조던이 덧붙였다. "둘이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난 멤피스 출신 빌 빌럭시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내가 한마디 했다.

"그 사람 사촌이야.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 그 집안 내력을 내가 속속들이 알게 됐거든. 나한테 알루미늄 퍼터도 하나 줬는데, 지금도 그걸 써."

식이 시작되면서 잦아들었던 음악 대신 이제 길게 이어지는 환호성이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고, 뒤이어 "와아아아!"라는 외침이 띄엄띄엄 들려오다가, 마침내 춤이 시작되자 재즈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우리도 늙어 가나 봐." 데이지가 말했다. "젊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을 텐데."

"빌럭시 생각 좀 해." 조던이 데이지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알았어요, 톰?"

"빌럭시?" 톰은 애써 기억을 짜냈다. "난 모르는 사람이었어. 데이지 친구였지."

"아니거든." 데이지가 부인했다. "난 그 전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전용 객차를 타고 내려왔잖아."

"글쎄, 그 친구는 루이빌에서 자랐다면서 당신을 안다고 하던데, 막판에 에이사 버드가 그 친구를 데려와서는 한 사람 더 태울 자리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조던이 빙긋 웃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붙어 가며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나한테는 예일에서 톰네 학년 대표였다고 하던데요."

톰과 나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빌럭시가?"

"우선, 우리 학년엔 대표라는 게 아예 없었……"

개츠비의 발이 짧고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려 댔고, 톰이 문득 그를 뜯어보았다.

"그건 그렇고, 개츠비 씨,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옥스퍼드에 다녔다고 들었어."

"네…… 다녔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다. 그러고는 톰이 도무지 못 믿겠다는 듯, 사람을 깔보는 투로 입을 열었다.

"그럼 빌럭시가 뉴헤이븐에 다닐 무렵에 다녔겠군."

다시 말이 끊겼다. 웨이터가 노크를 하고 으깬 민트와 얼음을 들고 들어왔지만, 그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소리에도, 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에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이 어마어마한 세부 사항이 마침내 밝혀질 참이었다.

"거기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들었어. 그런데 그게 언제였는지 알고 싶군."

"1919년이었는데, 다섯 달밖에 안 있었지요. 그러니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내세우기는 좀 뭣합니다."

톰은 우리 얼굴에도 자기처럼 못 믿겠다는 기색이 떠올랐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개츠비를 보고 있었다.

"휴전 뒤에 장교들 일부한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라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었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등을 탁 두드려 주고 싶었고, 전에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 일이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데이지가 희미하게 웃으며 일어나 탁자로 갔다.

"위스키 따, 톰." 데이지가 시켰다. "내가 민트 줄렙 만들어 줄게. 그러면 당신도 자기가 그렇게 바보 같다는 생각은 안 들 거야…… 이 민트 좀 봐!"

"잠깐." 톰이 쏘아붙였다. "개츠비 씨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 게 있어."

"말씀하시지요." 개츠비가 정중하게 말했다.

"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거야?"

마침내 속내가 다 드러났고, 개츠비는 흡족했다.

"이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데이지는 절박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당신이야. 제발 좀 자제해."

"자제라니!" 톰이 기가 막힌다는 듯 되뇌었다. "하긴 요즘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를 아무개 씨가 제 아내한테 수작을 거는데 뒤로 물러나 느긋하게 앉아서 구경이나 하는 게 최신 유행인가 보지. 흥, 그런 거라면 난 빼 줘…… 요즘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니 가족 제도니 하는 걸 비웃는 데서 시작해서, 그다음엔 뭐든 죄다 내팽개치고 흑인하고 백인이 뒤섞여 결혼하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제가 늘어놓은 열띤 횡설수설에 스스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톰은, 문명의 마지막 방벽 위에 홀로 버티고 선 자기 모습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여긴 다 백인인데요." 조던이 중얼거렸다.

"나 인기 없는 거 알아. 큰 파티도 안 열고. 친구 하나 사귀려 해도 제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야 하나 보지. 요즘 세상에선."

나도 화가 났고 우리 모두 화가 나 있었지만, 난봉꾼이 도덕군자로 둔갑한 품이 어찌나 완벽하던지 톰이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말을 꺼냈다. 그러나 데이지가 그의 속셈을 알아챘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데이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우리 다 집에 가요. 다 같이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좋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자, 톰. 술 마시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개츠비 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 봐야겠어."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가 사랑하는 건 저예요."

"미쳤군!" 톰이 반사적으로 외쳤다.

개츠비가 흥분으로 얼굴이 환하게 달아오른 채 벌떡 일어섰다.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그가 외쳤다. "데이지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가 가난했고 나를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일 뿐이에요. 끔찍한 실수였지만, 데이지는 마음속으로 나 말고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쯤에서 조던과 나는 자리를 뜨려 했지만 톰과 개츠비는 서로 질세라 완강하게 우리더러 남아 있으라고 고집했는데, 둘 다 감출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자기들 감정을 우리가 곁에서 대신 맛보는 게 무슨 특권이나 되는 듯한 태도였다.

"앉아, 데이지." 톰의 목소리는 아버지 같은 어조를 더듬어 찾았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다 들어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말했잖아요." 개츠비가 말했다. "5년째 이어져 온 일인데, 당신은 몰랐지요."

톰이 홱 데이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작자를 5년 동안이나 만나 왔다고?"

"만난 건 아니에요." 개츠비가 말했다. "아뇨, 우린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내 우리 둘은 서로 사랑했는데, 당신은 몰랐지요, 올드 스포트. 가끔 웃음이 나곤 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웃음기라곤 없었다. "당신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아, 그게 다로군." 톰은 두툼한 손가락 끝을 성직자처럼 맞대어 톡톡 두드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미쳤군!" 톰이 폭발했다. "5년 전 일이야 그땐 내가 데이지를 몰랐으니 뭐라고 할 수 없지. 하지만 그쪽이 식료품 꾸러미를 들고 뒷문으로 배달이라도 왔다면 모를까, 무슨 수로 데이지 근처에 얼씬이라도 했는지 제기랄, 난 도무지 모르겠군. 나머지는 죄다 빌어먹을 거짓말이야. 데이지는 나랑 결혼할 때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아니요." 개츠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사랑해. 문제는 데이지가 가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톰은 뭘 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나도 데이지를 사랑해. 가끔 한눈을 팔고 바보짓을 할 때도 있지만 난 언제나 돌아오고, 마음속으로는 늘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고."

"당신 정말 역겨워." 데이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돌아보았는데, 한 옥타브 아래로 떨어진 그 목소리가 짜릿한 경멸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알아? 그 조그만 한눈팔기 얘기를 아직 아무도 너한테 안 들려줬다니 놀랍네."

개츠비가 걸어와 데이지 곁에 섰다.

"데이지, 그건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한테 사실대로,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게 영원히 지워지는 거예요."

데이지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는 머뭇거렸다. 그 눈길이 무언가를 호소하듯 조던과 나에게 와 닿았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한,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은 전혀 없었던 듯한 눈길이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너무 늦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가 눈에 띄게 마지못해 말했다.

"카피올라니[4]에서도 아니었다고?" 톰이 불쑥 다그쳤다.

"아니었어."

아래층 연회장에서 먹먹하고 숨 막히는 화음이 뜨거운 공기의 물결을 타고 떠올라 왔다.

"당신 신발 젖지 말라고 내가 펀치볼에서 안고 내려왔던 그날도?" 톰의 목소리에 쉰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다…… "데이지?"

"그러지 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원망은 가시고 없었다. 데이지는 개츠비를 보았다. "됐죠, 제이." 그렇게 말했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담배와 불붙은 성냥을 양탄자 위로 내던졌다.

"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바라!"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소리쳤다.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해, 그걸로는 모자라? 지나간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어." 데이지는 속절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던 게 맞아……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

개츠비의 눈이 뜨였다가 감겼다.

"나도 사랑했다고요?" 그가 되뇌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톰이 사납게 말했다. "데이지는 그쪽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 이봐, 데이지하고 나 사이에는 그쪽이 영영 모를 일들이, 우리 둘 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 말이 정말로 개츠비의 살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데이지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고집했다. "지금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단둘이 있어도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는 말 못 해." 데이지가 가엾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건 사실이 아닐 테니까."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 톰이 맞장구를 쳤다.

데이지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데이지가 말했다.

"당연히 상관있지. 이제부터는 당신을 더 잘 돌봐 줄 거야."

"당신은 모르는군요." 개츠비가 조금 허둥대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데이지를 돌볼 일은 없어요."

"내가 안 돌본다고?" 톰은 눈을 크게 뜨고 웃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감정을 누를 여유가 있었다. "그건 또 왜지?"

"데이지는 당신을 떠날 겁니다."

"헛소리."

"아니, 떠날 거야." 데이지가 눈에 띄게 안간힘을 쓰며 말했다.

"데이지는 날 안 떠나!" 톰의 말이 느닷없이 개츠비를 위에서 내리눌렀다. "제 손으로 끼워 줄 반지마저 훔쳐 와야 할 한낱 사기꾼 때문이라면 더더욱 안 떠나지."

"이건 못 참아!" 데이지가 외쳤다. "아, 제발 우리 여기서 나가."

"도대체 그쪽 정체가 뭐야?" 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쪽은 마이어 울프심하고 몰려다니는 패거리 가운데 하나야, 그 정도는 나도 마침 알고 있지. 그쪽 일을 좀 조사해 봤는데,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 거야."

"그거야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올드 스포트." 개츠비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쪽 '약국'이 뭔지 알아냈지." 톰은 우리 쪽으로 돌아서서 빠르게 말했다. "이 작자하고 그 울프심이라는 자가 여기 뉴욕하고 시카고에서 뒷골목 약국을 잔뜩 사들여서는, 곡물로 만든 알코올을 계산대 너머로 버젓이 팔았어. 이 작자가 부리는 잔재주 가운데 하나지. 처음 봤을 때부터 밀주업자라고 점찍었는데, 크게 틀리지 않았군."

"그래서요?" 개츠비가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 친구 윌터 체이스도 자존심 따위는 내세우지 않고 거기 한몫 끼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그 친구를 궁지에 내버려 뒀지, 안 그래? 뉴저지에서 한 달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내버려 뒀잖아. 맙소사! 윌터가 그쪽 얘기 하는 걸 한번 들어 봐야 하는데."

"그 사람은 땡전 한 푼 없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돈을 좀 만질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아했지요, 올드 스포트."

"나한테 '올드 스포트'라고 하지 마!" 톰이 소리쳤다. 개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윌터는 도박법 위반으로도 그쪽을 걸고넘어질 수 있었는데, 울프심이 겁을 줘서 입을 틀어막았지."

처음 보는 듯하면서도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 표정이 다시 개츠비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그 약국 일은 푼돈 벌이에 지나지 않았어." 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이 벌이고 있는 일은 월터조차 나한테 털어놓기를 겁내더군."

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개츠비와 남편 사이를 번갈아 보고 있는 데이지를 흘끗 보았고, 이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무언가를 턱 끝에 얹고 균형을 잡기 시작한 조던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개츠비 쪽으로 돌아선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흠칫 놀랐는데,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지껄여 대던 험담 따위는 더없이 경멸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는 꼭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보였다. 한순간, 그 얼굴에 굳어 있던 표정은 바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로밖에는 달리 묘사할 길이 없었다.

그 표정은 이내 지나갔고, 개츠비는 흥분해서 데이지에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부인하며 아무도 꺼내지 않은 비난에 맞서 제 이름을 변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 마디 할 때마다 데이지는 점점 더 깊이 제 안으로 움츠러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마저 그만두었으며, 오후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동안 죽은 꿈만이 홀로 싸움을 이어 갔다. 이제는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만져 보려 애쓰며, 방 건너편에 있는 저 잃어버린 목소리를 향해, 불행하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그 목소리가 다시 가자고 애원했다.

"제발, 톰! 더는 못 견디겠어."

겁에 질린 그 눈은, 데이지가 품었던 뜻이 무엇이었든 그동안 냈던 용기가 무엇이었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말해 주고 있었다.

"둘이 먼저 집으로 출발해, 데이지." 톰이 말했다. "개츠비 씨 차로."

데이지는 이제 겁먹은 얼굴로 톰을 보았지만, 톰은 너그러운 척하는 경멸을 담아 고집했다.

"어서 가. 이제 귀찮게 굴지 않을 거야. 제 분수도 모르고 벌인 그 시시한 연애 놀음이 끝났다는 걸 이 친구도 알았을 테니까."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불이 꺼지듯 뚝 끊겨, 한낱 우연 같은 존재가 되어, 유령처럼 외따로, 우리의 연민에서조차 떨어져 나간 채 사라져 버렸다.

잠시 뒤 톰이 일어나 따지도 않은 위스키 병을 수건에 싸기 시작했다.

"이거 마실 사람? 조던?…… 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닉?" 톰이 다시 물었다.

"뭐?"

"좀 마실래?"

"아니…… 방금 생각났는데,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는 서른이었다. 내 앞에는 새로운 10년으로 이어지는, 불길하고 위협적인 길이 뻗어 있었다.

우리가 톰과 함께 쿠페에 올라 롱아일랜드로 출발한 것은 일곱 시였다. 톰은 의기양양하게 웃어 가며 쉴 새 없이 떠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보도의 낯선 소란이나 머리 위를 지나는 고가 철도의 굉음만큼이나 조던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사람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언쟁이 모두 뒤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스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만족했다. 서른. 그것은 고독한 10년이 오리라는 약속이었고, 점점 줄어드는 독신 친구들의 명단, 점점 홀쭉해지는 열정의 서류 가방, 점점 성겨지는

머리숱이었다. 하지만 내 곁에는, 데이지와는 달리 진작 잊어버렸어야 할 꿈을 이 나이에서 저 나이로 언제까지고 끌고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현명한 조던이 있었다. 어두운 다리를 건널 때 조던의 창백한 얼굴이 나른하게 내 윗옷 어깨에 기대 왔고, 서른을 알리는 그 무시무시한 종소리는 안심하라는 듯 지그시 눌러 오는 조던의 손길 속에 잦아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늘하게 식어 가는 황혼 속을,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잿더미 옆에서 싸구려 커피집을 하던 젊은 그리스인 미케일리스가 검시 심리의 주요 증인이었다. 그날 미케일리스는 한낮의 더위를 잠으로 흘려보내고 다섯 시가 넘어서야 어슬렁어슬렁 정비소로 건너갔는데, 가보니 조지 윌슨이 사무실에서 앓고 있었다. 정말로 몹시 아파서, 얼굴은 제 옅은 머리칼만큼이나 허옜고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미케일리스는 들어가서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그러면 장사를 적잖이 놓칠 거라며 마다했다. 이웃이 그렇게 윌슨을 구슬리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위층에 집사람을 가둬 놨어요." 윌슨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모레까지 거기 있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린 이사 갈 거고요."

4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 윌슨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릴 만한 사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미케일리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윌슨은 대체로 진이 다 빠져 버린 그런 사내였다. 일하지 않을 때면 문간에 내놓은 의자에 앉아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누가 말을 걸면 어김없이 싹싹하지만 아무 빛깔도 없는 웃음을 웃었다. 그는 아내에게 속한 사람이었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미케일리스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윌슨은 한마디도 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 이웃에게 야릇하고 의심

어린 눈길을 던지면서 어느 날 몇 시쯤에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다. 미케일리스가 슬슬 불안해질 무렵 마침 일꾼 몇이 그의 식당으로 가느라 문 앞을 지나갔고, 미케일리스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고 그 틈을 타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냥 깜박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그뿐이라고 미케일리스는 말했다. 일곱 시가 조금 지나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아래층 정비소에서 윌슨 부인이 목청을 높여 악다구니를 퍼붓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아까 나눈 이야기가 생각났다.

"때려 봐!" 머틀이 소리치는 게 들렸다. "날 바닥에 패대기치고 때려 보라고, 이 더러운 겁쟁이 새끼야!"

잠시 뒤 머틀이 두 팔을 내젓고 고함을 지르며 땅거미 속으로 뛰쳐나왔다. 미케일리스가 제 가게 문간에서 한 발짝 떼기도 전에 일은 끝나 있었다.

신문들이 '죽음의 차'라고 부른 그 차는 짙어 가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한순간 비극적으로 휘청거리더니, 서지도 않고 그대로 다음 굽잇길을 돌아 사라져 버렸다. 마브로 미케일리스는 그 차의 색깔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서, 맨 처음 달려온 경찰에게는 연한 초록색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차, 그러니까 뉴욕 쪽으로 가던 차는 100야드쯤 더 가서 멈춰 섰고, 운전자가 서둘러 되짚어 달려온 그곳에는 목숨이 난폭하게 꺼져 버린 머틀 윌슨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진하고 검붉은 피를 흙먼지에 섞고 있었다.

미케일리스와 그 운전자가 가장 먼저 머틀에게 다다랐다. 그러나 아직 땀에 젖어 축축한 블라우스를 잡아 뜯어 헤쳤을 때, 두 사람은 왼쪽 젖가슴이 떨어지다 만 조각처럼 덜렁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 아래에서 심장이 뛰는지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없었다. 입은 크게 벌어진 채 양쪽

입가가 조금 찢어져 있었다. 그토록 오래 쌓아 두었던 엄청난 생기를 내놓다가 목이 조금 막혔던 것 같았다.

우리는 아직 꽤 떨어져 있을 때부터 자동차 서너 대와 모여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사고로군!" 톰이 말했다. "잘됐어. 윌슨도 드디어 일거리가 좀 생기겠네."

톰은 속도를 늦추었지만 그래도 멈춰 설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비소 문간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는데, 하나같이 숨을 죽인 채 무언가에 온 정신을 빼앗긴 그 얼굴들을 보고 톰은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좀 보고 가지." 톰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보기만 하고."

그제야 정비소 안에서 공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쉬지 않고 새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쿠페에서 내려 문 쪽으로 걸어가는 사이 그 소리는 차츰 또렷해지더니, 헐떡이는 신음 속에서 거듭거듭 되풀이되는 "오, 하느님!"이라는 말이 되었다.

"여기 뭔가 큰일이 났군." 톰이 흥분해서 말했다.

톰은 발끝으로 서서 둥글게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안을 밝히는 것이라고는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철망 갓 속의 노란 전등 하나뿐이었다. 그러더니 톰은 목구멍에서 거친 소리를 한 번 내고는, 억센 두 팔을 우악스럽게 내질러 사람들을 밀어젖히며 안으로 헤치고 들어갔다.

톰이 헤집고 들어간 자리는 불평하는 웅성거림이 번지는 가운데 다시 메워졌고, 한동안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새로 몰려든 사람들이 줄을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조던과 나는 느닷없이 안쪽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머틀 윌슨의 시신은 담요 한 장에 싸이고 그 위에 또 한 장이 덧씌워진 채 벽 옆 작업대 위에 뉘어 있었다. 무더운 밤인데도 오한에 떠는 사람 같았다. 톰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그 위로 몸을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곁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경찰 하나가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쓰고 고치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가면서 조그만 수첩에 이름들을 받아 적고 있었다. 휑한 정비소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 높고 신음 섞인 말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는데, 이윽고 사무실의 한 단 높은 문턱 위에서 두 손으로 문설주를 붙든 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윌슨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이따금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윌슨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윌슨의 눈은 흔들리는 전등에서 벽 옆 작업대 위에 얹힌 것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전등으로 홱 되돌아가곤 했고, 그러는 내내 그 높고 끔찍한 부르짖음을 쉴 새 없이 토해 냈다.

"오, 하느니임! 오, 하느니임! 하느니임! 오, 하느니임!"

이윽고 톰이 고개를 홱 쳐들더니, 초점 잃은 눈으로 정비소 안을 휘둘러보고 나서 경찰에게 무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웅얼웅얼 건넸다.

"엠, 에이, 브이……" 경찰은 한 자씩 불러 가며 적고 있었다. "……오……"

"아니, 알……" 사내가 바로잡았다. "엠, 에이, 브이, 알, 오……"

"내 말 좀 들어!" 톰이 낮은 목소리로 사납게 내뱉었다.

"알……" 경찰이 말했다. "……오……"

"지……"

"지……" 톰의 넓적한 손이 어깨 위로 탁 떨어지자 경찰이 고개를 들었다. "뭐요, 형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라고."

"차에 치였어요. 그 자리서 즉사."

"그 자리에서 즉사." 톰이 멍한 눈으로 되뇌었다.

"여자가 찻길루 뛰어들었어요. 개자식이 차를 세우지도 않았고."

"차가 두 대였어요." 미케일리스가 말했다. "하나는 오구, 하나는 가구. 알겠어요?"

"가다니, 어디로요?"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가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미케일리스의 손이 담요 쪽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멈추더니 옆구리로 툭 떨어졌다. "……저기로 뛰어나갔는데, 뉴욕서 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시속 30마일인가 40마일로 달리던 차가요."

"여기 지명이 뭐요?" 경찰관이 다그쳐 물었다.

"이름 같은 거 없어요."

안색이 창백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흑인 사내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노란 차였어요." 그가 말했다. "커다란 노란 차요. 새 차였고요."

"사고 나는 거 봤어요?" 경찰이 물었다.

"아뇨. 하지만 저 아래서 그 차가 내 옆을 지나갔는데, 40마일도 넘게 밟고 있었어요. 50마일, 60마일은 됐을 거예요."

"이리 와서 이름 좀 댑시다. 자, 좀 비켜요. 이 사람 이름을 받아 적어야 하니까."

이 대화 가운데 몇 마디가 사무실 문간에서 몸을 흔들던 윌슨의 귀에까지 가 닿았던 모양인지, 헐떡이며 내지르는 그 부르짖음 사이로 갑자기 새로운 말이 터져 나왔다.

"무슨 차였는지 말 안 해 줘도 돼요! 무슨 차였는지 난 안다고요!"

톰을 지켜보고 있자니 윗옷 밑에서 어깨 뒤쪽의 근육 덩어리가 팽팽하게 조여드는 게 보였고, 이어 톰은 재빨리 윌슨에게 걸어가 그 앞에 버티고 서더니 두 팔 윗부분을 단단히 움켜잡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톰이 퉁명스러우면서도 달래는 투로 말했다.

윌슨은 톰에게 눈길이 가 닿자 흠칫 발끝으로 솟구치듯 몸을 세웠는데, 톰이 붙잡아 세워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을 것이다.

"잘 들어." 톰이 윌슨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난 뉴욕에서 방금 막 도착했어. 우리가 얘기하던 그 쿠페를 갖다주러 오는 길이었다고. 오늘 오후에 내가 몰던 그 노란 차는 내 차가 아니었어. 알아듣겠어? 오후 내내 그 차는 구경도 못 했어."

톰이 하는 말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던 사람은 그 흑인과 나뿐이었지만, 경찰은 그 어조에서 뭔가를 알아챘는지 사나운 눈초리로 이쪽을 건너다보았다.

"그게 다 무슨 소리요?" 경찰이 따져 물었다.

"이 사람 친구야." 톰은 고개만 돌렸을 뿐 윌슨의 몸을 붙든 두 손은 늦추지 않았다. "사고 낸 차를 안다는군…… 노란 차였대."

어떤 막연한 충동에 이끌렸는지, 경찰은 미심쩍은 눈으로 톰을 쳐다보았다.

"그럼 댁의 차는 무슨 색이에요?"

"파란 차야. 쿠페."

"우린 뉴욕에서 곧장 오는 길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 조금 뒤에서 차를 몰고 오던 누군가가 그 말이 맞다고 거들자, 경찰은 돌아섰다.

"자,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제대로 불러 주면……"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번쩍 안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의자에 앉혀 놓고 다시 나왔다.

"누가 이리 와서 이 사람 곁에 좀 앉아 있지." 톰이 명령조로 딱 잘라 말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두 사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톰은 두 사람을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한 단짜리 계단을 내려왔는데 눈길은 작업대를 피하고 있었다. 내 곁을 지나치면서 톰이 속삭였다. "나가자."

우리는 쭈뼛쭈뼛 남의 눈을 의식하며, 톰의 위압적인 두 팔이 길을 트는 대로 아직도 불어나는 구경꾼들을 헤치고 나왔다. 나오는 길에 왕진 가방을 든 의사 하나가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엇갈렸는데, 30분 전에 혹시나 하는 헛된 희망을 걸고 불러 둔 바로 그 의사였다.

톰은 굽잇길을 벗어날 때까지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러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자 쿠페는 밤길을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낮고 쉰 흐느낌이 들려서 보니 톰의 얼굴 위로 눈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빌어먹을 겁쟁이 자식!" 톰이 훌쩍거렸다. "차를 세우지도 않았어."

바스락거리는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뷰캐넌네 집이 불쑥 우리 쪽으로 떠올라 왔다. 톰은 현관 옆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보았는데, 덩굴 사이로 창문 두 개가 불빛으로 피어 있었다.

"데이지가 와 있군." 톰이 말했다. 차에서 내리면서 톰은 나를 흘끗 보더니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웨스트에그에 내려 주고 올 걸 그랬어, 닉. 오늘 밤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새 톰은 사람이 달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달빛이 내린 자갈을 밟으며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톰은 짤막하고 시원시원한 말 몇 마디로 그 상황을 척척 정리해 버렸다.

"택시를 불러 줄 테니까 그걸 타고 집에 가. 기다리는 동안 조던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이라도 좀 차려 달라고 해. 먹을 생각이 있으면 말이야." 톰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아니, 됐어. 그래도 택시는 불러 주면 고맙겠어. 밖에서 기다릴게."

조던이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들어오지 않을래, 닉?"

"아니, 됐어."

나는 속이 좀 메슥거렸고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도 조던은 잠시 더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아직 아홉 시 반밖에 안 됐어." 조던이 말했다.

죽어도 들어가기 싫었다. 오늘 하루로 그 사람들 모두에게 질릴 대로 질려 있었는데, 문득 보니 그 모두 속에 조던도 들어 있었다. 내 표정에서 그런 기색을 얼마쯤 읽었던 모양인지, 조던은 홱 돌아서서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몇 분을 보냈고, 이윽고 안에서 누가 수화기를 드는 소리와 집사가 택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대문 곁에서 기다릴 생각으로, 집을 등지고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20야드도 채 못 갔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불렀고, 두 덤불 사이에서 개츠비가 길로 걸어 나왔다.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그의 분홍색 양복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걸 보면, 그 무렵 나는 기분이 어지간히 이상해져 있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올드 스포트."

왠지 그건 비열한 짓으로 보였다. 어쩌면 그는 곧 저 집을 털러 들어갈 참인지도 몰랐고, 그의 등 뒤 어두운 덤불 속에서 음험한 얼굴들이, 이른바 '울프심 쪽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오는 길에 무슨 소동이라도 보셨습니까?" 잠시 뒤 그가 물었다.

"네."

개츠비가 머뭇거렸다.

"그 여자는 죽었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데이지한테도 그럴 것 같다고 했어요. 충격은 한꺼번에 오는 편이 낫지요. 데이지는 꽤 잘 견뎠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만이 중요하다는 듯이 말했다.

"샛길로 해서 웨스트에그로 왔고, 차는 제 차고에 넣어 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봤을 겁니다. 물론 장담은 못 하지만요."

그 무렵 나는 그가 너무나 싫어져서, 그 생각이 틀렸다고 굳이 일러 줄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가 물었다.

"윌슨 부인이에요. 남편이 그 정비소 주인이고요.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핸들을 꺾어 보려고 했는데……" 그가 말을 끊었고, 순간 나는 진실을 짐작했다.

"데이지가 운전했어요?"

"네." 잠시 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운전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을 떠날 때 데이지가 몹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운전을 하면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막 엇갈리는 순간 이 여자가 우리 쪽으로 뛰어나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여자가 우리를 누군가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슨 말을 하려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이지가 처음에는 그 여자를 피해 맞은편 차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그만 겁을 먹고 도로 틀었어요. 제 손이 핸들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몸이 다 찢겨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올드 스포트." 그가 움찔했다. "어쨌든, 데이지가 가속 페달을 밟아 버렸어요. 세우게 하려고 했지만 데이지가 세우질 못해서, 제가 손 브레이크를 당겼지요. 그러자 데이지가 제 무릎 위로 쓰러졌고, 그다음엔 제가 몰고 왔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저 사람이 오늘 오후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데이지를 들볶으려 드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데이지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험하게 굴면 불을 껐다가 다시 켜기로 했습니다."

"톰은 데이지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지금은 데이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못 믿습니다, 올드 스포트."

"얼마나 기다리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밤새도록요. 어쨌든 다들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요."

그때 문득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데이지가 운전했다는 걸 톰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 톰은 거기서 어떤 연결 고리를 보았다고

여길지도 몰랐다. 아니,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집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는 불 켜진 창이 두세 개 있었고, 2층 데이지의 방에서는 분홍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말했다. "무슨 소란이 벌어질 기미가 있는지 제가 가서 볼게요."

나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되돌아가, 자갈길을 소리 죽여 가로지른 다음 발끝으로 베란다 계단을 올라갔다. 응접실 커튼이 열려 있어서 방이 비었다는 게 보였다. 석 달 전 그 6월 밤에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현관을 가로질러 가자 작은 네모꼴 불빛 하나가 나타났는데, 아마 식료품실 창문인 듯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창턱께에 틈 하나가 벌어져 있었다.

데이지와 톰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는 식은 프라이드치킨 한 접시와 에일 두 병이 놓여 있었다. 톰은 식탁 너머로 데이지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골똘했던지 그 손이 어느새 데이지의 손 위에 내려앉아 그 손을 덮고 있었다. 이따금 데이지는 톰을 올려다보며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 둘 다 치킨에도 에일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였다.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 광경에는 영락없이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감돌고 있어서, 누가 보았더라도 두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발끝으로 현관을 빠져나오는데, 내 택시가 어두운 길을 더듬으며 집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내가 두고 온 진입로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저쪽은 다 조용합니까?" 그가 불안한 듯 물었다.

"네, 다 조용해요." 나는 머뭇거렸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개츠비는 고개를 저었다.

"데이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올드 스포트."

그는 윗옷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더니, 내가 곁에 있으면 그 불침번의 신성함에 흠이라도 간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려 간절한 눈길로 집을 살폈다. 그래서 나는 걸어 나왔고, 그는 달빛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며.

---

1. 트리말키오(Trimalchio)는 1세기 로마 작가 페트로니우스의 소설 《사티리콘》에 나오는 인물. 노예 출신으로 벼락부자가 되어, 손님들을 불러 모아 터무니없이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인다.

2. 민트 줄렙(mint julep)은 버번위스키에 설탕과 민트 잎, 잘게 부순 얼음을 넣은 칵테일. 미국 남부, 특히 켄터키주에서 즐겨 마신다.

3. 빌럭시(Biloxi)는 미시시피주 멕시코만 연안의 도시로, 테네시주에는 빌럭시가 없다. '블록스(Blocks)'라는 별명과 상자(boxes)를 만들었다는 말이 빌럭시라는 이름과 소리로 맞물리는 말장난이다.

4. 카피올라니(Kapiolani)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공원이고, 뒤에 나오는 펀치볼(Punch Bowl)은 호놀룰루 시내의 사화산 분화구다. 톰과 데이지는 결혼식 뒤 남태평양으로 석 달 동안 여행을 떠났다(4장).

8장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해협에서는 안개 경적이 쉴 새 없이 신음했고, 나는 반쯤 앓는 사람처럼 뒤척이며 기괴한 현실과 사납고 무서운 꿈 사이를 오갔다. 새벽녘 택시 한 대가 개츠비네 진입로를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곧바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에게 해 줄 말이, 경고해 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날이 밝으면 이미 늦을 것 같았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 보니 현관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개츠비는 홀의 탁자에 기대선 채 낙담 때문인지 졸음 때문인지 몸이 축 늘어져 무거워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시쯤 데이지가 창가로 나와서 잠깐 서 있더니 불을 껐어요."

그날 밤 담배를 찾아 넓은 방들을 뒤지고 다닐 때만큼 그 집이 거대해 보인 적은 없었다. 우리는 커다란 천막 같은 커튼들을 밀어젖히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벽을 더듬어 나갔는데, 한 번은 내가 유령 같은 피아노 건반 위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물에 첨벙 빠지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했다. 어디에나 영문 모를 만큼 먼지가 수북했고, 여러 날 창 한 번 열지 않은 것처럼 방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처음 보는 탁자 위에서 담배 보관함을 찾아냈는데, 안에는 묵어서 바싹 마른 담배 두 개비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응접실의 프랑스식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어둠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보내며 앉아 있었다.

"어디든 좀 떠나 계세요." 내가 말했다. "경찰이 그 차를 찾아낼 게 거의 확실해요."

"지금 떠나라고요, 올드 스포트?"

"애틀랜틱시티에 가서 일주일쯤 지내시든가, 아니면 몬트리올로 올라가시든가요."

그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데이지가 어떻게 할지 알기 전에는 도저히 데이지를 두고 떠날 수 없었으니까.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나는 차마 그 손을 억지로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가 댄 코디와 함께한 젊은 날의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는데, 톰의 단단한 악의에 부딪혀 '제이 개츠비'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오래도록 남몰래 이어 온 그 호화로운 연극도 끝이 나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인정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어 한 것은 데이지 이야기였다.

데이지는 개츠비가 처음으로 알게 된 '좋은 집안' 아가씨였다. 남에게 밝히지 않은 이런저런 신분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닿은 적은 있었지만, 그럴 때면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데이지는 가슴이 뛰도록 탐나는 여자였다. 처음에는 캠프 테일러의 다른 장교들과 어울려, 나중에는 혼자서 데이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집에 숨 막힐 듯한 긴장이 서린 까닭은 거기 데이지가 산다는 데 있었다. 훈련소에 있는 제 천막이 개츠비에게 그렇듯, 그 집은 데이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 집에는 무르익은 신비가 감돌았다. 위층에는 다른 어느 집보다 아름답고 서늘한

침실들이 있을 것만 같았고, 복도마다 즐겁고 눈부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벌써 곰팡내를 풍기며 라벤더와 함께 장롱 깊숙이 넣어 둔 연애가 아니라, 싱싱하게 숨 쉬는 연애, 올해 나온 번쩍이는 자동차와 꽃이 채 시들지도 않은 무도회의 향기가 나는 연애의 기척이 있었다. 이미 많은 남자가 데이지를 사랑했다는 것도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 때문에 개츠비의 눈에는 데이지의 값어치가 더 올라갔다. 그 남자들이 집 안 어디에나 머물러 있는 것 같았고, 아직도 떨림이 가시지 않은 감정들이 그림자와 메아리가 되어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개츠비는 자기가 데이지의 집에 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우연 덕분이라는 걸 알았다. 제이 개츠비로서 맞이할 앞날이 아무리 찬란하다 해도, 지금은 과거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젊은이일 뿐이었고, 군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망토는 언제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릴지 몰랐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한껏 이용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게걸스럽게, 염치도 없이 손에 넣었다. 그러다 마침내 바람 한 점 없는 10월의 어느 밤, 데이지를 가졌다. 데이지의 손을 만질 자격조차 실은 없었으므로, 바로 그 때문에 가졌다.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경멸했을 수도 있었다. 거짓 구실로 데이지를 가진 것만은 분명했으니까. 있지도 않은 수백만 달러를 내세웠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일부러 데이지가 마음을 놓게 만들었고, 자기가 데이지와 거의 같은 계층 출신이라고, 데이지를 넉넉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럴 형편이 전혀 없었다. 뒤에서 든든히 받쳐 줄 번듯한 집안도 없었고, 얼굴 없는 정부가 변덕을 한 번 부리기만 하면 세상 어디로든 날려 갈 신세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경멸하지 않았고, 일도 상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마 처음에는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겨서 떠날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 성배를 좇는 길에 제 몸을 바쳐 버린

뒤였다. 데이지가 특별하다는 건 알았지만, '좋은 집안' 아가씨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데이지는 부유한 제 집 속으로, 부유하고 충만한 제 삶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개츠비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그는 자기가 데이지와 결혼했다고 느꼈다. 그뿐이었다.

이틀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숨이 가빴던 쪽은, 어쩐지 배신당한 쪽은 개츠비였다. 데이지네 현관은 별빛으로 환했는데, 그 별빛마저 돈을 주고 사들인 호사 같았다. 데이지가 그에게로 몸을 돌리자 등나무 소파가 멋들어지게 삐걱거렸고, 그는 그 묘하고 사랑스러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데이지는 감기에 걸린 탓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잠기고 매혹적이었다. 개츠비는 부가 가두어 간직해 주는 젊음과 신비를, 수많은 옷가지의 싱그러움을,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뜨거운 몸부림 위에서 은처럼 빛나며 안전하고 도도하게 서 있는 데이지를 벅차도록 실감했다.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는 다 못 합니다, 올드 스포트. 한동안은 데이지가 차라리 저를 차 버렸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군요. 데이지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지는 제가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자기가 아는 것과 달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야망하고는 한참 먼 데서 시시각각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아무래도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얼 할 건지 데이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즐거운데, 굳이 큰일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해외로 떠나기 전 마지막 오후, 개츠비는 데이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추운 가을날이었다. 방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데이지의 두 뺨은 발그레했다. 이따금 데이지가 몸을 움직이면

그는 팔을 조금 고쳐 둘렀고, 한 번은 데이지의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칼에 입을 맞추었다. 이튿날로 다가온 긴 이별에 대비해 깊은 추억 하나를 남겨 주려는 듯, 그 오후는 한동안 두 사람을 고요하게 해 주었다. 사랑을 나눈 한 달 동안, 데이지가 말없는 입술로 그의 윗옷 어깨를 스칠 때만큼, 잠든 사람을 어루만지듯 개츠비가 데이지의 손가락 끝을 가만히 만질 때만큼 두 사람이 가까웠던 적은 없었고, 그토록 깊이 마음이 오간 적도 없었다.

전쟁에서 개츠비는 눈부시게 잘 해냈다. 전선에 나가기 전에 이미 대위였고, 아르곤 전투를 치른 뒤에는 소령으로 진급해 사단 기관총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휴전이 되자 미친 듯이 귀국하려고 애썼지만, 무슨 착오인지 오해인지 때문에 엉뚱하게도 옥스퍼드로 가게 되었다. 이제 애가 타기 시작했다. 데이지의 편지에서 신경이 곤두선 절망 같은 것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데이지로서는 개츠비가 왜 올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바깥세상의 압력이 데이지를 짓누르고 있었다. 데이지는 그를 만나고 싶었고, 곁에 있는 그를 느끼고 싶었고, 결국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안심을 얻고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이지는 젊었고, 그 인공적인 세계에는 난초와, 기분 좋고 명랑한 속물근성과, 한 해의 박자를 정하며 삶의 슬픔과 은근한 암시를 새 곡조에 담아내는 악단들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밤새도록 색소폰들이 '빌 스트리트 블루스(Beale Street Blues)'[1]의 가망 없는 넋두리를 울부짖는 사이, 금빛 은빛 무도화 백 켤레가 반짝이는 먼지를 쓸며 스텝을 밟았다. 차를 마시는 잿빛 오후에도 이 나직하고 달콤한 열기로 쉼 없이 고동치는 방들이 늘 있었고, 싱그러운 얼굴들은 서글픈 호른 소리에 날려 무도장 바닥을 떠도는 장미 꽃잎처럼 이리저리 흘러 다녔다.

데이지는 계절을 따라 이 어스름한 세계를 다시 누비기 시작했다. 어느새 하루에도 대여섯 남자와 대여섯 번씩 약속을 잡았고, 침대 곁 바닥에서 야회복의 구슬 장식과 시폰 자락이 시들어 가는 난초들과 뒤엉켜 있는 채로 새벽녘에야 까무룩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내내 데이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데이지는 제 삶이 지금 당장 모양을 갖추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힘이, 사랑이든 돈이든 의심할 여지 없는 실리든, 가까이 손 닿는 곳에 있는 힘이 내려 주어야 했다.

봄이 한창일 때 톰 뷰캐넌이 나타나면서 그 힘은 모양을 갖추었다. 톰은 몸집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건실하게 묵직했고, 데이지는 우쭐했다. 틀림없이 얼마간의 갈등이 있었을 테고, 얼마간의 안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 편지가 개츠비에게 닿았을 때 그는 아직 옥스퍼드에 있었다.

이제 롱아일랜드에 새벽이 와 있었다. 우리는 아래층의 나머지 창문들을 마저 열며 돌아다녔고, 집 안은 잿빛에서 금빛으로 바뀌어 가는 빛으로 가득 찼다. 나무 그림자 하나가 이슬 위로 불쑥 드리웠고, 푸른 잎사귀들 사이에서 유령 같은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공기 속에는 바람이라 하기도 어려울 만큼 느릿하고 기분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 서늘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데이지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츠비가 창가에서 돌아서더니 따지듯 나를 보았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드 스포트. 아까 오후에 데이지는 몹시 흥분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데이지가 겁을 먹도록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았으니까요. 저를 무슨 싸구려 사기꾼처럼 보이게 만들었지요. 그 바람에 데이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는 침울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물론 두 사람이 막 결혼했을 무렵에는 데이지가 그 사람을 잠깐, 정말 잠깐 사랑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때도 저를 더 사랑했겠지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불쑥 묘한 말을 꺼냈다.

"어쨌거나 그건 그저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을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가 이 일을 두고 품은 관념에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강렬함이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 말고는.

개츠비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톰과 데이지는 아직 신혼여행 중이었다. 그는 남은 군대 봉급을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 비참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여행길에 올라 루이빌로 갔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며, 11월의 밤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나란히 또각거리던 거리들을 걸었고, 데이지의 흰 차를 타고 달려가던 외진 곳들을 다시 찾았다. 데이지의 집이 언제나 다른 집들보다 신비롭고 화사해 보였듯이, 데이지가 떠나고 없는데도 그가 떠올리는 그 도시에는 서글픈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다.

조금만 더 애써 찾았더라면 데이지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데이지를 뒤에 두고 떠나는 거라고 느끼며 그는 루이빌을 떠났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여서 보통 객차를 탔는데, 객차 안은 더웠다. 객차 끝의 트인 승강대로 나가 접이식 의자에 앉자, 역이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낯선 건물들의 뒷모습이 지나갔다. 이윽고 기차는 봄 들판으로 나섰고, 노란 전차 한 대가 잠시 기차와 경주하듯 나란히 달렸다. 그 전차 안에는 언젠가 무심한 거리에서 데이지 얼굴의 창백한 마법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철로가 휘어지자 기차는 이제 해를 등지고 달렸다. 점점 낮게 가라앉는 해는, 데이지가 숨 쉬며 살던 도시, 이제 사라져 가는 그 도시 위로 축복을 내리듯 제 빛을 넓게 펼치는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한 가닥 공기라도 움켜쥐려는 듯이, 데이지가 자기를 위해 사랑스럽게 만들어 준 그곳의 한 조각이라도 건져 내려는 듯이.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흐려진 눈앞을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고, 그는 그 가장 싱그럽고 가장 좋은 부분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

아침을 다 먹고 현관으로 나간 것은 아홉 시였다. 밤사이 날씨가 확 달라져서 공기에서 가을 내음이 났다. 개츠비가 예전에 부리던 하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정원사가 계단 아래로 다가왔다.

"오늘 수영장 물을 빼려고 합니다, 주인님. 이제 곧 낙엽이 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꼭 배수관이 말썽을 부리거든요."

"오늘은 하지 마세요." 개츠비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듯 나를 돌아보았다. "올드 스포트, 제가 여름 내내 저 수영장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기차 시간까지 12분 남았네요."

시내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일다운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을 상태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개츠비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 기차를 놓치고, 다음 기차까지 놓치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전화할게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꼭 그러십시오, 올드 스포트."

"정오쯤 전화할게요."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데이지도 전화하겠지요." 그는 내가 그렇다고 맞장구쳐 주기를 바라는 듯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겠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는 악수를 했고, 나는 걸음을 옮겼다. 산울타리에 막 다다르려는데 문득 무언가가 생각나서 돌아섰다.

"그 사람들, 다 썩어 빠진 족속이에요." 나는 잔디밭 너머로 소리쳤다. "그 빌어먹을 무리를 몽땅 합쳐도 당신 하나만 못해요."

나는 그 말을 한 것이 두고두고 다행스럽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내가 건넨 칭찬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개츠비는 먼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얼굴 가득 그 빛나는,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피워 올렸다. 우리가 줄곧 그 사실을 두고 신이 나서 한통속이었다는 듯이. 화려한 분홍색 넝마 같은 그 양복이 흰 계단 위에 밝은 빛깔의 점 하나를 찍어 놓았고, 나는 석 달 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의 저택에 처음 갔던 밤을 떠올렸다. 그날 잔디밭과 진입로는 주인이 속으로 썩었으리라 짐작하는 얼굴들로 붐볐고, 그는 저 계단에 서서 썩을 줄 모르는 제 꿈을 감춘 채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그동안 베풀어 준 환대에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는 늘 그 일로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도.

"안녕히 계세요." 내가 소리쳤다. "아침 잘 먹었어요, 개츠비."

시내에 올라가서는 끝도 없이 많은 주식의 시세를 한동안 목록으로 옮겨 적어 보려 했지만, 이내 회전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버렸다. 정오가 되기 직전 전화벨에 잠이 깼고, 나는 이마에 땀이 솟은 채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던 베이커였다. 조던은 자주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호텔이며 클럽이며 남의 집을 오가는 조던의 행방이 워낙 일정치 않아서, 달리는 연락이 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평소 전화선을 타고 건너오는 조던의 목소리는 싱그럽고 서늘해서, 초록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떠 올린 잔디 한 조각이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목소리가 거칠고 메마르게 들렸다.

"데이지네 집에서 나왔어." 조던이 말했다. "지금 헴프스테드인데, 오후에 사우샘프턴으로 내려갈 거야."

데이지의 집을 나온 건 아마 눈치 있는 처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게 거슬렸고, 이어진 조던의 말에 몸이 굳어 버렸다.

"어젯밤엔 나한테 별로 다정하지 않더라."

"그런 판국에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어?"

잠깐 말이 끊겼다. 그러다가 조던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사우샘프턴에 가지 말고 오후에 시내로 들어갈까?"

"아니…… 오늘 오후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됐어."

"오늘 오후는 정말 안 돼. 이런저런……"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듯 더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누가 먼저 딸깍 소리가 나도록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만은 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다시는 조던과 말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 해도, 그날만큼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분 뒤 개츠비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어서 네 번이나 다시 걸었고, 마침내 짜증이 난 교환원이 디트로이트에서 걸려 올 장거리 전화 때문에 회선을 비워 두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시간표를 꺼내 세 시 오십 분 기차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생각을 좀 해 보려 했다. 막 정오였다.

그날 아침 기차로 잿더미 곁을 지날 때, 나는 일부러 객차 반대편으로 건너가 앉았다. 그 근처에는 하루 종일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것 같았다. 꼬마들은 흙먼지 속에서 거뭇한 얼룩을 찾아다니고, 말 많은 사내 하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 떠들어 대다가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조차 점점 실감이 나지 않아 더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될 테고, 그러면 머틀 윌슨의 비극적인 업적도 잊히고 말 터였다.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 전날 밤 우리가 떠난 뒤 정비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머틀의 동생 캐서린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그날 밤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제 원칙을 깬 모양인지, 캐서린은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구급차가 벌써 플러싱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사람들이 겨우 그걸 납득시키자 캐서린은 곧바로 기절해 버렸다. 이 일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대목은 그것 하나뿐이라는 듯이. 친절해서였는지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누군가 캐서린을 자기 차에 태우고 언니의 시신이 간 길을 뒤따라갔다.

자정이 한참 지나도록, 얼굴이 바뀌어 가는 구경꾼들이 정비소 앞으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빠져나가기를 되풀이했고, 그동안 조지 윌슨은 안쪽 소파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한동안은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정비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안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누군가 이건 너무한다며 문을 닫았다. 미케일리스와 다른 사내 몇이 윌슨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너덧 명, 나중에는 두세 명이었다. 그보다 더 나중에는 미케일리스가 제 가게로 돌아가 커피 한 주전자를 끓여 오는 동안, 마지막까지 남은 낯선 사내에게 15분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 뒤로 미케일리스는 새벽까지 윌슨과 단둘이 그곳에 있었다.

세 시쯤 되자 윌슨이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말의 결이 달라졌다. 한결 조용해지더니 노란 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노란 차가 누구 것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선언하듯 말하더니, 두어 달 전 아내가 얼굴에 멍이 들고 코가 퉁퉁 부은 채 시내에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불쑥 털어놓았다.

그러나 제 입으로 그 말을 하고 나자 윌슨은 움찔하더니, 다시 신음하는 목소리로 "오, 하느님!"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미케일리스는 서툴게나마 윌슨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 보려 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조지? 자, 잠깐만 좀 가만히 앉아서 내 말에 대답해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2년 됐어요."

"애는 가져 본 적 있어요? 자, 조지, 가만 좀 있어 봐요. 묻잖아요. 애를 가져 본 적 있어요?"

딱딱한 갈색 딱정벌레들이 흐릿한 전등에 자꾸 툭툭 부딪쳤다. 바깥 길로 자동차가 요란하게 내달릴 때마다, 미케일리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몇 시간 전에 서지 않고 가 버린 그 차처럼 들렸다. 시신이 누워 있던 작업대에 얼룩이 져 있어서 정비소 쪽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미케일리스는 사무실 안만 불편하게 서성였는데, 날이 새기 전에 그 방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 알게 될 정도였다. 이따금은 윌슨 곁에 앉아 좀 더 진정시켜 보려고 애썼다.

"가끔 나가는 교회 있어요, 조지? 오랫동안 안 나갔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에 전화해서 신부님더러 좀 와 달라구 하면, 그분이 조지하고 얘기를 좀 나눠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다니는 데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있어야 해요, 조지. 전에는 교회에 나가 봤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이봐요, 조지,

내 말 좀 들어 봐요.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건 옛날 일이에요."

대답하느라 애쓰는 사이 몸을 흔들던 박자가 흐트러졌고, 윌슨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빛바랜 두 눈에 반쯤은 뭔가 아는 듯하고 반쯤은 어리둥절한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거기 서랍 좀 봐요." 윌슨이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서랍요?"

"저 서랍, 저거요."

미케일리스는 손에 가장 가까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가죽에 은실을 땋아 넣은 작고 값비싼 개 목줄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아하니 새로 산 물건 같았다.

"이거요?" 미케일리스가 목줄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윌슨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후에 찾았어요. 집사람이 그걸 두고 뭐라고 둘러대려고 했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부인이 그걸 샀다는 말이에요?"

"얇은 종이에 싸서 자기 서랍장 위에 올려 뒀더라고요."

미케일리스는 거기서 딱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고, 윌슨의 아내가 개 목줄을 샀을 만한 이유를 열두어 가지나 늘어놓았다. 그런데 어쩌면 윌슨은 그런 설명 가운데 몇 가지를 전에 머틀에게서 이미 들었는지도 몰랐다. 윌슨이 다시 "오, 하느님!" 하고 속삭이기 시작했으니까. 달래던 사람은 미처 꺼내지 못한 설명 몇 가지를 허공에 남겨 둔 채 입을 다물었다.

"그럼 그놈이 집사람을 죽였네요." 윌슨이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이 딱 벌어졌다.

"누가요?"

"알아낼 방법이 있어요."

"조지, 지금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가 말했다.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침까지 가만히 좀 앉아 있어 봐요."

"그건 살인이에요."

"사고였어요, 조지."

윌슨은 고개를 저었다. 두 눈이 가늘어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다 안다는 듯한 "흥!"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다.

"난 알아요." 윌슨이 딱 잘라 말했다. "난 사람을 잘 믿는 축이라, 누구한테도 나쁜 맘 같은 건 안 먹어요. 그래도 한번 알게 된 건 확실히 알아요. 그 차에 탄 남자예요. 집사람은 그 남자한테 말을 하려고 뛰어나갔는데, 그놈은 차를 세우려 들지 않았어요."

미케일리스도 그 장면을 보았지만 거기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윌슨 부인이 어느 특정한 차를 세우려 했다기보다는 남편에게서 달아나던 중이었다고 믿었다.

"부인이 어떻게 그런 여자였겠어요?"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예요." 윌슨은 그걸로 대답이 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아아……"

윌슨은 다시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미케일리스는 목줄을 손에 쥐고 배배 꼬며 서 있었다.

"혹시 내가 전화해서 불러 줄 만한 친구 없어요, 조지?"

덧없는 기대였다. 미케일리스는 윌슨에게 친구가 없으리라고 거의 확신했다. 윌슨이라는 사람은 제 아내 하나 채워 주기에도 모자랐다. 조금 뒤 방 안에 변화가 생긴 것을, 창가로 푸른 기운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미케일리스는 반가웠다. 다섯 시쯤 되자 바깥이 제법 푸르러져서 전등을 탁 꺼도 될 만했다.

윌슨의 초점 잃은 눈길이 잿더미 쪽으로 향했는데, 그 위에서는 작은 잿빛 구름들이 야릇한 모양을 지으며 희미한 새벽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한참 말이 없던 끝에 윌슨이 중얼거렸다. "날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은 못 속인다고요. 집사람을 창가로 데려가서……" 윌슨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뒤쪽 창가로 걸어가더니, 얼굴을 유리에 바짝 대고 기대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하느님은 아셔. 당신이 한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은 못 속여!'"

그 뒤에 서 있던 미케일리스는, 스러져 가는 밤 속에서 창백하고 거대하게 막 떠오른 T. 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을 윌슨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세요." 윌슨이 되뇌었다.

"저건 광고판이에요." 미케일리스가 달래듯 일러 주었다. 무언가에 떠밀리듯 미케일리스는 창가를 떠나 방 안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윌슨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댄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서, 어스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여섯 시쯤 되자 미케일리스는 녹초가 되었고,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간밤에 함께 윌슨을 지키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미케일리스는 아침을 세 사람분 지었고, 그 사내와 둘이서 먹었다. 윌슨은 이제 한결 조용했다. 미케일리스는 잠을 자러 집에 갔다가 네 시간 뒤에 깨어 서둘러 정비소로 돌아왔는데, 윌슨은 사라지고 없었다.

윌슨은 내내 걸어서 움직였는데, 나중에 그 발자취를 추적해 보니 포트루스벨트로, 다시 개즈힐(Gad's Hill)로 이어져 있었다. 개즈힐에서는 먹지도 않을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샀다. 몹시 지쳐서 느릿느릿 걸었던 모양이다. 개즈힐에 이른 것이 정오였으니까. 거기까지는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밝히기가 어렵지 않았다. "좀 미친 사람처럼 구는" 남자를 보았다는 사내아이들도 있었고, 길가에 선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노려보더라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그러다 세 시간 동안 윌슨의 모습이 사라졌다. 경찰은 윌슨이 미케일리스에게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근거로, 그 세 시간 동안 그 일대 정비소를 하나하나 돌며 노란 차를 수소문했으리라고 짐작했다. 한편으로 그를 보았다고 나서는 정비소 사람은 끝내 하나도 없었으니, 어쩌면 윌슨에게는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낼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두 시 반에 윌슨은 웨스트에그에 있었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개츠비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 무렵 윌슨은 이미 개츠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두 시에 개츠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누구든 전화를 하면 수영장으로 알려 달라고 집사에게 일러두었다. 그러고는 차고에 들러 여름 내내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던 공기 매트리스를 꺼냈고, 운전사가 거들어 바람을 넣었다.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붕 없는 차를 밖으로 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오른쪽 앞 흙받이를 손봐야 할 형편이었으니까.

개츠비는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한 번은 멈춰 서서 매트리스를 조금 고쳐 멨는데, 운전사가 거들어 드릴까 하고 묻자 고개를 젓고는 이내 노랗게 물들어 가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래도 집사는 잠도 자지 않고 네 시까지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가 온다 해도 전해 줄 사람이 없어진 지 한참 뒤까지.

나는 개츠비 자신도 전화가 오리라고 믿지 않았고, 어쩌면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랬다면, 그는 예전의 그 따뜻한 세계를 잃어버렸다고, 단 하나의 꿈을 안고 너무 오래 살아온 대가를 비싸게 치렀다고 느꼈을 것이다. 섬뜩한 나뭇잎들 사이로 낯선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이고, 장미란 얼마나 기괴한 것인지, 겨우 막 생겨난 풀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 얼마나 날것 그대로인지 깨닫고 몸을 떨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 실재하지 않으면서 물질이기만 한 세계. 가엾은 유령들이 공기처럼 꿈을 들이마시며 우연에 떠밀려 떠도는 곳…… 윤곽 없는 나무들 사이로 그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오던, 저 잿빛의 환영 같은 형상처럼.

울프심이 뒤를 봐주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운전사는 총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그는 그 소리를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역에서 곧장 개츠비의 집으로 차를 몰았는데, 그 집에서 누군가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허둥지둥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간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거의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넷, 운전사와 집사와 정원사와 나는 서둘러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한쪽 끝에서 새로 흘러든 물줄기가 반대쪽 끝의 배수구를 향해 밀려가느라, 물이 희미하게,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움직이고 있었다. 물결의 그림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잔물결을 타고, 짐을 실은 매트리스가 수영장을 따라 제멋대로 떠내려갔다. 수면에 주름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작은 바람 한 줄기로도, 우연한 짐을 싣고 가던 그 우연한 행로는 흐트러졌다. 나뭇잎 한 무더기가 와 닿자 매트리스는 천천히 돌면서, 컴퍼스의 다리처럼 물 위에 가느다란 붉은 원을 그렸다.

우리가 개츠비를 떠메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뒤에야 정원사가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윌슨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리하여

번제[2]는 완성되었다.

---

1. W. C. 핸디(W. C. Handy)가 1917년에 발표한 블루스. 빌 스트리트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흑인 거리로, 블루스의 본고장으로 이름났다.

2. 원문은 holocaust. 본디 제물을 통째로 태워 바치는 제사, 곧 번제(燔祭)를 뜻하는 말로, 큰 참사나 살육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다. 6장의 '육화는 완성되었다(the incarnation was complete)'와 같은 문형이다.

9장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날의 남은 시간과 그날 밤과 이튿날을, 경찰과 사진사와 신문기자들이 무슨 훈련이라도 하듯 개츠비의 현관문을 끝없이 들락거리던 광경으로만 기억한다. 정문에는 밧줄이 가로질러 쳐져 있었고 그 곁에 선 경관 하나가 구경꾼들을 막았다. 하지만 꼬마들은 우리 집 마당을 거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금세 알아냈고, 수영장 둘레에는 늘 몇 녀석이 입을 헤벌린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날 오후, 확신에 찬 태도의 누군가가, 아마 형사였을 텐데, 윌슨의 시신 위로 몸을 굽히며 '미치광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고, 그 목소리에 어쩌다 실린 권위가 이튿날 아침 신문 보도들의 논조를 정해 버렸다.

그 보도들은 대부분 악몽이었다. 괴기스럽고, 시시콜콜하고, 호들갑스럽고, 사실이 아니었다. 검시 심리에서 나온 미케일리스의 증언으로 윌슨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자, 나는 이제 이야기 전체가 곧 낯뜨거운 풍자 기사로 차려져 나오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을 캐서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에서 놀라울 만큼 강단까지 보였다. 뽑았다가 다시 그려 넣은 그 눈썹 아래로 단호한 눈길을 들어 검시관을 바라보며, 언니는 개츠비를 본 적도 없고, 언니는 남편과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며, 언니는 어떤 못된 짓에도 발을 들인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캐서린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어 버렸고, 그런 말이 나온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다는 듯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리하여 사건을 가장 단순한 모양으로 남겨 두기

위해 윌슨은 '슬픔으로 실성한' 사내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일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아득하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개츠비 편에 서 있었고, 혼자였다. 웨스트에그 마을에 그 참사를 전화로 알린 순간부터 그에 관한 온갖 추측과 온갖 실무적인 물음이 하나같이 나에게로 넘어왔다. 처음에는 놀랍고 어리둥절했지만, 그가 제 집에 누워 움직이지도 숨 쉬지도 말하지도 않는 채로 한 시간 또 한 시간이 흐르자,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차츰 굳어졌다. 다른 누구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관심이란, 누구나 마지막에는 어렴풋하게나마 누릴 권리가 있는, 그 절실하고도 사사로운 관심이다.

우리가 그를 발견하고 30분쯤 지나 나는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능적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나 데이지와 톰은 그날 오후 일찍 짐을 꾸려 떠나 버린 뒤였다.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요?"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 짐작 가는 데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연락이 닿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누군가를 데려다주고 싶었다. 그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안심시켜 주고 싶었다. "누군가 데려올게요, 개츠비. 걱정 마요. 나만 믿어요. 꼭 누군가 데려올 테니까……"

마이어 울프심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 주어서 번호 안내에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를 알아냈을 때는 다섯 시가 한참 지나 있었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 번만 더 걸어 봐 주시겠어요?"

"벌써 세 번이나 걸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응접실로 돌아간 나는 갑자기 방을 가득 메운 관청 사람들을 한순간 어쩌다 들른 방문객들로 여겼지만, 그들이 시트를 걷고 충격받은 눈으로 개츠비를 내려다보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그의 항변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 올드 스포트. 저한테 누구든 좀 데려다주셔야 합니다. 애를 좀 써 주셔야 해요. 이걸 저 혼자서는 견뎌 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지만 나는 뿌리치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의 책상에서 잠기지 않은 칸들을 허둥지둥 뒤졌다. 부모가 죽었다는 말을 그에게서 분명히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잊힌 폭력의 증표인 댄 코디의 초상 하나만이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울프심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 집사를 뉴욕으로 보냈다. 사정을 알려 달라는 말과 함께 다음 기차로 와 달라고 재촉하는 편지였다. 쓰면서도 괜한 부탁이다 싶었다. 신문을 보면 그가 당장 길을 나서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오가 되기 전에 데이지에게서 전보가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전보도 울프심 씨도 오지 않았고, 온 사람이라고는 더 많은 경찰과 사진사와 신문기자들뿐이었다. 집사가 울프심의 답장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나는 반항심 같은 것을, 그들 모두에 맞서 개츠비와 내가 함께 품은 경멸 어린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캐러웨이 씨. 이번 일은 내 평생에 나한테 가장 끔찍한 충격 중에 하나라서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 남자가 저지른 그런 미친 짓 같은 것은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에 묶여 있어서 지금은 내려갈 수가 없고 지금 이 일에 얽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에드거 편에 편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들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거의 모르겠고 완전히 녹다운에 녹아웃이 됐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마이어 울프심

그리고 그 밑에는 서둘러 덧붙인 말이 있었다.

장례식 등등 알려 주기 바람 그 사람 가족은 전혀 모름.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고 장거리 교환원이 시카고에서 온 전화라고 알려 주었을 때, 나는 이번에야말로 데이지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연결되어 들려온 것은 남자 목소리였다. 아주 가늘고, 아득히 먼 목소리.

"슬레이글입니다……"

"네?" 모르는 이름이었다.

"이거 참 꼴좋게 됐죠, 안 그래요? 내 전보 받았어요?"

"전보는 한 통도 안 왔는데요."

"파크 그 녀석이 큰일 났어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창구에 채권을 내밀다가 붙잡혔대요. 딱 5분 전에 뉴욕에서 채권 번호를 적은 회람이 그쪽에 들어갔다지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이런 촌구석에선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보세요!" 나는 숨 가쁘게 말을 끊었다. "이봐요, 저는 개츠비 씨가 아닙니다. 개츠비 씨는 죽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외마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연결이 끊기며 짧게 꽥 하는 소리가 났다.

미네소타의 어느 소도시에서 헨리 C. 개츠라는 서명이 든 전보가 온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다. 보낸 사람이 곧바로 떠나니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을 미뤄 달라는 말뿐이었다.

개츠비의 아버지였다. 엄숙한 노인이었는데, 몹시 무력하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으며, 따뜻한 9월 날씨인데도 길고 값싼 외투로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 흥분한 탓인지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새어 나왔고, 내가 가방과 우산을 받아 들자 노인은 성긴 잿빛 수염을 어찌나 연신 잡아당기던지 외투를 벗겨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서 나는 노인을 음악실로 데려가 앉히고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노인은 먹으려 하지 않았고, 떨리는 손에서 우유 잔이 엎질러졌다.

"시카고 신문에서 봤소." 노인이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 다 났더구먼. 보자마자 떠났소."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노인의 두 눈이 끊임없이 방 안을 헤맸다.

"미친 사람 짓이오." 노인이 말했다. "미친놈이었던 게 틀림없소."

"커피라도 좀 드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권했다.

"아무것도 생각 없소. 난 이제 괜찮소, 저, 선생……"

"캐러웨이입니다."

"그래요, 난 이제 괜찮소. 지미는 어디다 눕혀 놨소?"

나는 노인을 아들이 누워 있는 응접실로 데려가 그곳에 혼자 두고 나왔다. 꼬마 몇이 계단까지 올라와 현관 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누가 왔는지 일러 주자 마지못해 물러갔다.

조금 뒤 개츠 씨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살짝 상기되었으며 두 눈에서는 눈물이 드문드문, 제때도 모르고 새어 나왔다. 노인은 죽음이 더는 소름 끼치는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나이에 이르러 있었고, 그런 그가 이제야 처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천장 높고 화려한 홀과 거기서 또 다른 방들로 이어지며 열려 나가는 커다란 방들을 보자, 그 슬픔에는 경외에 찬 자부심이 섞여 들기 시작했다. 나는 노인을 부축해 위층 침실로 모셨고, 외투와 조끼를 벗는 노인에게 모든 절차를 그가 올 때까지 미뤄 두었다고 일러 주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지 몰라서요, 개츠비 씨……"

"내 이름은 개츠요."

"……개츠 씨. 혹시 시신을 서부로 모셔 가고 싶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미는 늘 동부 쪽을 더 좋아했소. 그 애가 그만한 자리에 오른 것도 동부에서였고. 우리 애하고 친구였소, 선생……?"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애 앞엔 큰 앞날이 있었다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여기, 머리가 아주 좋았지."

노인이 자못 의미심장하게 제 머리를 짚어 보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살았으면 큰 인물 됐을 거요. 제임스 J. 힐[1] 같은 사람 말이오. 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 한몫했을 거요."

"그랬을 겁니다." 내가 거북해하며 대답했다.

노인은 수놓은 침대 덮개를 걷어 내려고 더듬거리다가 그대로 뻣뻣하게 드러누웠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누가 들어도 겁에 질린 게 분명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자기 이름을 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밝히라고 했다.

"캐러웨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클립스프링어예요."

그 이름이 개츠비의 무덤가에 친구 하나가 더 서 주리라는 약속처럼 들려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나는 장례식이 신문에 나서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몇몇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던 참이었는데, 다들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세 시, 여기 이 집에서요. 관심 있을 만한 분들께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게요." 그가 황급히 말을 쏟아 냈다. "물론 제가 누굴 만날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 만나게 되면요."

그 말투에 의심이 들었다.

"물론 본인은 오시겠지요."

"글쎄요, 가 보도록 꼭 애는 써 볼게요. 제가 전화한 건……"

"잠깐만요." 내가 말을 끊었다.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저, 그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그리니치에서 어떤 분들 댁에 묵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일은 제가 같이 있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서요. 실은 소풍인지 뭔지가 있거든요. 물론 빠져나가 보려고 최선을 다하긴 할게요."

나는 참지 못하고 "허!" 하고 내뱉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전화드린 건 거기 두고 온 신발 한 켤레 때문이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사한테 좀 부쳐 달라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테니스화라서요, 그게 없으면 제가 좀 꼼짝을 못 하거든요. 보내실 곳은 B. F.……"

나머지 이름은 듣지 못했다. 내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으니까.

내가 전화를 건 어느 신사가 개츠비는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말하는 바람에, 그 뒤로 나는 개츠비를 대신해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다. 그는 개츠비네 술기운을 빌려 누구보다 신랄하게 개츠비를 비웃던 축이었으니, 애초에 그에게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다.

장례식 날 아침 나는 마이어 울프심을 만나러 뉴욕으로 올라갔다. 달리는 연락이 닿을 길이 없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일러 준 대로 밀고 들어간 문에는 '스와스티카 지주회사'[2]라고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계십니까?" 하고 몇 번이나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칸막이 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윽고 아름다운 유대인 아가씨 하나가 안쪽 문간에 나타나 적의 어린 검은 눈으로 나를 뜯어보았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여자가 말했다. "울프심 씨는 시카고에 가셨어요."

그 말의 앞부분은 누가 봐도 거짓이었다. 안에서 누군가 '묵주(The Rosary)'를 가락도 없이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으니까.

"캐러웨이가 뵙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시카고에 가 있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불러와요?"

바로 그때 틀림없는 울프심의 목소리가 문 저편에서 "스텔라!" 하고 불렀다.

"책상에 성함을 적어 두고 가세요." 여자가 얼른 말했다. "돌아오시면 전해 드릴게요."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여자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분개한 듯 두 손으로 엉덩이 양옆을 쓸어내렸다 쓸어올렸다 하기 시작했다.

"젊은 양반들은 아무 때나 여기 밀고 들어와도 되는 줄 알죠." 여자가 쏘아붙였다. "우리도 이젠 진짜 지긋지긋하다구요. 내가 시카고에 있다고 하면 시카고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개츠비의 이름을 꺼냈다.

"어머나!" 여자는 나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럼 잠깐만……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사라졌다. 잠시 뒤 마이어 울프심이 두 손을 내밀며 엄숙하게 문간에 섰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슬픈 때라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더니 시가를 권했다.

"내 기억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때로 돌아가요." 그가 말했다. "군대에서 막 나온 젊은 소령이었는데, 전쟁에서 탄 훈장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지요. 어찌나 쪼들렸는지 보통 옷을 좀 살 수가 없어서 군복을 계속 입고 다녀야 했어요. 처음 본 게 그 사람이 43번가 와인브레너 당구장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할 때였어요. 이틀인가 아무것도 못 먹었었지요. '이리 와서 나하고 점심 좀 먹읍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분 만에 4달러어치가 넘게 먹어 치웠어요."

"울프심 씨가 그 사람을 사업에 들여놓으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들여놓다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로 시궁창에서 건져 내 키웠지요. 보자마자 알았어요, 풍채 좋고 신사다운 젊은이라는 걸. 오그스퍼드에 있었다고 하길래 이 사람 좋게 써먹을 수 있겠다 알았지요. 미국재향군인회에 들게 했더니 거기서 높이 섰어요. 곧바로 올버니 쪽에 있는 내 고객 일을

좀 봐 줬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이만큼 딱 붙어 있었어요." 그는 뭉툭한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다. "언제나 같이요."

그 동업에 1919년 월드시리즈 거래도 들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잠시 뒤 내가 말했다.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셨으니, 오늘 오후 장례식에는 꼭 오고 싶으시겠지요."

"가고 싶지요."

"그럼 오시지요."

그의 콧구멍 속 털이 가늘게 떨렸고, 고개를 젓는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건 못 해요. 거기 얽힐 수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얽힐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이 누구 손에 죽었다 하면 나는 무슨 일로든 거기 얽히는 게 절대 싫어요. 발을 빼지요. 젊었을 땐 달랐어요.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죽었든 끝까지 곁에 붙어 있었지요. 감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심이에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나는 그가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인지 오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불쑥 물었다.

순간 나는 그가 '거넥션'이라도 제안하려는 줄 알았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내 손을 잡아 흔들었다.

"우리, 사람한테 우정을 보여 주는 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하도록 배웁시다. 죽은 다음 말고요." 그가 제안하듯 말했다. "그다음부터는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내 원칙이에요."

울프심의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고, 나는 이슬비를 맞으며 웨스트에그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옆집으로 건너가 보니 개츠 씨가 흥분해서 홀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아들을, 그리고 아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노인의 마음은 그사이에도 쉬지 않고 커져 가던 참이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보여 줄 것까지 생겼다.

"지미가 이 사진을 보내 줬소."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갑을 꺼냈다. "이것 좀 보시오."

모서리마다 금이 가고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은, 이 집을 찍은 사진이었다. 노인은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열심히 보여 주었다. "여기 좀 보시오!" 그러고는 내 눈에서 감탄의 빛을 찾았다. 하도 여러 번 보여 준 사진이라 이제 노인에게는 이 사진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진짜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지미가 보내 준 거요. 아주 예쁜 사진이라고 생각하오. 잘 나왔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드님을 만나셨습니까?"

"2년 전에 날 보러 와서는, 지금 내가 사는 집을 사 줬소. 물론 그 애가 집을 뛰쳐나갔을 적엔 우리 사이가 틀어졌었지. 그런데 이제 보니 다 까닭이 있었어. 그 애는 제 앞에 큰 앞날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요. 그러고 성공하고부터는 나한테 아주 후하게 했다오."

노인은 사진을 넣기가 아쉬운지 미련이 남은 손길로 한동안 더 내 눈앞에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지갑을 도로 넣고, 주머니에서 《호팔롱 캐시디》[3]라는 너덜너덜한 헌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것 좀 보시오, 그 애가 어릴 때 보던 책이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노인은 뒤표지 쪽을 펼치더니 내가 볼 수 있게 돌려 보였다. 마지막 면지에 '일과표'라는 말과 1906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6:00	오전
아령 체조와 벽 타기	6:15~6:30	〃
전기 등등 공부	7:15~8:15	〃
일하기	8:30~4:30	오후
야구와 운동	4:30~5:00	〃
웅변 연습, 의젓한 몸가짐과 그것을 갖추는 법	5:00~6:00	〃
필요한 발명품 연구	7:00~9:00	〃

일반 결심 사항

샤프터스나 [이름, 알아볼 수 없음]에서 시간 낭비 금지

담배 피우기나 씹기는 이제 그만.

목욕은 이틀에 한 번

교양 쌓는 책이나 잡지를 일주일에 한 권 읽기

일주일에 5.00달러 [줄 그어 지움] 3.00달러 저축

부모님께 더 잘하기

"이 책은 우연히 찾아냈소." 노인이 말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안 그렇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미는 출세하게 돼 있었소. 늘 이런 결심 같은 걸 세우곤 했지. 교양 쌓는 거에 대해 써 놓은 거 보이시오? 그 애는 늘 그런 데 열심이었다오. 한번은 나더러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길래 내가 그 애를 두들겨 팼지."

노인은 책을 덮기가 아쉬운지 항목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읽고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내가 그 목록을 베껴 가서

나도 써먹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 같다.

세 시가 조금 못 되어 플러싱에서 루터교 목사가 도착했고, 나는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며 다른 차가 오는지 살피기 시작했는데, 개츠비의 아버지도 그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인들이 들어와 홀에 서서 기다리자 노인은 불안하게 눈을 깜박이기 시작하더니 걱정스럽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비 이야기를 했다. 목사가 몇 번이나 시계를 흘끗거리기에 나는 목사를 한쪽으로 데려가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섯 시쯤 차 세 대로 이루어진 우리 행렬이 묘지에 닿아, 짙은 이슬비 속에 정문 곁에 멈춰 섰다. 맨 앞은 끔찍하게 검고 젖은 영구차였고, 다음은 개츠 씨와 목사와 내가 탄 리무진이었으며, 조금 뒤에 하인 너덧 명과 웨스트에그의 우편배달부가 개츠비의 스테이션왜건을 타고 따라왔는데 다들 속옷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가 정문을 지나 묘지로 막 들어서는데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질척한 땅을 철벅철벅 밟으며 우리를 뒤쫓아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석 달 전 어느 밤 개츠비의 서재에서 책들을 보며 경탄하던, 부엉이 눈처럼 동그랗고 커다란 안경을 쓴 그 남자였다.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장례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이름조차 나는 모른다. 빗물이 두꺼운 안경알 위로 줄줄 흘러내리자 남자는 안경을 벗어 닦고는, 개츠비의 무덤을 덮어 두었던 방수포가 걷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잠시 개츠비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고,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데이지가 전갈 한 줄도 꽃 한 송이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누군가 "비를 맞는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4] 하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 이어서 부엉이 눈의 그 남자가 씩씩한 목소리로 "아멘, 그렇고말고요" 하고 받았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빗속을 서둘러 차 쪽으로 내려갔다. 정문 옆에서 부엉이 눈이 내게 말을 걸었다.

"집에는 못 갔어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왔어요."

"설마요!" 그가 흠칫 놀랐다. "아니, 맙소사! 그 집엔 수백 명씩 몰려가곤 했잖아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다시 닦았다. 바깥쪽도, 안쪽도.

"불쌍한 자식." 그가 말했다.

내게 가장 생생한 기억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무렵 예비학교에서, 나중에는 대학에서 서부로 돌아가던 일이다. 시카고보다 더 멀리 가는 아이들은 12월 저녁 여섯 시면 어둑한 옛 유니언 역에 모였고, 벌써 저희들 연휴의 흥겨움에 휩쓸린 시카고 친구 몇이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와 주었다. 이런저런 아무개 양 여학교에서 돌아오는 아가씨들의 모피 외투와, 얼어붙은 입김 속에 오가던 재잘거림과, 옛 친구를 알아보고 머리 위로 흔들던 손들과, 서로 받은 초대를 맞춰 보던 말들이 기억난다. "오드웨이네 가? 허시네는? 슐츠네는?" 그리고 장갑 낀 손에 꼭 쥐고 있던 기다란 초록색 차표도, 끝으로 개찰구 옆 선로에서 크리스마스 그 자체처럼 흥겨워 보이던 시카고·밀워키·세인트폴 철도의 칙칙한 노란 객차들도.

기차가 겨울밤 속으로 빠져나가고, 진짜 눈, 우리의 눈이 곁으로 펼쳐지며 차창에 부딪혀 반짝이기 시작하고, 위스콘신 작은 역들의 흐릿한 불빛이 스쳐 지나가면, 문득 공기 속으로 날카롭고 거친 기운이 스며들었다. 저녁을 먹고 차디찬 연결 통로를 지나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기운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 기묘한 한 시간 동안 이 땅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절실하게 느끼다가, 이윽고 다시 그 속으로 녹아들어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중서부다. 밀밭도 대초원도 잊힌 스웨덴 사람들의 마을도 아닌, 젊은 날 가슴을 설레게 하던 귀향 열차, 서리 내린 어둠 속의 가로등과 썰매 방울 소리, 불 켜진 창문들이 눈 위에 드리우던 호랑가시나무 화환의 그림자. 나는 그 일부다. 그 기나긴 겨울의 감촉이 몸에 배어 조금은 엄숙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집을 여전히 그 집안의 성으로 부르는 도시의 캐러웨이 댁에서 자란 탓에 조금은 자기만족에 젖어 있다. 이제야 알겠다. 이것은 결국 서부의 이야기였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과 나는 모두 서부 사람이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동부의 삶에 미묘하게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결함이 공통으로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부가 나를 가장 들뜨게 하던 때에도, 오하이오강 너머의 따분하고 제멋대로 퍼져 나가 부풀 대로 부푼 소도시들, 아이들과 아주 늙은 사람들 말고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끝없는 캐묻기가 이어지는 그 소도시들보다 동부가 낫다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끼던 때에도, 그때조차 동부는 나에게 늘 어딘가 일그러진 데가 있었다. 특히 웨스트에그는 지금도 내가 꾸는 더 기이한 꿈들 속에 나타난다. 나는 그곳을 엘 그레코가 그린 밤 풍경처럼 본다. 판에 박혔으면서도 괴기한 집 백 채가 음울하게 낮게 드리운 하늘과 빛을 잃은 달 아래 웅크리고 있다. 그 앞쪽으로 야회복을 입은 엄숙한 사내 넷이 들것을 들고 보도를 걸어간다. 들것 위에는 흰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취해 누워 있다. 들것 가장자리로 늘어진 여자의 손에서 보석이 차갑게 반짝인다. 사내들은 근엄하게 어느 집으로 들어선다. 엉뚱한 집이다. 그러나 아무도 여자의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개츠비가 죽은 뒤로 동부는 내게 그렇게 귀신 들린 곳이 되었다. 내 눈의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진 채로. 그래서 바싹 마른 낙엽을 태우는 푸른 연기가 공중에 감돌고 바람이 빨랫줄에 널린 젖은 빨래를 뻣뻣하게 굳혀 놓을 무렵,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해 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어색하고 달갑지 않은 일,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리해 두고 싶었고, 고분고분하면서도 무심한 저 바다가 내 쓰레기를 쓸어 가 주리라 믿고 그냥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나 우리 둘에게 함께 일어났던 일과 그 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정면으로도 에둘러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던은 커다란 의자에 꼼짝도 않고 기대 누운 채 듣기만 했다.

조던은 골프 칠 차림이었는데, 턱을 조금 경쾌하게 치켜든 채 머리칼은 가을 낙엽 빛깔에 얼굴은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 없는 장갑과 똑같은 갈색이어서, 잘 그린 삽화 같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조던은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고개 한 번 끄덕이면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여럿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 말을 의심했고, 그래도 놀란 척은 했다. 아주 잠깐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빠르게 곱씹어 본 뒤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다.

"그래도 날 찬 건 너야." 조던이 불쑥 말했다. "전화로 날 찼잖아. 이제 너 같은 건 눈곱만큼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라, 한동안 좀 어질어질하더라."

우리는 악수를 했다.

"아, 그리고 기억나?" 조던이 덧붙였다. "언젠가 우리가 운전을 두고 나눴던 얘기."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운전 형편없는 사람도 또 다른 운전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만 안전하다고 했지? 그런데 나, 또 다른 운전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네, 그렇지? 내 말은, 그렇게 엉뚱하게 짚다니 내가 무신경했다는 거야. 난 네가 꽤 정직하고 곧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게 너의 은근한 자부심인 줄 알았지."

"난 서른이야." 내가 말했다. "나 자신을 속여 놓고 그걸 명예라고 부르기엔, 다섯 살은 나이를 너무 먹었어."

조던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고, 반쯤은 조던을 사랑하고, 한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돌아섰다.

10월 말 어느 오후 나는 톰 뷰캐넌을 보았다. 톰은 5번가를 따라 내 앞에서 방심하는 기색 없이 공격적인 그 특유의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끼어들면 쳐 내려는 듯 두 손을 몸에서 조금 벌리고 있었고,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는 눈을 따라 고개가 이리저리 홱홱 돌아갔다. 앞지르지 않으려고 내가 걸음을 늦춘 바로 그때 톰이 멈춰 서더니, 보석 가게 진열창을 찌푸린 얼굴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쑥 나를 알아보고는 손을 내밀며 되돌아왔다.

"왜 그래, 닉? 나하고는 악수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너 미쳤구나, 닉." 톰이 재빨리 말했다. "단단히 미쳤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톰." 내가 물었다. "그날 오후에 윌슨한테 뭐라고 했어?"

톰은 말없이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윌슨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몇 시간에 대해 내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돌아서려는데 톰이 한 걸음 따라와 내 팔을 붙잡았다.

"사실대로 말해 줬지." 톰이 말했다. "우리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자가 문간에 왔어. 우리 없다고 아래층에 일러 보냈더니 억지로

위층까지 밀고 올라오려고 하더군. 그 차 임자가 누군지 말해 주지 않았으면 나를 죽이고도 남을 만큼 돌아 있었어. 우리 집에 있는 내내 주머니 속 권총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톰은 대들 듯이 말을 끊었다. "내가 말해 줬으면 어쩔 건데? 그 작자는 당해도 쌌어. 데이지 눈에 그랬던 것처럼 네 눈에도 먼지를 뿌려 댔지만, 그놈은 독한 놈이었다고. 머틀을 개 치듯 치어 놓고 차 한 번 안 세웠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 말고는.

"그리고 내가 내 몫의 고통을 안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봐, 그 아파트를 정리하러 갔다가 찬장 위에 그 빌어먹을 개 비스킷 통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고, 난 주저앉아서 애처럼 울었어. 정말이지 끔찍했다고……"

나는 톰을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지만, 그가 한 일이 그 자신에게는 더없이 정당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모든 게 몹시 무신경하고 뒤죽박죽이었다. 그들은 무신경한 사람들이었다, 톰과 데이지는. 물건이든 생명이든 마구 부숴 놓고는 자기들의 돈 속으로, 아니면 그 거대한 무신경함 속으로,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 두 사람을 한데 묶어 두는 그것 속으로 도로 물러나 버렸고, 자기들이 벌여 놓은 난장판은 남들이 치우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톰과 악수를 했다. 갑자기 어린애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악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리석어 보였다. 그러고 나서 톰은 진주 목걸이를 사러, 아니 어쩌면 커프스단추 한 쌍이나 사러 보석 가게로 들어갔다. 내 촌스러운 결벽에서는 영영 풀려난 채로.

내가 떠날 때까지도 개츠비의 집은 비어 있었고, 그 집 잔디밭의 풀도 이제 우리 집 풀만큼이나 길게 자라 있었다. 마을의 택시 운전사 하나는 손님을 태우고 그 집 정문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잠깐 차를 세우고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어쩌면 사고가 난 날 밤 데이지와 개츠비를 태우고 이스트에그로 건너간 사람이 그였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두고 저만의 이야기를 지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기차에서 내릴 때면 그를 피했다.

번쩍이고 눈부시던 그 집의 파티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정원에서 희미하게,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진입로를 오르내리는 차들의 소리가 아직도 들렸으므로 토요일 밤이면 나는 뉴욕에서 지냈다. 어느 밤에는 정말로, 상상이 아닌 진짜 차 한 대가 거기 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전조등이 현관 계단 앞에 멈추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알아보러 가지 않았다. 아마도 세상 끝 어딘가에 가 있다가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었던 모양이다.

마지막 날 밤, 트렁크를 다 꾸리고 차는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팔아치운 뒤, 나는 건너가서 그 거대하고 두서없는 실패작 같은 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흰 계단 위에 어느 아이가 벽돌 조각으로 휘갈겨 쓴 외설스러운 낱말 하나가 달빛 속에 또렷이 드러나 있었고, 나는 구두 바닥으로 돌을 버석버석 문질러 그것을 지웠다. 그러고는 어슬렁어슬렁 해변으로 내려가 모래 위에 큰대자로 드러누웠다.

물가의 큰 저택들은 이제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해협 건너에서 어른어른 움직이는 연락선의 흐릿한 불빛 말고는 불빛이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달이 높이 떠오를수록 군더더기 같은 집들은 녹아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는 한때 네덜란드 뱃사람들의 눈앞에 꽃처럼 피어났던 이곳의 옛 섬을 서서히 알아보게 되었다.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 젖가슴을. 이제는 사라진 그 나무들, 개츠비의 집이 들어서도록 자리를 비켜 준 그 나무들은 한때 인간의 모든 꿈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꿈에 속삭이며 영합했다. 덧없이 스쳐 간 마법 같은 한순간,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숨을 죽였으리라. 이해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미적 관조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 역사상 마지막으로, 경이를 담을 수 있는 제 그릇에 걸맞은 무언가와 얼굴을 마주한 채.

나는 그렇게 거기 앉아 오래된 미지의 세계를 곱씹다가, 개츠비가 데이지네 선착장 끝의 초록 불빛을 처음 알아보았을 때 느꼈을 경이를 떠올렸다. 그는 이 푸르스름한 잔디밭까지 먼 길을 왔고, 그의 꿈은 손만 뻗으면 잡힐 만큼 가까워 보였으리라. 그는 몰랐다. 그 꿈이 이미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도시 너머 저 광막한 어둠 속 어딘가, 공화국의 어두운 들판이 밤 아래 끝없이 굽이쳐 가는 그곳에.

개츠비는 초록 불빛을 믿었다. 해마다 우리 앞에서 물러나는 황홀한 미래를. 그때는 그것이 우리 손을 빠져나갔지만, 상관없다. 내일은 더 빨리 달리고, 두 팔을 더 멀리 뻗을 테니까……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

그렇게 우리는 노를 저어 나아간다. 물살을 거스르는 배가 되어,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며.

---

1. 제임스 J. 힐(James J. Hill, 1838~1916).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을 근거지로 그레이트노던 철도를 일군 철도 재벌. 가난하게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로 이름났다.

2. 원문은 The Swastika Holding Company. 스와스티카(卍 모양의 갈고리 십자)는 예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행운을 비는 표지로 쓰였고, 1920년대 미국에서도 상호나 상표에 흔히 붙었다. 나치당이 1920년에 이 문양을 당의 상징으로 삼았지만, 이 표지가 곧 나치를 뜻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다.

3. 클래런스 E. 멀퍼드(Clarence E. Mulford)가 1904년에 처음 선보인 서부 소설의 카우보이 주인공. 이 이름을 제목으로 단 소설은 1910년에 나왔다.

4. '햇볕 드는 날의 신부는 행복하고, 비를 맞는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옛 속담의 뒤 구절.

판권면

위대한 개츠비

원제 · The Great Gatsby

지은이 · F. 스콧 피츠제럴드 (F. Scott Fitzgerald, 1896~1940)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1925년 초판(뉴욕,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 본문을 따른 퍼블릭도메인 전자 텍스트. 영어 원전에서 옮겼다.

분량 · 원문 48,064단어 · 9장 · 원문 1,630문단, 번역 1,630문단 · 옮긴이 주 46개

바로잡은 곳 · 저본의 오식 두 곳(7장). 「일러두기」에 밝혔다.

저작권 · 미국에서는 1925년에 출판된 저작물로서 2021년 1월 1일 퍼블릭도메인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자가 1940년에 사망해 구법의 사후 50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끝났으며,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사후 70년 연장은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 소급되지 않는다.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개정 · 1.1판(2026년 10월).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다(예: 롱아일랜드 해협 → 롱아일랜드해협). 본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01